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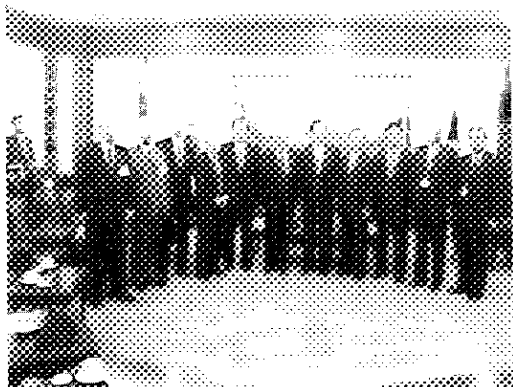
# **第37回 韓日・日韓經濟人會議**

**THE 37TH KOREA – JAPAN & JAPAN – KOREA  
BUSINESS CON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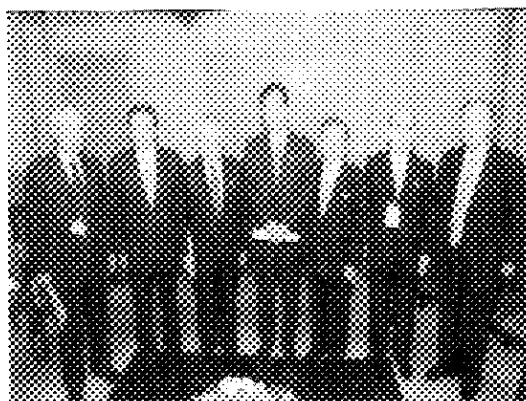
2005. 4. 14 ~ 15 SEOUL, KOREA

**報 告 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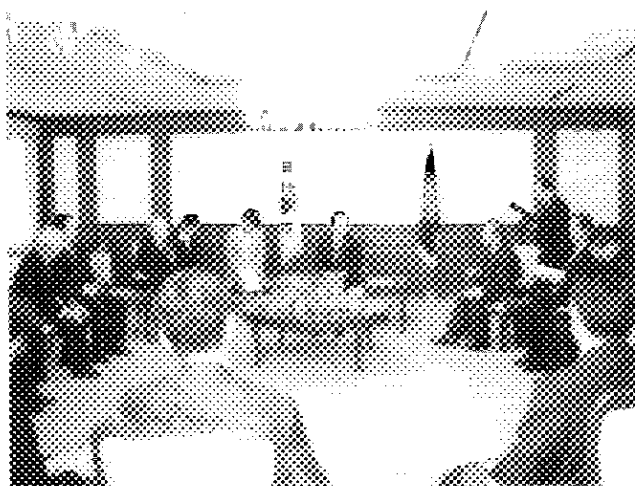
**(社)韓日經濟協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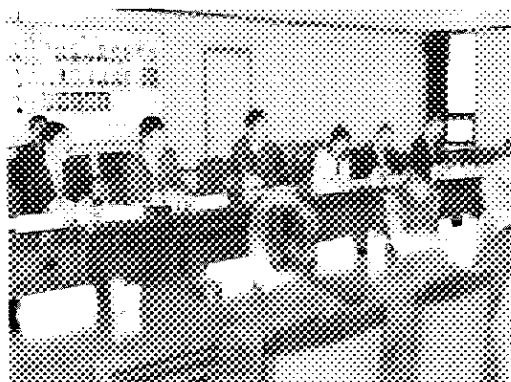
▲ 김원기 국회의장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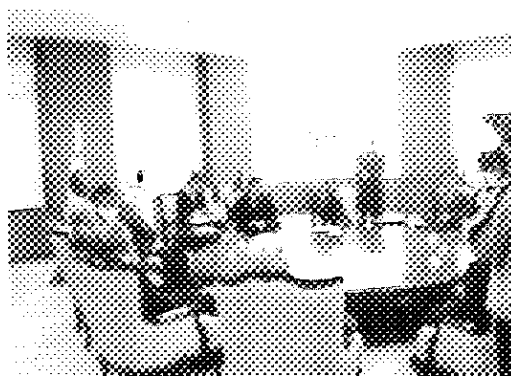
▲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접견



▲ 이해찬 국무총리 예방



▲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 예방



▲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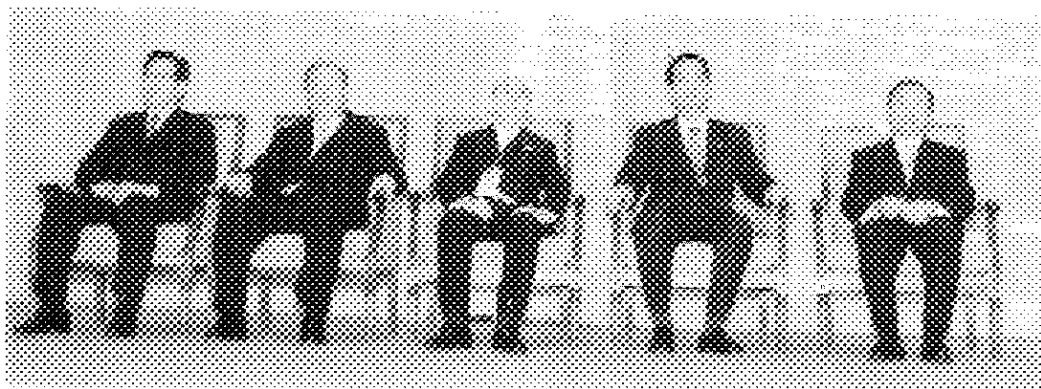
▲ 개회식



▲개회인사 <조석래 한국측 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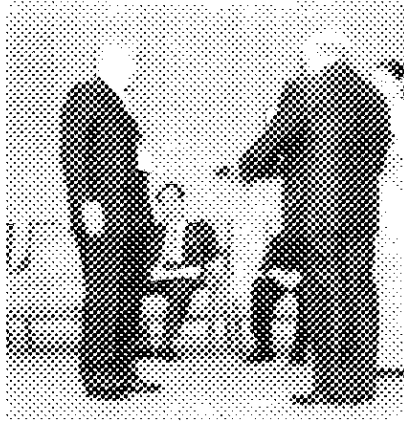
▲개회인사 <세토유조 일본측 단장>



▲ 한국측 단장단과 내빈



▲ 한국측 기조연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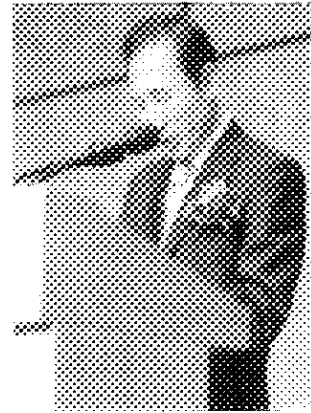
▲ 특별공로상을 받는  
 박태준 명예회장



▲ 일본측 기조연설  
 <오쿠다 경단련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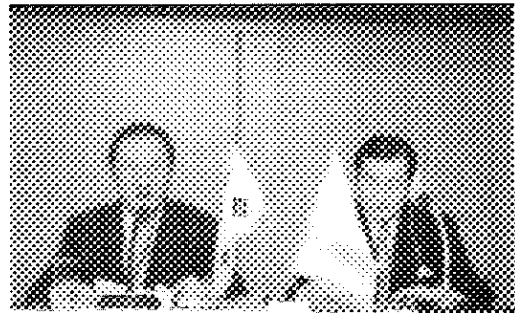
▲ 한영 리셉션



▲ 환영리셉션 축사  
 <이명박 서울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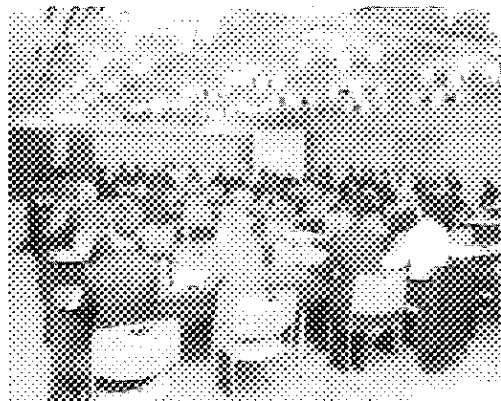
▲ 제1분과회 양국 코디네이터



▲ 제2분과회 양국 코디네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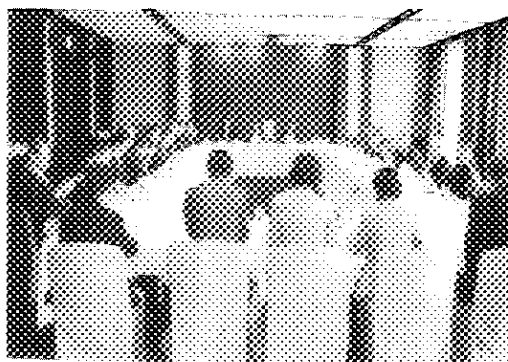
▲ 1분과 발표자  
 <유상부 포스코 고문>



▲ 본과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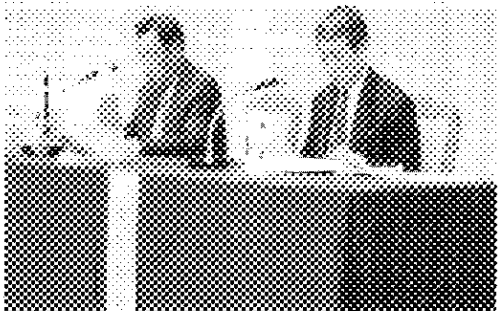
▲ 2분과 발표자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



▲ 공동성명(안) 심의 오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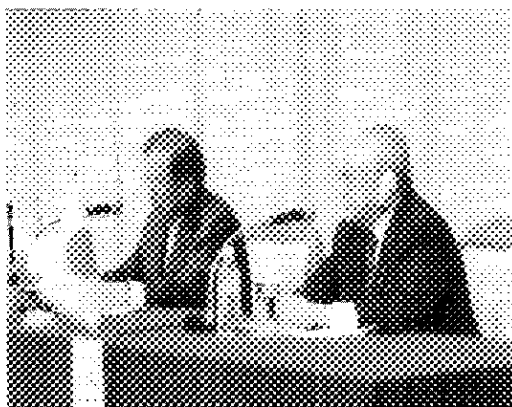
▲ 전체회의 발표자  
 <공로명 前외무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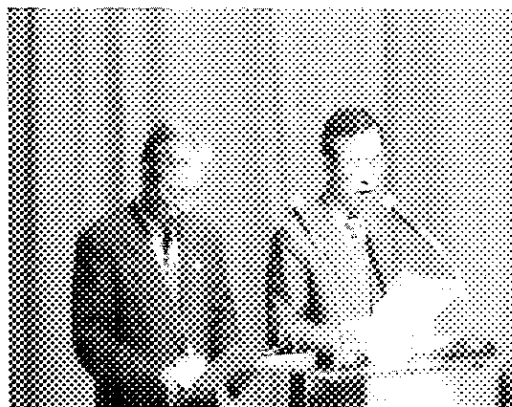
▲ 전체회의 양국 공동의장



▲ 전체회의 발표자  
 <테라다 前주한일본대사>



▲ 폐회식 진행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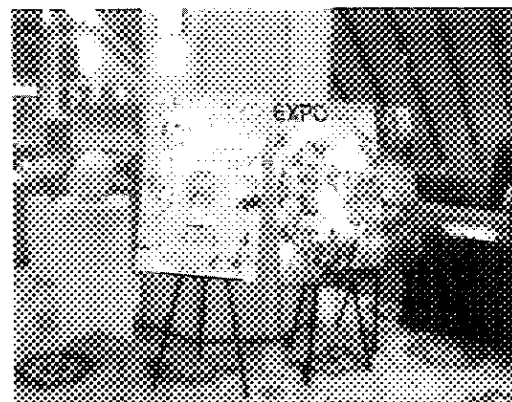
▲ 공동성명(안) 낭독 <허남정 전무이사>



▲ 공동기자회견



▲ 회의를 마치고 포옹하는 양측 단장



▲ 부대행사 - 전통공예품·관광 홍보

# - 目 次 -

I. 團長團 禮訪活動 .....	3
II. 共同聲明 .....	6
III. 日 程 .....	10
IV. 議 題 .....	14
V. 兩側 代表團 名單 .....	15
1. 韓國側 代表團 名單 .....	15
2. 日本側 代表團 名單 .....	24
VI. 議 事 錄 .....	33
1. 開 會 式 .....	33
(1) 團長人事	
趙 錫 來 團長 .....	34
瀬戸 雄三(SETO Yuzo) 團長 .....	35
(2) 兩國頂上 祝賀메시지(代讀)	
全 飛 虎 外交通商部 通商交渉本部 亞太通商審議官 .....	37
山本 榮二(YAMAMOTO Eiji)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 經濟公使 .....	38
(3) 來賓祝辭	
韓 惠 洙 副總理 兼 財政經濟部 長官 .....	39
高野 紀元(TAKANO Toshiyuki) 在大韓民國日本國特命全權大使 .....	40
(4) 特別功勞賞 施賞式 및 受賞者 人事	
朴 泰 俊 (社)韓日經濟協會 名譽會長 .....	42
藤村 正哉(FUJIMURA Masaya) (社)日韓經濟協會 相談役 .....	43
2. 基調演說 .....	45
(1) 韓國側 基調演說	
尹 鍾 龍 三星電子(株) 代表理事 副會長 .....	46
(2) 日本側 基調演說	
奥田 碩(OKUDA Hiroshi) 日本經濟團體連合會 會長 .....	51
3. 經過報告 .....	56
(1) 一般經過報告 (書面) .....	56

(2) 韓日・日韓産業貿易會議 報告 李 錫 瑛 韓國側 차어맨 (韓國貿易協會 副會長) .....	58
4. 第1分科會 .....	62
(1) 韓國側 백그라운드 페이퍼 劉 常 夫 (株)POSCO 顧問 .....	64
(2) 日本側 백그라운드 페이퍼 鮫島 章男(SAMESHIMA Fumio) 太平洋시멘트(株) 社長 .....	68
(3) 自由討論 .....	73
5. 第2分科會 .....	95
(1) 韓國側 백그라운드 페이퍼 李 御 寧 中央日報 顧問(初代 文化部 長官) .....	97
(2) 日本側 백그라운드 페이퍼 石原 進(ISHIHARA Susumu) 九州旅客鐵道(株) 社長 .....	104
(3) 自由討論 .....	110
6. 全體會議 .....	132
(1) 韓國側 主題發表① 孔 魯 明 翰林大學校 日本學研究所 所長(前外務部長官) .....	133
(2) 日本側 主題發表 寺田 輝介(TERADA Terusuke) (財)포란프레스센터 理事長 .....	138
(3) 韓國側 主題發表② 韓國投資環境 弘報 映像物 (産業資源部) .....	144
(4) 第1分科會 報告 成 在 甲 韓國側 코디네이터 .....	146
(5) 第2分科會 報告 金 熙 勇 韓國側 코디네이터 .....	148
(6) 質疑應答 .....	150
7. 閉 會 式 .....	154
(1) 共同聲明 採擇 .....	154
(2) 團長人事 趙 錫 來 團長 .....	154
瀬戸 雄三(SETO Yuzo) 團長 .....	155
<附錄> 報道資料・新聞記事 .....	157



## I. 團長團 禮訪活動

관례에 의거 訪問國側 단장단 일행은 政府 首腦의 예방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금번 일본측 단장단은 李海瓚 국무총리 이하 한국정부의 주요인사를 예방하였음. 이 자리에서 한국정부는 1965년 수교 이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룬데 대해 평가하고, 1969년 이래 양국 재계 대표의 대화의 장으로서 무역·기술협력 면에서 한일 협력 강화의 일등공신으로 평가하였으며, 한일 양국은 이웃으로서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이며, 경제·문화 분야는 지속적인 교류와 발전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양국 업계간 긴밀한 협력으로 무역·경제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는 언급이 있었음. 또한 정치, 경제계의 세대교체로 인해 원활한 의사소통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긴밀한 교류와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양국 사정에 밝은 원로들의 후배들에 대한 지도 편달을 당부하였으며,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한일FTA의 체결을 기대하며 한국측의 뜻을 일본 정부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한편, 일본측 단장인 세토 회장은 한일 관계가 2002년 이래 스포츠, 문화교류 등에서 매우 좋은 관계를 구축해 왔음을 설명하고, 정치·역사문제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현실에 대해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기조강연, 분과회의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솔직한 의견교환 등을 통해 벽을 허물어나가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갈 것임을 언급. 그밖에 중소기업 상호보완사업과 젊은 세대부터 상대방 국가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상대방국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한일 고교생교류 사업을 지속 추진 계획임을 설명함.

### 1. 禮訪 實績

가. 金元基 국회의장 예방

- 일 시 : 2005. 4. 13(수) 15:45~16:20
- 장 소 : 국회 본관 2층 접견실
- 예방인사 : 瀬戸 雄二 단장 등 일본측 단장단 8명

나. 李泰植 외교통상부 차관 예방

- 일 시 : 2005. 4. 13(수) 17:00~18:00
- 장 소 : 정부중앙청사 9층 접견실
- 예방인사 : 瀬戸 雄二 단장 등 일본측 단장단 8명

다. 趙煥益 산업자원부 차관 예방

- 일 시 : 2005. 4. 14(목) 10:30~11:00
- 장 소 :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6층 대회의실
- 예방인사 : 瀬戸 雄三 단장 등 일본측 단장단 9명

라. 韓惠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예방

- 일 시 : 2005. 4. 14(목) 15:00~15:25
- 장 소 : 호텔 신라 3층 마로니에
- 예방인사 : 瀬戸 雄三 단장 등 일본측 단장단 9명

마. 李海瓚 국무총리 예방

- 일 시 : 2005. 4. 15(금) 17:00~17:40
- 장 소 : 정부중앙청사 9층 접견실
- 예방인사 : 瀬戸 雄三 단장 등 일본측 단장단 6명

## 2. 禮訪人事 名單

가. 禮訪者 名單

區 分	姓 名	會 社 名 / 職 位
日本側 團 長	瀬戸 雄三 (SETO Yuzo)	アサヒビール[아사히맥주](株) 相談役 (社)日韓經濟協會 會長
副團長	渡 里 杉一郎 (WATARI Sugiichiro)	(株)東芝[도시바] 相談役 (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副團長	秋 山 富一 (AKIYAMA Tomiichi)	住友[스미토모]商事(株) 名譽顧問 (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副團長	鯨 島 章 男 (SAMESHIMA Fumio)	太平洋시멘트(株) 社長 (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副團長	石 原 進 (ISHIHARA Susumu)	九州旅客鐵道(株) 社長 (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副團長	麻 生 泰 (ASO Yutaka)	麻生라파주시멘트(株) 社長 (社)日韓經濟協會 副會長
相談役	今 井 敬 (IMAI Takashi)	新日本製鐵(株) 相談役名譽會長 (社)日韓經濟協會 相談役
特別參加	和 田 龍 幸 (WADA Ryuko)	(社)日本經濟團體連合會 事務總長 (社)日韓經濟協會 理事
團 員	平 木 健二郎 (HIRAKI Kenjiro)	(社)日韓經濟協會 專務理事

주) 1. 麻生 사장은 부총리, 산자부만 예방

2. 국무총리 예방은 瀬戸 회장, 渡里장담당, 秋山명예고문, 鯨島사장, 石原사장, 平木전부 등 6명 참석

나. 案內 및 陪席者

區 分	姓 名	會 社 名 / 職 位
韓國側 團 長	趙 錫 來 (CHO Suck Rai)	(株)曉星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會長
團 員	許 南 整 (HUH Nam Jung)	(社)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大使館	高 野 紀 元 (TAKANO Toshiyuki)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 特命全權大使
大使館	山 木 榮 二 (YAMAMOTO Eiji)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 經濟公使
大使館	吾 鄉 進 平 (AGO Shimpei)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 一等書記官
通譯	金 惠 媛 (KIM Hye Won)	通譯士

주) 山本 경제공사는 부총리, 외교부, 산자부 예방시 대사대신 대리참석

## II. 共 同 聲 明

第37回 韓日·日韓經濟人會議는 2005年 4月 14日, 15日 兩日間 大韓民國 서울에서 韓國側에서는 趙錫來 團長 等 145名, 日本側에서는 세토 유조(瀬戶 雄三) 團長 等 103名 이 參席하여 開催되었다.

1. 全體會議에서는 書面에 의한 一般經過報告 後, 第6回 韓日産業貿易會議(2004年 11月, 韓國 慶州)에 대한 報告가 있었다.
2. 먼저 基調演說 等を 통해 兩國 經濟人은 世界經濟, 兩國經濟 및 兩國關係에 대해 다음과 같이 基本認識을 같이 하였다.

世界經濟는 原油價 急騰의 長期化와 美國의 쌍둥이赤字 擴大 및 成長鈍化 등의 리스크를 憂慮하는 見解도 있으나, 대체로 好調勢를 보이고 있다. 中國經濟도 財政 및 金融緊縮으로 成長率이 다소 鈍化되고 있어 軟着陸을 實現하고 있다.

한편 韓國經濟는 昨年에 前年對比 30%의 輸出增加를 記錄했음에도 불구하고 內需不振으로 業種 및 企業間 業績의 兩極化 等 매크로 指標과 體感景氣의 괴리현상을 보였지만 今年들어 回復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日本經濟는 昨年 後半 以後 調整局面이 繼續되었으나 設備投資가 好調勢를 持續하고 있고 個人消費도 살아나고 있으며, 今年 後半부터 回復軌道에 올라설 수 있도록 民間次元 等の 努力이 持續되고 있다.

最近 東아시아 地域에서는 FTA 締結을 위한 움직임이 活潑해지고 있다. 兩國關係는 友好 및 協力이라는 關係가 아니라 21世紀의 戰略的 파트너십을 指向하는 關係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韓日FTA는 이를 위한 象徵的인 첫걸음이다. 兩國의 經濟活動을 圓滑하게 하고 兩國의 構造改革을 促進하는 包括的이며 水準높은 FTA의 年度內 締結이 강력히 要求된다.

지난 40年間の 兩國經濟는 兩國企業이 서로 윈윈하는 協力關係를 構築해 왔으며 最近에는 新産業分野에서도 多様하고 實質的인 協력이 活潑히 推進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向後的 兩國은 FTA 締結을 통해 調和롭고 衡平性있는 分業構造를 構築함으로써 東아시아 共存共榮의 循環고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韓國

側에서는 日本側이 農水産物分野의 自由化 水準을 世界 第 2의 經濟大國에 걸맞게 力量을 發揮해 줄 것을 期待하며, 이를 위하여 兩國은 진지한 論議를 持續·強化해 나가야 하고, 兩國 經濟人들도 自發的으로 貢獻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兩國 經濟人을 包含하는 모든 關係者들은 事實에 입각해 옳고 그름을 가리면서 未來指向의인 率直한 對話로 諸般問題를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3. 各 分科會와 全體會議에서의 意見發表와 討論을 통해 兩國 經濟人은 다음 事項에 대해 意見一致를 보았다.

(1) 東아시아에서의 커뮤니티 形成 및 安定과 繁榮을 위한 努力이 推進되는 가운데 兩國은 '東아시아공동체'를 指向하면서 그 모델이 될 包括的인 韓日FTA 체결을 위하여 經濟人과 政府가 하나가 되어 加一層 努力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 韓日産業間 協力을 活性化·成熟化시켜야 하며 韓日鐵鋼 등 素材産業의 成功事例를 살려 兩國産業·企業間의 理解促進과 信賴를 構築해 가는 努力이 加一層 要望된다.

(2) 部品 및 素材産業은 兩國 製造業의 國際競爭力을 지탱하는 産業이며 이 分野에서도 兩國은 'Defacto Standard(事實上 標準)'을 主導해 나갈 必要性이 있다.

最近 이 分野에서 兩國의 戰略的 提携事例가 增加하고 있는 점을 評價하고, 自由로운 經濟活動을 阻害하는 既存의 規定이나 制度의 改革을 위해 兩國 經濟人은 加一層 智慧를 모아야 한다.

(3) 最近 韓國內 日本大衆文化의 擴散과 日本內 韓流 붐에서 볼 수 있듯이 兩國 國民的 次元의 關心과 親近感이 擴散되고 있는 점을 매우 肯定的으로 評價하였다. 이를 토대로 東北亞地域의 協力和 地域共通의 利益을 이끌어내기 위한 體系的인 文化協力 促進을 위한 틀을 構成하는 것에 큰 關心이 表明되었다. 潛在的 成長率이 높은 文化産業分野에서 向後 새로운 兩國間 連帶가 크게 期待된다.

(4) 最近 金浦-하네다間 定期 차타편 등 兩國間의 旅客 및 物流의 高速交通體系 整備 및 擴充은 兩國關係를 增進시키는 役割을 하고 있으며, 觀光, 레저開發, 情報 서비스 等에서의 交流를 促進하기 위한 短期滞在비자 免除 等 人的交流條件 緩和에 兩國은 加一層 努力해야 한다.

(5) 韓日兩國은 東北아시아에서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라는 價值觀을 共有해 온 自由友邦이자 同盟關係의 運命的인 이웃으로서 友好協力增進과 相互信賴를 쌓아

왔다. 最近 浮上한 兩國間の 政治·外交的인 葛藤이 友好的인 韓日關係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칠 것이 憂慮되므로, 兩國政府가 이에 未來指向的인 觀點에서 냉정히 對處할 것을 要望한다. 나아가 兩國國民도 經濟·文化 等 非政治的인 면에서의 持續的인 發展을 위해 全力을 다해 나갈 것을 呼訴하며 우리 兩國의 經濟人들이 役割을 해 나가야 한다는 데 認識을 같이 하였다.

4. 兩國 經濟人들은 別添事項을 兩國協會 次元에서 推進하기로 合意하였다.

5. 다음 會議는 來年에 日本에서 開催한다.

2 0 0 5 年    4 月    1 5 日

韓國側 代表團 團長 趙 錫 來

日本側 代表團 團長 瀬戶 雄三

〈別 添〉

## 合 意 事 項

- (1) 包括的이며 水準 높은 韓日FTA의 年度內 締結을 위해 協力하는 件
- (2) ‘産業貿易會議’ 開催에 協力하는 件
- (3) ‘訪日輸出促進團’(韓國商品商談會) 派遣과 그 受容에 協力하는 件
- (4) 兩國 ‘産業技術協力財團’ 事業에 協力하는 件
- (5) ‘靑少年交流事業’으로서 韓日高校生交流에 대해 相互 協力하는 件
- (6) 兩國 中小企業의 ‘相互補完事業’에 대하여 協力하는 件
- (7) 其他 韓日·日韓 兩 協會 合意 下에 推進되는 事業에 協力하는 件

以 上

### Ⅲ. 日 程

#### 《日本側 團長團》

##### 4月 13日 (水)

11:15～13:40 入國 【羽田空港 → 金浦空港 (JL 8831)】

16:00～18:00 主要機關 禮訪

##### 4月 14日 (木)

09:30～14:00 主要機關 禮訪

#### 《兩國 團長團・團員 共通》

##### 4月 14日 (木)

15:00～15:30 兩國 團長團・團員 個別接受 ----- 新羅HOTEL 2F Dynasty I・II

15:30～16:25 開會式 ----- 2F Dynasty I・II

##### <開會式 細部日程>

15:30～15:40 開會 (議長選出・議題採擇)

15:40～15:50 團長人事

韓國側：趙 錫 來 團長

日本側：瀬戸 雄三(SETO Yuzo) 團長

15:50～16:00 兩國頂上 祝賀메시지(代讀)

韓國側：全 飛 虎 外交通商部 通商交渉本部 亞太通商審議官

日本側：山本 榮二(YAMAMOTO Eiji)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 經濟公使

16:00～16:10 來賓祝辭

韓國側：韓 惠 洙 副總理 兼 財政經濟部 長官

日本側：高野 紀元(TAKANO Toshiyuki) 在大韓民國日本國特命全權大使

16:10～16:25 特別功勞賞 施賞式 및 受賞者 人事

韓國側：朴 泰 俊 (社)韓日經濟協會 名譽會長

日本側：藤村 正哉(FUJIMURA Masaya) (社)日韓經濟協會 相談役



16:25 ~ 16:40 COFFEE BREAK

16:40 ~ 17:40 基調演説

韓國側：尹 鍾 龍 三星電子(株) 代表理事 副會長

『主題：韓日 經濟協力 40年の 回顧와 展望』

日本側：奥田 碩(OKUDA Hiroshi) 日本經濟團體連合會 會長

『主題：重層的 韓日關係 構築을 向한 經濟界의 役割』

17:40 ~ 17:50 經過報告

<經過報告 細部日程>

一般經過報告 (書面)

17:40 ~ 17:50 韓日產業貿易會議 報告

李 錫 瑛 韓國側 채어맨(韓國貿易協會 副會長)

18:30 ~ 20:30 共同主催RECEPTION “韓日 友情의 밤”----- 2F Dynasty II・III

#### 4月 15日 (金)

09:00 ~ 12:00 各分科會別 會議

▷ 第 1 分科會 ----- 2F Dynasty II

議題：經濟連帶와 向後 兩國企業間 協力方案(製造業分野)

코디네이터 韓國側：成 在 甲 LG石油化學(株) 顧問

日本側：飯島 英胤(IJIMA Hidetane) 東レ(株) 特別顧問

發 表 者 韓國側：劉 常 夫 (株)POSCO 顧問

『韓・日 鐵鋼協力 成功事例와 向後 協力 方向』

日本側：鮫島 章男(SAMESHIMA Fumio) 太平洋シメント(株) 社長

『素材産業의 韓日 經濟連帶 事例와 向後 展望』

▷ 第 2 分科會 ----- 2F Dynasty III

議題：經濟連帶와 向後 兩國企業間 協力方案(文化・서비스産業分野)

코디네이터 韓國側：金 熙 勇 東洋物産企業(株) 會長

日本側：清水 紘一郎(SHIMIZU Koichiro) (株)HOTEL OKURA 副社長

發 表 者 韓國側：李 御 寧 中央日報 顧問 (初代 文化部長官)

『韓·中·日 文化共同體의 可能性과 問題點』

日本側：石原 進(ISHIHARA Susumu) 九州旅客鐵道(株) 社長

『韓日海峽交流圈의 現狀과 向後 展望』

<各分科會別 細部日程>

09:00~09:10 兩側 코디네이터 人事 및 分科會進行要領 說明  
09:10~09:30 韓國側 백그라운드 페이지 要約發表  
09:30~09:50 日本側 백그라운드 페이지 要約發表  
09:50~10:10 COFFEE BREAK  
10:10~11:50 自由討論  
11:50~12:00 兩側 코디네이터 總括

12:00~13:30 午餐會

- 顧問·團長團·專門委員長·코디네이터 (共同聲明案 審議) ----- 3F Lilac  
- 團 員 ----- 迎賓館 2F Emerald & 1F Ruby

13:30~15:20 全體會議 ----- 2F Dynasty I

共同議長 韓國側：薛 元 鳳 副團長(大韓製糖(株) 會長)

日本側：麻生 泰(ASO Yutaka) 副團長(麻生라과유시멘트(株) 社長)

<全體會議 細部日程>

13:30~13:40 兩側 共同議長 人事  
13:40~14:00 韓國側 主題發表①  
孔 魯 明 翰林大學校 日本學研究所 所長 (前 外務部 長官)  
『어떻게 韓日間의 負의 遺産을 克服할 것인가』  
14:00~14:20 日本側 主題發表  
寺田 輝介(TERADA Terusuke) (財)Foreign Press Center 理事長  
前 駐韓日本國特命全權大使  
『韓日關係의 現狀과 展望』  
14:20~14:30 韓國側 主題發表②  
韓國投資環境 弘報 映像物 (產業資源部)  
『韓國과 함께, 東北아시아를 넘어 世界로』  
14:30~14:40 第1·2分科會 코디네이터 報告  
14:40~15:10 質疑應答  
15:10~15:20 議長總括

15:20～15:40 COFFEE BREAK (共同聲明(案) 配布)

15:40～16:00 閉會式

<閉會式 細部日程>

15:40～15:50 共同聲明 採擇

15:50～16:00 兩側團長 人事

16:00 閉會

18:00～18:30 共同記者會見 ----- 3F Marronnier

## IV. 議 題

### 1. 第 1 分科會

[議題：經濟連帶와 向後 兩國企業間 協力方案(製造業分野)]

韓國側：『韓・日 鐵鋼協力 成功事例와 向後 協力 方向』

劉 常 夫 (株)POSCO 顧問

日本側：『素材産業의 韓日 經濟連帶 事例와 向後 展望』

鮫島 章男(SAMESHIMA Fumio) 太平洋시멘트(株) 社長

### 2. 第 2 分科會

[議題：經濟連帶와 向後 兩國企業間 協力方案(文化·서비스産業分野)]

韓國側：『韓·中·日 文化共同體의 可能性과 問題點』

李 御 寧 中央日報 顧問 (初代 文化部長官)

日本側：『韓日海峽交流圈의 現狀과 向後 展望』

石原 進(ISHIHARA Susumu) 九州旅客鐵道(株) 社長

### 3. 全體會議

韓國側：『어떻게 韓日間의 負의 遺産을 克服할 것인가』

孔 魯 明 翰林大學校 日本學研究所 所長 (前 外務部 長官)

『韓國과 함께, 東北아시아를 넘어 世界로』

韓國投資環境 弘報 映像物 (産業資源部)

日本側：『韓日關係의 現狀과 展望』

寺田 輝介(TERADA Terusuke) (財)Foreign Press Center 理事長  
前 駐韓日本國特命全權大使

## V. 兩側 代表團 名單

### 1. 韓國側 代表團 名單

順：職責·가나다 順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團 長	趙 錫 來 CHO Suck Rai	(社)韓日經濟協會 會長 (株)曉星 會長
名譽會長	朴 泰 俊 PARK Tae Joon	(社)韓日經濟協會 名譽會長
名譽會長	金 相 廈 KIM Sang Ha	(社)韓日經濟協會 名譽會長 (株)三養社 會長
副 團 長 (2分科 Coordinator)	金 熙 勇 KIM Hi Yong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東洋物産企業(株) 會長
副 團 長	羅 應 燦 RA Eung Chan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新韓金融持株會社 會長
副 團 長	朴 世 英 PARK Sei Young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韓國PENTLAND(株) 會長
副 團 長	徐 敏 錫 SUH Min Sok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東一紡織(株) 會長
副 團 長 (全體會議 共同議長)	薛 元 鳳 SULL Won Bong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大韓製糖(株) 會長
副 團 長 (1分科 Coordinator)	成 在 甲 SUNG Jae Kap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LG石油化學(株) 顧問
副 團 長	禹 石 亨 WOO Suk Hyung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株)SINDORICOH 會長
副 團 長 (1分科 發表者)	劉 常 夫 YOO Sang Boo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株)POSCO 顧問
副 團 長	李 運 珩 LEE Woon Hyung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株)世亞製鋼 會長
副 團 長	崔 用 權 CHOI Yong Kwon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三燠企業(株) 會長
副 團 長	玄 明 官 HYUN Myung Kwan	(社)韓日經濟協會 副會長 三星物産(株) 會長
來 賓	韓 惠 洙 HAN Duck Soo	副總理 兼 財政經濟部 長官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來 賓	李 明 博 LEE Myung Bak	SEOUL特別市 市長
來 賓	全 飛 虎 CHUN Bee Ho	外交通商部 通商交渉本部 亞太通商審議官
特別參加 (基調演說者)	尹 鍾 龍 YUN Jong Yong	三星電子(株) 代表理事 副會長
特別參加	金 東 晉 KIM Dong Jin	現代自動車(株) 代表理事 副會長
特別參加 (全體會議 發表者)	孔 魯 明 GONG Ro Myung	翰林大學校 日本學研究所 所長 前 外務部 長官, 前 駐日韓國大使
特別參加 (2分科 發表者)	李 御 寧 LEE O Young	中央日報 顧問 前 文化部 長官
特別參加	朴 承 復 PARK Seung Bok	SEMPPIO食品(株) 會長
特別參加	李 吉 鉉 LEE Kil Hyun	(株)吳元 會長
特別參加	李 春 林 LEE Chun Lim	(株)Yujin Metro Communications INC. 會長
特別參加	李 熙 健 LEE Heui Keon	新韓銀行 名譽會長
特別參加	金 相 烈 KIM Sang Yeol	大韓商工會議所 常勤副會長
特別參加	趙 健 鎬 CHO Kun Ho	全國經濟人聯合會 常勤副會長
特別參加 (專門委員長)	李 錫 瑛 LEE Suk Young	(社)韓國貿易協會 常勤副會長 韓日產業貿易會議 Chairman
特別參加	張 志 鍾 CHANG Ji Jong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常勤副會長
特別參加	金 榮 培 KIM Young Vae	韓國經營者總協會 常任副會長
特別參加 (全體會議)	裴 泰 民 BAE Tae Min	產業資源部 亞洲協力課長
團 員	金 江 熙 KIM Kang Hee	(株)東和ENTEC 會長
團 員	金 德 吉 KIM Duk Kil	大永産業開發(株) 會長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團 員	金 永 煥 KIM Young Hwan	SUN INTERNATIONAL 會長
團 員	金 白 浩 KIM Ja Ho	(株)間三Partners 代表理事 會長
團 員	金 鐵 佑 KIM Chol Woo	(社)韓國TECHNOMART 會長
團 員	金 昊 淵 KIM Ho Youn	(株)BINGGRAE 代表理事 會長
團 員	朴 城 亨 PARK Sung Hyung	新羅纖維(株) 代表理事 會長
團 員	孫 鳳 洛 SOHN Bong Rak	東洋錫鋁(株) 會長
團 員	宋 明 哲 SONG Myung Chul	(株)南吳CRUX 會長
團 員	安 宗 原 AHN Chong Won	MCG corp 會長
團 員	吳 聖 銖 OH Sung Soo	KORSTEC(株) 會長
團 員	劉 載 晟 YOO Jae Sung	泰昌鐵鋼(株) 會長
團 員	尹 鳳 秀 YOON Bong Soo	(株)南盛 代表理事 會長
團 員	李 健 洙 LEE Kun Soo	(株)東亞電通 會長
團 員	李 永 斗 LEE Young Doo	Green Fire & Marine Insurance Co.,Ltd. 會長
團 員	李 昌 圭 LEE Chang Kyu	Dong Kang Medical Systems 會長
團 員	林 都 洙 LIM Do Soo	安山商工會議所 會長
團 員	韓 元 碩 HAN Won Sek	韓國·中國親善協會 會長
團 員	盧 泳 旭 NOH Young Wook	自動車部品研究院 院長
團 員	李 珏 範 LEE Kark Bum	IT戰略研究院 院長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團 員	朴 良 雨 PARK Yang Woo	韓國機械產業振興會 常勤副會長
團 員	申 德 鉉 SHIN Duck Hyun	(社)韓國優良製品振興協會 常勤副會長
團 員	李 鑑 烈 LEE Gam Yeol	韓國電子產業振興會 常勤副會長
團 員	李 仁 玉 LEE In Ok	朝鮮耐火(株) 副會長
團 員	李 熙 台 LEE Hee Tae	大邱商工會議所 常勤副會長
團 員	崔 明 煥 CHOI Myung Hwan	興和工業(株) 副會長
團 員	奇 秉 泰 KEE Byung Tae	大韓空調(株) 顧問
團 員	金 珍 鉉 KIM Chin Hyun	(株)曉星 顧問
團 員	申 相 勳 SHIN Sang Hoon	新韓銀行 銀行長
團 員	姜 在 祚 KANG Jae Jo	東南籌物工業(株) 代表理事
團 員	姜 亨 聲 KANG Hyung Sung	(株)瑞林精工 代表理事
團 員	高 炳 善 KO Byoung Sun	(株)東宇Control 代表理事
團 員	具 滋 烈 Christopher KOO	LS電線(株) CEO
團 員	金 思 烈 KIM Sa Youl	英和Consulting(株) 代表理事
團 員	金 源 培 KIM Won Bae	東亞製藥(株) 代表理事 社長
團 員	金 正 KIM Jung	(株)HANWHA流通 顧問
團 員	金 鍾 憲 KIM Jong Hyon	SUNHAN INFORMATION 代表理事
團 員	朴 南 淑 PARK Nam Sook	共生國際特許情報(株) 代表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團 員	宣 錫 文 SUN Suk Moon	韓國SMC空壓(株) 代表理事
團 員	孫 雄 峰 SOHN Woong Bong	(株)MJC 代表理事
團 員	宋 圭 政 SONG Kyu Jeong	(株)Winsteel 代表理事
團 員	宋 錫 俊 SONG Seok Joon	(株)巨養 代表理事
團 員	梁 兌 烈 YANG Tae Yul	金井工業(株) 代表理事
團 員	李 光 LEE Gwang	大永產業開發(株) 社長
團 員	李 榮 澤 James LEE	World Entertainment 代表
團 員	李 正 熹 LEE Jeung Hee	(株)LAFIEN 代表理事
團 員	張 完 洙 CHANG Wan Soo	(株)CROWN ENGINEERING 代表理事
團 員	鄭 秀 溶 CHUNG Soo Yong	(株)BINGGRAE 代表理事 社長
團 員	鄭 貞 明 CHUNG Jin Myung	眞明Energy(株) CEO
團 員	鄭 勳 白 CHUNG Hoon Baek	(株)Dubio 代表理事
團 員	池 泰 燮 JI Tae Sup	泰寧物產 代表
團 員	河 大 泓 HA Dae Hong	韓國NASH-ELMO(有) 代表理事
團 員	河 奉 根 HA Bong Keun	三一ENG 社長
團 員	卞 千 燮 BYEON Cheon Seop	(株)Winsteel 副社長
團 員	尹 春 滿 YOON Choon Man	東田開發(株) 代表理事 副社長
團 員	李 洙 喆 LEE Soo Chul	三星物產(株) 副社長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團 員	崔 弘 CHOI Hong	啓星製紙(株) 副社長
團 員	許 采 九 HEO Chae Goo	(株)BH World 代表理事 副社長
團 員	高 汶 壽 KO Moon Soo	韓國自動車工業協同組合 專務理事
團 員	金 敬 泰 KIM Kyung Tae	泰昌鐵鋼(株) 專務
團 員	朴 禹 建 PARK Woo Keon	韓國生產性本部 專務理事
團 員	嚴 成 龍 UM Sung Yong	(株)曉星 專務理事
團 員	李 承 鐸 LEE Seung Taek	世向產業(株) 專務理事
團 員	全 賢 哲 JOHN Hyun Chul	(社)韓國中堅企業聯合會 專務
團 員	許 南 整 HUH Nam Jung	(社)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財)韓日產業技術協力財團 專務理事
團 員	尹 鍾 彦 YOON Jong On	三星經濟研究所 常務·技術產業室長
團 員	李 伯 淳 LEE Baek Soon	新韓金融持株會社 常務
團 員	李 栢 儀 LEE Baeg Euy	(株)三養社 常務
團 員	金 都 亨 KIM Do Hyung	啓明大學校 國際學大學 教授
團 員	安 忠 榮 AHN Choong Yong	中央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團 員	李 鐘 允 RHEE Chong Yun	韓國外國語大學校 貿易學科 教授
團 員	程 勳 CHUNG Hoon	仁川大學校 教授
團 員	金 甲 秀 KIM Karp Soo	韓國產業技術財團 首席專門委員
團 員	李 佑 光 LEE Woo Kwang	三星經濟研究所 首席研究員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團 員	朴 鐘 萬 PARK Chong Man	(社)韓國貿易協會 經營支援本部長
團 員	權 寧 旭 KWON Young Wook	(社)韓國貿易協會 貿易振興本部長
團 員	朴 良 燮 PARK Yang Seop	(社)韓國貿易協會 企劃調整室長
團 員	朴 暎 宣 PARK Yeong Seon	(株)仁亞CORPORATION 理事
團 員	龍 煥 奭 YONG Hwan Suk	南德物產(株) 理事
團 員	崔 海 淑 CHOI Hai Sook	(株)LITTA產業 監事
團 員	柳 奉 雨 RYU Bong Woo	(社)韓日經濟協會 事務局長
團 員	金 善 鶴 KIM Sun Hak	全羅南道投資誘致團 Team長
隨 行 員	黃 碩 基 HWANG Sug Ki	共生國際特許情報(株) 國際部 理事
隨 行 員	李 龍 浩 LEE Yong Ho	三星物產(株) 企劃Team 部長
隨 行 員	李 亨 哲 LEE Hyung Chul	LG化學(株) 部長
隨 行 員	張 星 玉 CHANG Sung Ok	(株)曉星 部長
隨 行 員	池 炳 午 JI Byung Oh	三煥企業(株) 部長
隨 行 員	金 京 萬 KIM Kyung Man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國際通商Team長
隨 行 員	金 鍾 憲 KIM Jong Hun	安山商工會議所 Team長
隨 行 員	黃 恩 榮 HWANG Eun Young	韓國經營者總協會 國際Team長
隨 行 員	吉 珖 錫 KIL Gwang Suk	大韓製糖(株) 次長
隨 行 員	金 敬 勳 KIM Kyeong Hoon	KORSTEC(株) 次長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隨 行 員	朴 然 雨 PARK Youn Woo	(社)韓國貿易協會 通商協力Team 次長
隨 行 員	劉 圭 逸 YOO Kyu Il	(株)曉星 次長
隨 行 員	玉 泳 漢 OK Young Han	(株)CROWN ENGINEERING 次長
隨 行 員	高 鍾 燮 KO Jong Seob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國際通商Team 課長
隨 行 員	朴 東 奎 PARK Dong Kyu	(株)SINDORICOH 課長
隨 行 員	尹 龍 YOON Yong	(社)韓國貿易協會 秘書室 課長
隨 行 員	丁 鳳 鎬 CHUNG Bong Ho	全國經濟人聯合會 國際協力室 課長
隨 行 員	鄭 銀 靖 CHUNG Eun Jeong	(株)曉星 課長
隨 行 員	崔 秀 慶 CHOI Su Kyung	(株)三養社 課長
隨 行 員	高 善 英 KO Sun Young	(株)東宇Control 貿易部 代理
隨 行 員	金 泰 潤 KIM Tae Yoon	(株)BINGGRAE 代理
隨 行 員	林 延 柱 LIM Yoen Ju	(株)曉星 代理
隨 行 員	姜 有 無 KANG Yoo Mu	大韓商工會議所 社員
隨 行 員	徐 炳 龍 SUH Byung Yong	(株)POSCO 秘書
事 務 局	金 汝 種 KIM Yeo Jong	(財)韓日產業技術協力財團 Team長
事 務 局	宋 成 基 SONG Sung Gi	(財)韓日產業技術協力財團 Team長
事 務 局	趙 德 卯 CHO Duck Myo	(社)韓日經濟協會 次長
事 務 局	金 正 鎬 KIM Jung Ho	(社)韓日經濟協會 次長

區 分	姓 名	團體·會社名 / 職位
事 務 局	金 彰 彬 KIM Chang Bin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次長
事 務 局	沈 揆 榛 SHIM Kyu Jin	(社)韓日經濟協會 課長
事 務 局	劉 崇 勳 YOO Sung Hun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課長
事 務 局	李 由 美 LEE Yoo Mi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社員

團 員	113名
隨 行 員	24名
事 務 局	8名
合 計	145名

## 2. 日本側 代表團 名單

(敬称略・順不同)

団 長	瀬 戸 雄 三 SETO YUZO	(社)日韓経済協会 会長 アサヒビール(株) 相談役
副 団 長	渡 里 杉一郎 WATARI SUGIICHIRO	(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株)東芝 相談役
副 団 長	秋 山 富 一 AKIYAMA TOMIICHI	(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住友商事(株) 名誉顧問
副 団 長 分科会発表者	鮫 島 章 男 SAMESHIMA FUMIO	(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太平洋セメント(株) 代表取締役社長
副 団 長 分科会発表者	石 原 進 ISHIHARA SUSUMU	(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九州旅客鉄道(株) 代表取締役社長
副 団 長 全体会議共同議長	麻 生 泰 ASO YUTAKA	(社)日韓経済協会 副会長 麻生ラファージュセメント(株) 社長
顧 問 基調講演者	奥 田 碩 OKUDA HIROSHI	(社)日韓経済協会 顧問 (社)日本経済団体連合会 会長
相 談 役	藤 村 正 哉 FUJIMURA MASAYA	(社)日韓経済協会 相談役 三菱マテリアル(株) 相談役
相 談 役	今 井 敬 IMAI TAKASHI	(社)日韓経済協会 相談役 新日本製鐵(株)相談役名誉会長
来 賓	高 野 紀 元 TAKANO TOSHIYUKI	在大韓民国日本国特命全權大使
特別参加 全体会議発表者	寺 田 輝 介 TERADA TERUSUKE	(財)フォーリン・プレスセンター 理事長 元在大韓民国特命全權大使
団 員	渋 川 賢 一 SHIBUKAWA KENICHI	旭化成(株) 取締役兼常務執行役員
団 員	杉 山 広 明 SUGIYAMA HIROAKI	旭化成ケミカルズ(株) 経営総括室副部長
団 員	御 影 佳 孝 MIKAGE YOSHITAKA	アサヒビール(株) 経営企画部課長

団員	南 雲 智 子 NAGUMO TOMOKO	アサヒビール(株) 秘書室主任
団員	渡 辺 精 一 WATANABE SEIICHI	(株)ロッテアサヒ酒類 マーケティング営業担当部長
団員	橋 本 謙 治 HASHIMOTO KENJI	石川島播磨重工業(株) 営業総括本部顧問
団員	古 川 和 雄 FURUKAWA KAZUO	石川島播磨重工業(株) 海外営業戦略部渉外グループ部長
団員	清 水 孝 郎 SHIMIZU TAKAO	石川島播磨重工業(株) ソウル事務所長
団員	松 本 明 久 MATSUMOTO AKIHISA	伊藤忠商事(株) 常務執行役員
団員	岩 成 俊 彦 IWANARI TOSHIHIKO	韓国伊藤忠(株) 代表理事社長
団員	福 井 啓 二 FUKUI KEIJI	韓国ウシオ(株) 代表理事副社長
団員	高 星 清 TAKABOSHI KIYOSHI	(株)エスワン 代表理事社長
団員	上 田 勝 弘 UEDA KATSUHIRO	大垣精工(株) 代表取締役社長
団員	中 村 隆 男 NAKAMURA TAKAO	川崎重工業(株) 営業推進部参与
団員	平 井 彰 HIRAI AKIRA	(社)九州・山口経済連合会 企画広報部長 兼 国際部長
団員	小野田 照 義 ONODA TERUYOSHI	九州旅客鉄道(株) 経営企画部企画国際室長
団員	長 崎 剛 NAGASAKI TSUYOSHI	九州旅客鉄道(株) 経営企画部副課長
団員	笠 原 剛 KASAHARA TAKESHI	九州旅客鉄道(株) 経営企画部主席
団員	青 木 定 雄 AOKI SADAÔ	近畿産業信用組合 会長
団員	中 野 一 龍 NAKANO KAZURYU	近畿産業信用組合 秘書室室長
団員	永 井 卓 NAGAI TAKASHI	(社)経済同友会 政策調査部国際事業担当部長

団員	中山 祐二 NAKAYAMA YUJI	住友化学㈱ 東友ファインケム㈱代表理事 副社長
団員	藤田 徹 FUJITA TORU	㈱住友商事総合研究所 情報調査部アジア担当部長
団員	田中 克彦 TANAKA KATSUHIKO	韓国住友商事㈱ 社長
団員	黒田 和男 KURODA KAZUO	新日本製鐵㈱ 総務部秘書グループマネージャー
団員	進 和久 SHIN KAZUHISA	全日本空輸㈱ 特別顧問
団員	堀口 睦史 HORIGUCHI MUTSUHISHI	全日本空輸㈱ ANA総合研究所 主席部員
団員	清田 瞭 KIYOTA AKIRA	㈱大和証券グループ本社 取締役副会長
団員	山室 潤 YAMAMURO JUN	㈱大和証券グループ本社 秘書室課長代理
団員	韓 基 元 HAN KI WON	大和証券SMB C㈱ソウル支店 代表
団員	江田 哲郎 EDA TETSURO	大和証券SMB C㈱ソウル支店 副支店長
団員	舟久保 陽一 FUNAKUBO YOICHI	太平洋セメント㈱ 秘書部長
団員	森島 進 MORISHIMA SUSUMU	月島機械㈱ 執行役員
団員	早乙女 智紀 SOTOME TOMONORI	月島機械㈱ 海外営業部課長代理
団員	和地 孝 WACHI TAKASHI	テルモ㈱ 代表取締役会長兼最高経営責任者
団員	依田 紀男 YODA NORIO	韓国テルモ㈱ 取締役代表理事
団員	永利 久志 NAGATOSHI HISASHI	㈱東急エージェンシー 取締役会長
団員	松田 毅 MATSUDA TSUYOSHI	㈱東京三菱銀行 韓国総支配人兼ソウル支店長
団員	門野 真一郎 KADONO SHINICHIRO	㈱東芝 社会・産業部担当部長



団 員	小 木 曾 一 郎 OGISO ICHIRO	韓国トヨタ自動車㈱ 社長
団 員 分科会コーディネーター	飯 島 英 胤 IIJIMA HIDETANE	東レ㈱ 特別顧問
団 員	三 本 木 伸 一 SANBONGI SHINICHI	東レ㈱ 東レ韓国代表
団 員	成 田 洋 助 NARITA YOSUKE	(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専務理事・事務局長
団 員	山 崎 弘 YAMAZAKI HIROSHI	(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団 常務理事・管理部長
団 員	住 吉 邦 夫 SUMIYOSHI KUNIO	日本貿易振興機構 理事
団 員	中 村 富 安 NAKAMURA TOMIYASU	日本貿易振興機構 ソウルセンター所長
団 員	清 水 新一郎 SHIMIZU SHINICHIRO	㈱日本航空 政策業務室業務部課長
団 員	戸 井 正 明 TOI MASAACKI	㈱日本航空インターナショナル 韓国地区支店・支店長
団 員	小 原 敏 人 KOHARA TOSHIHITO	日本ガイシ㈱ 相談役
団 員	和 田 龍 幸 WADA RYUKO	(社)日本経済団体連合会 事務総長
団 員	青 山 周 AOYAMA MEGURI	(社)日本経済団体連合会 国際協力本部アジアグループ副長
団 員	篠 原 徹 SHINOHARA TORU	日本商工会議所 常務理事
団 員	岩 間 信 弥 IWAMA SHINYA	日本商工会議所 ソウル事務所所長
団 員	秋 山 守 由 AKIYAMA MORIYOSHI	㈱日本能率協会コンサルティング 代表取締役社長
団 員	秋 本 武 則 AKIMOTO TAKENORI	㈱日本能率協会コンサルティング 取締役
団 員	西 野 範 彦 NISHINO NORIHIKO	野村證券㈱ ソウル支店長
団 員	米 山 晋 YONEYAMA SUSUMU	㈱野村総合研究所 ソウル支店長

団 員	泊 三 夫 TOMARI MITSUO	(株)博報堂 第3広告カンパニー執行役員
団 員	高 杉 暢 也 TAKASUGI NOBUYA	韓国富士ゼロックス(株) 最高顧問 Seoul Japan Club 理事長
団 員	村 上 淳 MURAKAMI JUN	北海道経済連合会 事務局次長
団 員	川 本 隆 英 KAWAMOTO TAKAHIDE	北海道電力(株) 事業推進部地域経済グループ
団 員 分科会コーディネーター	清 水 紘一郎 SHIMIZU KOICHIRO	(株)ホテルオークラ 代表取締役副社長
団 員	菅 原 和 夫 SUGAWARA KAZUO	韓国丸紅(株) 代表理事社長
団 員	榊 原 俊 資 SAKAKIBARA SHUNSUKE	韓国丸紅(株) 前代表理事社長
団 員	岩 見 博 之 IWAMI HIROYUKI	(株)三井住友銀行 ソウル支店支店長
団 員	尾 崎 栄 治 OZAKI EIJI	韓国三井物産(株) 代表理事社長
団 員	櫻 井 健 司 SAKURAI TAKESHI	三菱商事(株) 顧問
団 員	高 島 正 之 TAKASHIMA MASAYUKI	三菱商事(株) 取締役副社長執行役員
団 員	矢 野 雅 英 YANO MASAHIDE	三菱商事(株)執行役員 繊維本部長
団 員	金 森 廣 KANAMORI HIROSHI	韓国三菱商事(株) 社長
団 員	森 原 康 夫 MORIHARA YASUO	韓国三菱商事(株) 経営支援本部課長代理
団 員	高 山 晴 雄 TAKAYAMA HARUO	三菱電機(株) 韓国支店支店長
団 員	坂 本 和 一 SAKAMOTO KAZUICHI	学校法人立命館 名誉教授
団 員	林 堅太郎 HAYASHI KENTARO	立命館アジア太平洋大学 副学長
団 員	中 山 雅 博 NAKAYAMA MASAHIRO	立命館大学 理事長室課長 / 東京オフィス所長

団 員	平 木 健二郎 HIRAKI KENJIRO	(社)日韓経済協会 専務理事
団 員	下 出 道 雄 SHIMODE MICHIO	(社)日韓経済協会 常務理事・調査部長
特別参加	山 本 栄 二 YAMAMOTO EIJI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公使
特別参加	吾 郷 進 平 AGO SHIMPEI	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一等書記官
オブザーバー	伊 藤 信 一 ITO SHINICHI	(株)フジタ ソウル支店支店長
オブザーバー	鈴 木 忠 SUZUKI TADASHI	双龍洋灰工業(株) 共同代表理事社長
オブザーバー	洪 性 坤 HONG SUNG GON	(株)アクアテック・アジア 代表理事
オブザーバー	畑 口 隆 昭 HATAGUCHI TAKAAKI	エコトロンクス(株) 代表取締役会長
オブザーバー	小 林 正 元 KOBAYASHI MASAMOTO	ロッテキャピタル(株) 代表理事
オブザーバー	高 橋 徹 TAKAHASHI TORU	北海道経済部商業経済交流課 参事
オブザーバー	荒 井 功 ARAI ISAO	札幌市観光文化局 観光コンベンション部シティPR担当課長
事務局	秋 山 迪 AKIYAMA SUSUMU	(社)日韓経済協会 専務理事付
事務局	保 坂 昭 寿 HOSAKA AKITOSHI	(社)日韓経済協会 調査部主任調査役
事務局	初瀬川 茂 HATSUSEGAWA SHIGERU	(社)日韓経済協会 業務部部长
事務局	野 口 元 久 NOGUCHI MOTOHISA	(社)日韓経済協会 業務部部长
事務局	古 川 哲 也 FURUKAWA TETSUYA	(社)日韓経済協会 総務部長
事務局	伊 藤 美千代 ITO MICHIO	(社)日韓経済協会 総務部員

団員・来賓	87名
特別参加	3名
オブザーバー	7名
事務局	6名
合 計	103名

## VI. 議 事 錄

### 1. 開 會 式

司會[許南整 (社)韓口  
經濟協會 專務理事,  
以下同一] : 일본측  
단장단님들, 단상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  
니다. 야마모토공사  
님, 올라가 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회의  
의 진행을 맡을 한일경제협회 전무이사  
허남정입니다. 먼저, 한일국교정상화 40주  
년과 한일우정의 해를 맞이해서 본 회의  
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  
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행사에 적극  
적으로 참여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양  
측 단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  
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서 주  
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께 단상에 계신 내빈 여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를 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측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측 단장을 맡  
고 계신 세토 유조(瀬戸 雄三) 한일경제  
협회 회장님이십니다. 다카노 도시유키(高  
野 紀元) 재대한민국일본국 특명전권대사  
님이십니다. 야마모토 에이지(山本 榮二)  
재대한민국일본대사관 경제공사이십니다.  
오쿠다 히로시(奥田 碩) 일본경제단체연

합회 회장님이십니다. 이어서 이마이 다  
카시(今井 敬) 신일본제철 상담역 명예회  
장이십니다. 후지무라 마사야(藤村 正哉)  
일한경제협회 상담역이십니다.

다음에는 한국측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석래 한국측 단장  
이신 한일경제협회 회장님이십니다. 다음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십니  
다. 다음으로 진 국무총리이신 한일경제  
협회 박태준 명예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이어서 한일경제협회 김상하 명  
예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  
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아태통상  
심의관 전비호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세토 유  
조 단장님을 비롯한 일본측 단장단의 주  
요정부기관 예방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예방은 노무  
현 대통령의 유림순방으로 예방이 물리적  
으로 실현되지 못했으며, 대신 이해찬 국  
무총리 예방이 내일 17시에 예정되어 있  
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일본측 단장단  
8명은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의 안  
내로 4월 13일 김원기 국회의장님과 이태  
식 외교통상부 차관님 예방을 시작으로  
오늘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  
관님, 산업자원부 조환익 차관님을 각각  
예방하였습니다. 금번 예방을 통해서 분  
한일·일한경제인회의가 한일 양국간에 개  
최되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민간경제  
인회의임을 강조하면서 한일간 새로운 협  
력관계 모색을 위해 진솔한 대화와 활발  
한 교류의 장이 되어 줄 것을 당부 받은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장 선출과 의제 채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인회의의 관례에 따라서 주최국측 단장께서 정의장으로, 방문국측 단장께서 부의장으로 취임하신 것과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제가 채택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1) 團長人事

司會 : 그럼 먼저 식순에 의해서 양국 단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한국측 대표단 단장이신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 趙 錫 來 韓國側 代表團 團長



먼저 이 곳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7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주신 세토 유조 단장님, 오쿠다 히로시 경단련 회장님을 비롯한 일본대표단 여러분을 환영하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신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님, 다카노 도시유키 일본국특명전권대사님을 비롯한 귀빈, 그리고 우리 한국 대표단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년 2월부터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맡은 조석래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합니다만,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미력하나마 저의 모든 힘을 기울여 소임을 다하

고자 하오니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한일수교 40주년을 맞는 해로서 한일우정의 해로 지정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0년 동안 우리 한일 두 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양국간의 우호증진과 경제협력을 통하여 공동번영을 이루어 왔습니다. 문화적 교류도 하루가 다르게 활성화되어 일본에서는 온사마와 보아가 커다란 인기를 얻는 등 한류가 널리 퍼지는 한편,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어 이제는 일상생활 속까지도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양국 대표단 여러분,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긴밀한 경제협력을 통하여 함께 번영하기 위해서는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아 전체가 한꺼번에 경제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을 공유하고 발전단계가 앞선 한국과 일본이 먼저 모범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시장을 통합함으로써 아시아통합의 초석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모델로, 다른 나라들이 여기에 호응하여 동참하게 되면 아시아 전체를 엮어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가까운 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은 시장을 열고, 무역과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은 FTA체결을 통해 촉진될 것입니다.

다행히 양국 정부도 한일 FTA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고, 올해 안에 체결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낸 협상은 진전을 크게 보지 못하고 있어 연내 체결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정부간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인들이 측면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일·일한경제인회의는 지난 36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열려 상호간 우의를 다지고 굳건한 신뢰와 협력관계를 만들어 내는 데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한일관계를 보면 '한일우정의 해'라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 한일업무를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간 자칫 과거에 사로잡혀 너무 감성적으로 문제를 대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실제 속내 '흔네'를 말하지 않고 표면적인 이야기만을 해 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틀에서 벗어나 참다운 성과를 거두려면 냉철한 이성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옳고 그른 것을 밝히면서 흥금을 털어놓고 본심을 스스럼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보와 희생을 감수하고 상호에 대한 진정한 배려를 보일 때 두터운 신뢰가 쌓이고 좋은 이웃이 될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한일간의 갈등은 새롭고 성숙한 한일관계로 나아가는 데 지나가야 할 하나의 길목이라고 생각하며 협력과 신뢰관계를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연대와 향후 양국 기업간 협력방안'이라는 주제 하에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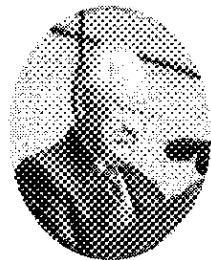
업과 문화 양면에서의 협력이 안전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과거 협력의 성공사례를 통해 향후 한일양국이 win-win 하는 새로운 협력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양국 대표단 여러분께서도 진지하고 활발한 토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보람 있는 성과를 얻고, 우리 서로의 우의를 한층 더 깊게 할 수 있으면 참으로 기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길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司會 : 조석래 단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일본 대표단 단장이신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회장님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瀬戸 雄三

日本側 代表團 團長



일한경제협회 회장 세토 유조라고 합니다. 제37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개막식에

즈음하여 일본측을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박태준 명예회장님, 김상하 명예회장님을 비롯하여 한국 대표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한덕수 부총리님을 비롯하여 양국의 내빈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 2월 17일까지 한일경제협

회의 회장님으로서 오랫동안 양국의 경제 교류에 진력을 다하신 김상하 명예회장님께 일한경제협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또한 조석래 신 회장님께도 앞으로 가일층의 협조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작년 4월에 나고야에서 개최된 한일·일한경제인회의, 그리고 작년 11월에 경주에서 개최된 한일·일한산업무역회의, 이 두 회의 모두 양국으로부터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셔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회의 이상으로 대단히 실질적인 논의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양국경제인들이 더더욱 공통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한일간의 경제연대의 가일층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원활화는 당연하다는 인식하에 광범위한 경제통합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양국의 공존·공영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경제연대를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차원의 연대를 목표로 삼는 한일FTA의 중요성이 충분히 이해된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양국기업의 다방면에 걸친 상호보안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젊은 세대의 풀뿌리 교류를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양국은 상호의 투자환경의 구축, 무역의 확대균형, 그리고 중층적인 사람과 문화의 교류증대를 통해서 다면적이고 다각적인,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공통인식을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한일 양국은

복잡하고 다양한 국제환경 속에서 서로가 더욱 큰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일·일한 양국은 2002년 이후 스포츠와 문화의 공동개최, 그리고 교류로 인해서 과거에 유례를 볼 수 없는 정도의 우호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양국 국민의 상호방문은 작년 연간 4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작년의 양국간의 무역총액은 약 680억 달러를 기록했고, 일본기업의 對韓투자는 약 23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일·일한 국교정상화 40주년'에 해당하는 대단히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양국은 '한일·일한 우정의 해 2005'로 지정하여 폭넓은 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양국관계는 모처럼의 선린우호관계 환경에도 불구하고, 역사 사실 인식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따라 반드시 좋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 대단히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한일·일한 양국은 동아시아의 선진 2개국으로서 경제관계는 물론 다양한 국면에서 상호 보완해야 할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것은 옳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서로 상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쌓은 우호의 싹을 뽑지 않고 이것을 크게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한경제협회는 한일경제협회의 협력을 받아 '양국의 고교생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 차례 '한일·일한 고교생교류캠프

포'를 실시하고, 양측에서 함께 400명의 고등학생이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한 고등학생들 전원으로부터 아주 훌륭한 소감이 있었습니다.

올해 2월에 참가한 한 한국 고등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분을 여기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특정 개인이라든지, 특정 집단을 국가의 전체로 해석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교류캠프에 참여해서 많은 친구들과 만나 나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고, 사람을 만날 때 편견을 갖지 않고 그 사람 개인으로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감상문이었습니다.

이 고등학생이 쓴 감상문에서 저희들은 많은 사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고, 편견을 갖지 않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서로 솔직한 의견교환을 하고, 더욱 좋은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작년의 경제인회의의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구축은 말이나 또 그러한 주제, 표제의 단계는 이미 졸업을 했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이것을 옮겨야 하는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서 양국관계의 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려운 국면에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때일수록 서로 지혜를 모아 양국이 서로 내일 미래를 내다 본 대응·대책을 새움으로써 반드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양국경제인이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

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의 제한된 시간이긴 합니다만, 다양한 장면에서의 새로운 교류가 시작되고, 한 사람이라도 많은 친구를 얻어서 작년이상으로 양국에게 있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회의가 되도록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司會 : 네. 세토 유조 단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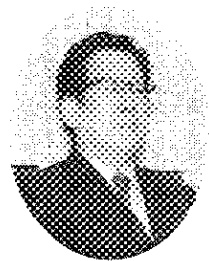
## (2) 兩國頂上 祝賀메시지(代讀)

司會 : 이어서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 및 ‘한일우정의 해’를 축하하는 뜻에서 양국정상으로부터 축하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축하메시지를 외교통상부의 전비호 아태통상심의관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全 飛 虎

外交通商部 通商交渉  
本部 亞太通商審議官

존경하는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그리고 양국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제37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를 서울에서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방한하신 일본측 대표단 여러분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만, 마침 저의 해외방문 기간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축하의 메시지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수교 이래 40년간 한일관계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의 공유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 협력관계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한국내 일본대중문화 확산과 일본내 한류현상 등으로 양국 국민적 차원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양국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올 ‘한일우정의 해’를 계기로 양국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양국관계에 부담이 되는 과거사 문제에 슬기로운 해법을 도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강화를 희망합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일 양국관계가 건전하고 올바른 협력관계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적 차원의 교류, 특히 경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한일 관계의 탄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양국 경제계의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그간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해 주신 데 대해 마음으로부터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일·일한경제협회가 양국의 중소기업간 교류와 청소년 교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더욱 확대·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양국 경제계의 최대 관심사안의 하나인 한일FTA 협상이 현재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 가운데 일본의 농수산물 분야의 자유화 수준이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양국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확인한 바대로 포괄적인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대원칙 하에 양측이 노력해 나가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일FTA는 장차 동북아를 포괄하는 지역협력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 2의 경제대국으로서 일본이 그에 걸 맞는 역할을 발휘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과 일본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기를 희망하며, 이번 한일·일한경제인회의가 양국간 협력을 더욱 폭넓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會 : 전비호 심의관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대신의 축하메시지를 주한일본대사관의 야마모토 에이지 경제공사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까.

山本 榮二  
在大韓民國日本國  
大使館 經濟公使



그럼 고이즈미 총리의 축하메시지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및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그리고 한일 양국 경제계의 지도자 여러분,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40주년에 즈음하는 기념할 만한 해에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하신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하 드립니다.

국교정상화로부터 불과 4년 후인 1969년 이후 매년 거르지 않고 개최되어 온

이 회의는 그야말로 양국 경제관계사를 비추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의 양국 경제관계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1965년에는 약 800억엔이었던 양국간의 무역 총액은 2004년에는 약 7조엔으로 약 90배 확대되어 왔습니다. 또한 연간 1만명에 불과했던 일본과 한국간의 인적왕래도 지금은 하루 1만명이 교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양국 경제관계 발전의 역군이셨던 한일 양국 경제계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서 지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본정부로서도 양국간의 경제관계 긴밀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의 성과인 한일투자협정, 한일세관상호지원협정, 그리고 한일 사회보장협정이 서명됨으로써 양국간 무역 및 투자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현재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일경제연계협정이 체결되면 명실 공히 양국은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게 되어 동아시아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확인하셨던 목표대로 2005년 내에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 한일·일한경제인회의가 민간차원에서 협정체결을 위한 기운을 고양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국정부는 올해를 ‘한일우정의 해 2005’로 명명하고 양국간의 폭넓은 인적 교류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특히 양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의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한일우정의 해 2005’를 양국 경제계의 협력을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본 회의를 통하여 한국과 일본, 양국의 경제가 더욱 발전하고, 나아가서 양국 경제인의 교류가 가일층 촉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005년 4월 14일 일본국 내각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이상입니다.

司會 : 야마모토 에이지 경제공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를 맞이해서 축하와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신 노무현 대통령님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 (3) 來賓祝辭

司會 : 이어서 내빈축사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정부를 대표해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님께서 축하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韓 惠 洙  
副總理 兼  
財政經濟部 長官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

장님, 박태준 전 총리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일 양국의 경제인과 내빈 여러분, 오늘 이처럼 저명한 양국의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지난 1969년 제1회 회의가 개최된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양국 기업인간의 가장 중요한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올해 본과회의 주제로 ‘한일 기업간 경제연대와 협력방안’을 채택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회의를 통하여 양국 산업협력의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경제인 여러분, 40년 전 1년에 만명에 불과했던 양국간 왕래가 이제는 하루 1만여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965년 양국 국교정상화 당시 연간 2억불에 불과하던 양국간 교역 규모가 지난해에는 300배 이상 증가한 670억불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의 제 3대 교역국이며, 2대 투자국입니다. 한국 역시 일본의 3대 교역 파트너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양국간 경제관계에 있어 새로운 전기가 될 한일FTA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열리는 올해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는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은 이제 경제·정치·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은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설정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할 것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양국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기술이전 및 투자증가 등 양국 기업간 교류협력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양국이 그 간의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성숙한 자세로 임한다면 양국간 협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 발전할 수 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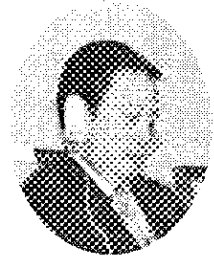
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지난 4월 9일 다니카기 사다카츠 일본 재무상과 본인은 한일FTA 협상의 활성화와 부품 소재분야 협력강화를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역시 양국간 경제교류가 지속됨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경제인회의가 한 차원 높은 양국 관계를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제37회 한일경제인회의의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양국 경제의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습 :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카노 도시유키 주대한민국일본국 특명전권대사께서 일본측 정부를 대표해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高野 紀元  
在大韓民國日本國  
特命全權大使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을 비롯한 한일·일한경제인회의의 양국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이곳 서울에서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서 제37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립니다.

또한 오늘 특별공로상을 수상하시는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님, 후지무라 마사야 일한경제협회 상담역께서는 두 분의 한일·일한 경제관계의 강화를 위해 오랫동안

동안 지대한 노고를 아끼지 않아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경의를 표하고 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회의의 개최를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올해는 '한일·일한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이하는 전환점인 해입니다. 한일 양국은 이 전환점인 해를 '한일·일한 우정의 해'로 지정하고 문화 분야에서의 다양한 교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적왕래라는 점에서도 작년 400만명을 초월한 양국간의 인적이동은 올해는 연간 500만명을 목표로 삼아서 아이치 엑스포, 부제는 '사랑·지구 박람회'인데요, 이 기간 중에 '단기 방일비자 면제' 등 양국 정부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도 2005년을 전환점으로 삼기 위해서 한일·일한 양국 정부간에서 올해 연내의 체결 합의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일·일한경제인 회의에서도 '경제연대와 향후의 양국 기업간의 협력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논의가 있을 것이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양국간의 경제연대를 위한 경제계 여러분들로부터의 솔직한 지도와 조언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근래에 한일·일한 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 어려운 과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와 역사문제에 대해서 과거를 직시하고, 반성해야 할 것은 반성하면서 화해를 위한 관계발전을 추진한다는 일본정부의 결의에 변화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서로의 마음의 웅어리를 제거하고, 이웃으로서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지난 번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한일 외무부장관회의'에 있어서도 향후의 서틀정상회담의 외교일정, 경제·문화면의 교류 등은 예정대로 실시하고, 북한문제, 동아시아공동체 등의 양국 공통의 과제, 그리고 공통의 이익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생각에 서로 일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이번에 한국과 일본의 경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솔직한 의견교환과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뜻 깊은 것이며, 그 성과에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도를 바라며, 한일 양국의 경제관계가 더욱 굳건하고, 또 더욱 더 확대될 것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37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의 큰 성과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건승하심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司會 : 네. 다카노 도시유키 대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 (4) 特別功勞賞 施賞式 및 受賞者 人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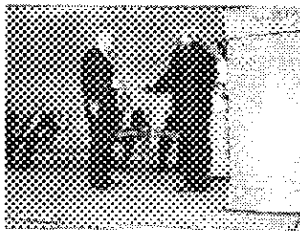
司會 : 다음은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과 '한일우정의 해'를 맞이하여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과 양 협회의 발전을 위해 공헌해 주신 박태준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님과 일본의 후지무라 마사야 전 일한경제협회 회장님께 특별공로상을 시상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 먼저 수상하실 박태준 명예회장님께서 1947년에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수료하시고, 미국, 영국, 캐나다, 러시아 등

각국의 명문대학교에서 명예공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1968년부터 1992년까지 포항종합제철 대표이사 사장과 회장으로 활동하셨고, 1981년 한일경제협회를 설립, 초대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국회의 한일의원연맹회장을 비롯하여 제2대 자민련총재, 그리고 제32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시면서 경제와 외교 등 많은 분야에 있어서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과 경제교류·협력강화에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면 박태준 명예회장님께 세토 유조 일한경제협회 회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장을 전달해 주세요.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사단법인  
한일경제협  
회 명예회장  
박태준, 귀하  
는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

의 초대회장으로서 협회설립과 발전에 크게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선구자로서 한일 양국 경제인의 교류촉진에 많은 힘을 기울이셨으며, 또한 양국간의 산업기술 협력강화를 위해 재단을 설립하는 등 한일간의 우호증진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그 공적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여기에 이 기념패를 드립니다. 2005년 4월 14일 사단법인 일한경제협회 회장 세토 유조,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 회장 조석래』

그럼, 박태준 명예회장님께 수상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朴 泰 俊  
(社)韓日經濟協會  
名譽會長



뜻밖에 특별공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우정과 정성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현재 한일 양국정부의 관계는 정치·외교적으로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시기에 오늘 서울에서 제37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가 예정대로 개막된 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37년 동안 한일경제협회는 양국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우호증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양국 선배 경제인들이 남긴 공로이며, 그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여러분의 업적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미력이나마 저의 역할도 보태졌을 것이라는 추억을 해 봅니다.

물론 어려웠던 고비도 떠오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역경이 있어야 보람도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한일 양국 경제인들의 건승과 한일 양 경제협회의 융성을 기원하면서, 여러분의 활약이 양국의 경제발전과 우호증진에 좋은 영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司會 :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박태준 명예회장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부총리님께서 오

늘 바쁘신 가운데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 일정이 계셔서 지금 자리를 뜨시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부장관님께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수상하실 후지무라 마사야 일한경제협회 상담역께서는 1925년 한국에서 출생하시고, 경성중앙, 지금의 서울고등학교입니다만, 3학년 재학 중에 일본으로 귀국하셔서 동경대학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1948년 미쓰비시 광업, 현 미쓰비시 MATERIAL에 입사, 1995년에 취체역 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일한경제협회 제5대 회장과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제2대 이사를 맡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일한문화교류기금 회장으로서 활동하시면서 한일 경제·문화 교류증진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후지무라 마사야 상담역님께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로상 사단법인 일한경제협회 상담역 후지무라 마사야 귀하,

귀하께서는 사단법인 일한경제협회 제5대 회장과 재단법인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제2대 이사장으로서 일한 양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기술협력에 크게 공헌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진정한 한국의 벗으로서 기여하신 공로가 크므로 그 공적에 감사를 표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05년 4월 14일 사단법인 일한경제협회 회장 조

석래, 사단법인 일한경제협회 회장 세토 유조』

네, 다시 한번 후지무라 회장님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회장님께서 수상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藤村 正哉  
(社)日韓經濟協會  
相談役



오늘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영예로운 특별공로상을 받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10여 년간 한일경제교류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미력하나마 한결같이 한일경제관계의 원활한 진전을 도모하고,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관계의 유지, 그리고 증진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이번 특별공로상 수상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으며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공로상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받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일·일한경제협회를 비롯하여 한일·일한경제인회의에 관계하시는 여러분에게 수여된 것으로 저는 여러분을 대표해서 수상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날의 한일 양국의 어려운 국면에 대해 박태준 명예회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때일수록 상호이해와 협력의 의지를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상에 담겨진 뜻을 마음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한일·일한 경제교류 발전에 미력하나마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그 기반은 서로간의 신뢰와 존경, 그리고 우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마디 여러분께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한일우정의 해’에 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양국간의 우정이란 무엇일까?’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진정한 우정이란 것은 서로에 대한 상호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진정한 우정이 그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저는 양국의 경제인 회의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점을 이 자리에서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1998년 마침 한국이 IMF 경제위기를 맞이했을 때였습니다. 때마침 3월이었습니다. 제30회 양국의 경제인회의를 일본의 미야자키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저희는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과연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한국의 상황에서 이 회의에 여러분이 출석해 주실 것인가 하는 점을 크게 걱정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러분께도 많은 의논을 드렸습니다. 그 때 저는 한국에 계신 분들 중 한 분께 ‘후지무라씨, 이럴 때야말로 역시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서로가 솔직히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호증진의 기본입니다. 후지무라씨는 그런 점을 걱정하셨군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기쁨과 함께 또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정은 1998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이 회의도 제37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측의 선배 여러분들, 박태준 대 선배, 명예

회장이십니다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있어서 김포공항에 올 때마다 공항에 직접 마중을 나오셔서 절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번에 김상하 회장이 명예회장이 되시고, 매우 훌륭하신 조석래 회장이 그 뒤를 이어 취임하셨습니다. 일본측에는 세토 회장이 또 훌륭하게 그 자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회의가 앞으로도 더욱 더 양국간에, 경제인간에 그 유대관계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양국간에 우호증진의 강화로 우정의 해에 걸 맞는 모습을 갖춰 가리라고 생각하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훌륭한 상을 수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제 방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司會 : 후지무라 마사야 상담역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특별공로상을 받으신 한일경제협회 박태준 명예회장님과 일한경제협회 후지무라 마사야 상담역님께 여러분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20분간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갖겠습니다. 4시 50분에 다시 이 자리에서 기조강연을 듣는 것으로 다시 2부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분간 커피 브레이크를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밖에 커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2. 基調演說

司會 : 단상으로 올라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조연설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후의 이 회의는 조석래 단장님과 세토 유조 단장님께 회의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趙錫來 議長 :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세토 유조 회장이 함께 회의를 속개해 나가겠습니다. 회의 순서에 따라 한일 양국의 기조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측으로부터 윤종용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께서 '한일경제협력 4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윤종용 부회장께서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시고, 66년 삼성에 입사하여 약 40년 간 삼성전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96년부터 삼성전자 대표이사로 계시면서 삼성전자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비즈니스위크 선정 최고 경영인 17인' 중 한 분으로 선정되었으며, 미 금융전문지 balance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 30인'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한일경제협력 4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한일 양국의 기업간 협력방향과 전망을 통해 한일간 바람직한 연대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유익한 말씀이 있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윤종용 부회장님,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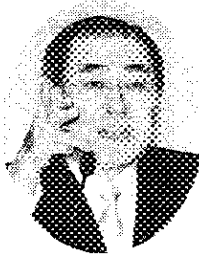
## (1) 韓國側 基調演說

### 「韓日 經濟協力 40年の 回顧와 展望」

尹 鍾 龍

三星電子(株)

代表理事 副會長



네, 방금 소개받은 윤종용입니다. 너무 과찬을 해 주셔서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존경하는 세토 유조 회장님, 오쿠다 히로시 회장님,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일본대사님, 그리고 조석래 회장님, 한국과 일본의 선배·동료 경제인 여러분, 오늘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제37회 한일경제인 회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의 존경받는 경제인들이 이끌어 오신 한일경제인회의는 지난 40년 동안 두 나라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양국간의 선린우호와 경제협력의 기반을 다져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축하하면서, 양국이 지난 40년간 경제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거둔 성과를 기리고, 또한 미흡했던 점을 짚어봄으로써 향후의 바람직한 경제협력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1. 分野別 回顧

#### [양국간 貿易 : 40년간 300배 이상 확대]

지난 40년간 한일 경제관계는 급속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 성과의 단적인 예로 '한일 양국간 무역규모의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1965년 양국간의 무역액은 2억 달러 규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20년 후인 1985년에는 120억 달러로 60배가 증가했고, 지난 2004년에는 680억 달러로 또 다시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한국기업에게 있어서 일본은 중국과 미국에 이은 세 번째의 수출시장이자, 제1의 기계·부품·소재의 수입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기업에게 있어서 한국은 제3의 수출시장이자, 수입기지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양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양국간 경제교류는 더욱 확대되고, 심화되어 왔습니다.

#### [일본의 투자 확대와 기술 이전]

다음으로 일본기업의 對韓직접투자와 기술이전은 한일 양국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과거 40여 년 동안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왔으며, 세계 산업사에도 보기 어려운 결과를 보여 왔습니다.

섬유·화학·조선·자동차산업에 이어 근래에는 메모리·LCD·휴대단말기 등의 첨단전자산업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산업화의 배경에는 일본과 미국 등의 직접투자와 기술도입이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의 개발 초기에는 첨단기술은 미국에 의존하였지만, 상업화·실용화기술 및 개량기술에서는 일본이 제일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기술개발과 경제발

전에 성과를 거두었고, 일본은 對韓직접 투자와 기술제공을 통해 부품시장 확보와 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 **[韓日 경제간 相互補完的인 分業構造 실현]**

이러한 한일간의 경제협력의 성과는 양국 경제간 상호보완적 관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0년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은 양국간에 수요를 창출하는 선순환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일본에게 한국이 라이벌이 아닌 이웃에 있는 협력자로서의 인식이 전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2~3백년전 구미 각국들이 산업혁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경쟁과 협조를 하면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 온 사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 **[기업간 협력도 확산]**

섬유·화학·조선·자동차·전자 등 한일 양국의 주력산업들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한일 기업간의 자본참여·기술협력 등은 두 나라 산업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양국 기업간에 합작이나 제휴는 물론, 공동연구개발이나 제품 상호공급 등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양사는 1998년 세계 철강업체들간 제편 소용돌이 속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으며, 기초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연구개발·제품 상호공급·원료와 부품

의 구입 등 해외에서의 합작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소니는 2004년 LCD합작회사를 설립하였고, 양사가 전사차원의 특허를 공유하기로 한 것은 한일 기업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례는 더욱 많습니다.

이와 같은 한일기업간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는 21세기 양국 산업발전의 중요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新産業분야에서의 협력 증대]**

한일간 협력은 신산업분야에서도 다양하고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1996년부터 한일 양국은 전자상거래의 협력을 추진하여 양국간 무역 EDI시스템 e-market place를 구축하고, 산업별 B2B 협력사업, 전자부품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산업분야에서도 한일간 교류를 확대한 결과, 한국의 IT관련 벤처기업들이 일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바이오·애니메이션 등의 신분야에서도 기업간 교류와 기술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2. 韓日 經濟 協力の 課題**

이러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간 한일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돌아켜보면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 **[한국의 무역 적자 확대]**

무엇보다도 양국간 무역규모가 늘어나

면서 한국의 무역적자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對日 무역적자는 1998년 46억 달러에서 2000년 114억 달러, 2004년에는 244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국가간의 무역에서 일정 수준의 적자구조나 흑자구조는 산업의 발전단계, 기술의 수준, 부존자원 등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무역적자의 확대는 한일 경제 주체간 건전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 [투자 부진]

투자측면에서 보더라도 최근 들어 일본기업의 對韓투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기업의 對韓투자규모는 1999년에 10억 달러 수준이었으며, 이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2003년에는 전년 대비 58% 감소한 3억 달러 수준에 머물러 최근 구미기업의 활발한 對韓투자에 비해 크게 부진한 상황입니다.

### [日本 企業의 기술 이전 기피]

게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기업이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기술도입 건수도 급격하게 줄어들어 최근에는 전체 기술도입 건수의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에는 일본기업이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冒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경제와 기업의 성장은 곧 일본 기업에게는 시장확대와 기회의 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

를 빌려 한일간에는 경쟁도 필요하지만, 양국의 건전하고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3. 向後 協力 方向 및 提言

존경하는 한일경제인 여러분, 우리는 지난 40년간의 성과와 문제를 토대로 21세기를 아시아·태평양시대로 열어갈 두 나라간의 경제협력증진을 새로이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 나라 경제협력관계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비판부터 겸허하게 경청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사회 일각에서는 대일무역적자가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사회의 일각에서는 한국이 협력보다는 경쟁상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은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의 원리와 국제화·세계화의 논리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국은 협력을 통하여 상대국의 성장을 촉진시켜 주는 길이 자국의 수출시장을 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는 평범한 사실부터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양국의 무역불균형 해소방향은 장벽을 쌓아가는 교역의 축소균형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협력과 개방을 통한 교역의 확대균형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향후 한일 경제협력관계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FTA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 필요]

먼저 한일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협

상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한일 양국이 win-win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2005년 말 타결을 목표로 지난해 6월까지 여섯 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아직 상품 讓許案도 교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일 FTA는 양국간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제거를 통해 양국간 무역확대는 물론, 시장 확대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시장의 일체화를 통해 양국 기업간 경쟁과 제휴가 활발해지고, 이는 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한일 양국에 대한 투자 매력력이 제고되어 역외의 기업의 투자도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FTA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국이 함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제는 더욱 성숙되어 갈 것이며, 그 결실은 한일 양국이 거둘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부분부터라도 먼저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한일 양국은 한일 전체를 놓고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역할분담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한일 양국간 차세대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한일 양국은 산업경쟁력의 제고와 차세대 성장동력의 추진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산업분야에 있어서 기존 선진국간 경쟁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새로운 기술협력방안 마련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반도체 및 이동통신 등의 IT산업분야에서 세계적인 제품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과 이들 핵심기술과 소재기술에서 절대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상호협력을 할 때 세계적인 차세대 표준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약점을 보완하며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이나 후발국 모두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써 힘을 쏟고 있는 신소재·에너지·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는 각국이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 절대강자가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정부와 기업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각종 협력방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입니다. 최근 중국이 빠른 속도로 모든 전통산업에서뿐만 아니라 IT와 같은 첨단산업에서도 부상하면서 세계 경쟁구도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경제의 급성장은 한일 양국의 對中國 수출의 급증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한중일 3국간의 분업구조를 확립하고, 동아시아권내 산업구조 재편과 산업고도화를 통해 한일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경제 전체의 시장과 능력,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일 경제인간의 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 한중일이 한 자

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일간, 한중간, 중일간 협력 등 상무적인 협력은 물론, 한중일 3국의 경제인들이 세 나라의 공동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한일 경제인 여러분, 지난 40년간 한일 관계를 되돌아보면 경제교류와 협력관계가 경제외적 돌발변수로 인하여 냉각되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등, 반복을 계속해 왔습니다. 때문에 최근 일련의 경제외적 요인으로 인해 자칫 수년 간 무르익어 온 우호적인 한일 경제관계가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양국의 경제인과 기업차원에서 보다 우호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증진이 지속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국 국민들 간의 신뢰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역사인식을 갖고, 미래를 향해 인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인적교류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공존은 세계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호 깊이 이해하고, 동북아시아가 공존·공영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들이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의 남은 일정에서 폭넓은 교류와 유익한 대화의 시간이 되사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趙錫來 議長 : 윤부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일본측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세토 유조 단장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瀬戸 雄二 副議長 : 일본측에서 기조연설을 해 주실 분은 일본 경단련의 오쿠다 히로시 회장님이십니다.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입니다.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는 경제단체의 최대의 모임·회합입니다. 그리고 오쿠다 회장님께서서는 일본 최강의 도요타자동차의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재작년에 대구와, 그리고 작년의 나고야의 경제인회의에 이어서 올해도 한일경제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대단히 바쁘신 가운데 서울에 직접 와 주셔서 기조강연을 맡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쿠다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 (2) 日本側 基調演説

### 「重層的 韓日關係 構築을 向한 經濟界의 役割」

奥田 碩

日本經濟團體連合會  
會長



제37회 한일·일한  
경제인회의가 이토록  
성대하게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림과 동시에 관계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  
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  
리를 빌려서 조석래 회장님의 한일경제협  
회 회장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조석래 회장님은 한국을 대표하시는 지  
일(知日) 인사의 한 분이시고, 한일FTA에  
도 조예가 깊으십니다. 따라서 조석래 회  
장님의 힘을 빌려서 양국의 경제관계가  
한층 긴밀해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 1. 긴밀도를 더해가고 있는 한일 관계

한일관계는 한류붐이 계기가 되어서 상  
호 국민차원에서 가깝고도 먼 존재에서부  
터 문자 그대로 진정으로 가까운 이웃으  
로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장차의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자 합니다.

이 한일·일한 경제인회의에서도 양국  
경제인들이 흥금을 털어놓고 기탄없이 의  
견교환을 하고, 21세기를 더불어 걸어가  
는 중층적인 양국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중층적인 한일관계의  
구축을 향한 경제계의 역할'이란 주제로

양국의 경제관계의 촉진방안에 대해서 저  
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전에  
양국간의 경제교류에 하나의 기초가 되는  
일본경제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2. 일본경제의 현황

일본경제는 최근 6개월 정도 제자리걸  
음 상태를 계속해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  
서 생산 혹은 고용 등에서 밝은 면도 나  
타나고 있습니다. 당분간의 경제동향을  
전망해 본다면 원유를 비롯한 국제상품  
시황의 급등이라든지, 장기금리의 동향  
등 불확실한 요소도 많아서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  
계경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  
데 IT분야에서의 재고량 조정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올해 후  
반부터 일본경제는 다시 회복궤도에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  
은 지구환경문제 등의 글로벌한 과제와  
또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감소사회의 도래  
등 국내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  
기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고,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대담하게, 또 꾸준히 포  
석을 깔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단련은 앞으로도  
구조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고이즈미  
내각을 계속 지지함과 동시에 일본이 나  
아가야 할 길과 또 경제계의 역할을 제시  
한, 일본 정단련이 2003년 1월에 발표한  
신VISION에 의거해서 세계·재정·사회보  
장제도의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개혁, 그  
리고 민간활력 발의를 촉진시키는 규제개  
혁 및 민간에 대한 개방추진, 과학기술

창조입국,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일  
본의 위상제고를 위한 기반정비 등을 경  
제계 입장에서 강력히 추진해 나갈 생각  
으로 있습니다.

### 3. 한중일 3국의 협력 강화

여기서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  
제환경에 눈을 돌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양국이 협력해서 노력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과제는 동아시아 자유경제권의 실현·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로드  
맵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ASEAN에  
대항하여 한중일 3국이 어떻게 해야 잘  
정리된 틀을 구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며, 우선은 한국과 일본과 중국, 3국에 의  
한 경제연대강화가 그 관건이 될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 일본, 중국, 3개국의 경제연대  
에 대해서 지금 종합연구개발기구에 의해  
3국간 FTA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고 있으  
며, 또 産·官·學에 의한 3국간 투자협정을  
위한 정부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  
다. 또한 경제계에서는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는 등 세 가지의 틀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대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것  
이 현황입니다.

이 가운데 한중일 비즈니스포럼은 2000  
년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창을 하  
시어 일본 경단련을 포함한 3개국의 경제  
계가 3년간에 걸쳐서 협력 끝에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3개국의 자동차·섬유·철강·  
전기전자 등 주요 7개 업종의 대표적 기  
업의 임원·간부 3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  
여서 비즈니스 환경 정비를 위한 제반 방  
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한, 대단

히 독특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으로 말씀드리자면 규격기준의 표준화·전  
자화 추진, 환경문제의 대응, 이러한 협력  
방안을 3개국의 업계차원에서 검토를 하  
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작년 10월  
에 도쿄포럼에서는 한중일 투자협정의 조  
기체결과 이를 전제로 한 한중일FTA에  
관한 産·學간 공동연구회의 조기설치를 3  
개국 경제계의 총의로써 3국의 정부에 대  
해 건의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지적재산권의 실효적인 보유  
와 법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포함한 가능  
한 한 높은 수준의 3개국간의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한중일FTA를 성사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계의 생각은 작년 11월에 비엔  
나에서 개최된 바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  
에도 반영이 되어 현재 3개국 투자협정에  
관한 정부간 협의의 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중핵을 이루는 한중  
일 3개국의 동향은 지역 전체의 번영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폭넓  
은 분야에 걸쳐서 추진되어 나가야 합니  
다. 이를 위해서라도 먼저 3개국간의 투  
자협정을 조기에 체결하여 한중일에 의한  
소위 3개국의 win-win-win의 관계를 보  
다 탄탄한 것으로 만들고, 나아가서 한중  
일FTA의 구현으로 연결해 나갈 생각입니  
다.

### 4. 한일FTA의 실현을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는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 2개국으로서, 자유화수준이 높은 한  
일FTA를 조기에 구현해야 함은 말씀드릴  
나위도 없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현재 금년 내에 기본합

의에 도달한다는 목표하에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산 김의 수입할당량과 관련하여 WTO에 제소중이고, 물품의 관세 철폐협상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다음번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협상은 일정조차 정해져 있지 않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측은 FTA 체결에 따른 양국의 무역불균형의 확대, 그리고 중소기업 위시한 한국 국내 산업에 대한 타격, 그리고 일본의 비관세장벽과 농수산물분야의 시장개방지연으로 말미암아 對 11 수출이 기대했던 만큼 늘어나지 않는 등의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에 대해 이들 문제, 소재산업을 포함한 한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근 들어서는 한일 FTA를 통해 중소기업과 농업분야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을 내걸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에 대응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협상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인 글로벌화 추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저희 일본과 한국의 경제인들은 양국 정부, 학계와 협력을 하여 높은 수준의 한일FTA가 체결될 수 있도록 이제까지 이상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각국의 국내문제 조율에 노력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일본 경단련은 자민당의 FTA, EPA 특명위원회와 경제연계에 관한 간담회라는 것을 개최를 하여 한국을 비롯한 각국과의 FTA에 관해 정부 여당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대응책에 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시킴과 동시에 국내적인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나위도 없이 일본과 한국이 FTA를 체결하는 데서 얻어지는 장점은 적지 않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양국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추진이 돼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육성된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양국 기업간에는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전략적 제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니와 삼성전자의 액정패널 분야의 제휴와 특허의 크로스라이센스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국의 리딩기업들의 협력사례를 가능한 많이 만들어 가는 것이 연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양국간의 기술이전이 촉진되면 한국이 우려하는 문제들도 서서히 해결되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FTA를 통해 인적이동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경우 기술자의 왕래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한국측이 바라는 기술이전도 촉진되게 됩니다. 기술이전을 추진하려면 실제로 기술자가 현지에서 함께 작업을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합니다. 이미 한국과는 기술자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한일FTA를 조기에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로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의 부품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히려 일본의 중소 부품산업과의 연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한국의 과제 중 하나인 기반산업육성으로도 이어지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부품산업의 국제경쟁력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역구조면에서 보더라도 한국은 일본에서 수입한 부품 및 재료를 이용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수출해서 전체적으로 흑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 국적인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일FTA가 체결되면 일본과 한국이라는 아주 하이레벨, 높은 수준의 시장이 하나가 돼서 양국이 동아시아시장의 핵심을 이룰 것은 명백합니다. 이미 다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한일 양국기업이 FTA를 계기로 가일층의 수평분업과 기술 협력을 심화시킨다면 서로의 경쟁력강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 등 여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글로벌마켓에 있는 한일 양국기업의 협상능력, 마케팅 파워라든지, 국제기관에서의 롤 메이킹 때도 양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한일 양국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equal partnership을 구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FTA를 자유화수준이 높은, 포괄적인 것으로 만들고, 동아시아 혹은 세계의 선구적 모델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양국 FTA 체결을 통해 한국측에서 단기적으로는 대일무역적자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양국의 기업이 사람, 물적, 그리고 자금, 정보, 지적재산권 등의 경영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경쟁축진을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 또한 국가간의 생산요소의 이동을 통한 효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FTA를 계기로 해서 기술이전의 촉진과 무역불균형의 시정 등의 대응책을 모색하려는 자세가 양국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경제계로서는 앞으로도 양국간에 놓여있는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한국기업의 對日 접근도 개선 및 한일기업간 전략적 제휴축진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 5. 끝으로

끝으로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상호신뢰관계를 보다 견고하게 하고, 중층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 지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한경제협회 주최로 지금까지 4회에 걸쳐 개최된 '한일고교생교류캠프'에서는 양국 고등학생들이 교류를 하고, 미래를 향한 국경을 초월한 우정이 꾸준히 자라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한일우정의 해 2005'를 통해 양국의 신뢰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고, 이것이 나아가 한일 FTA체결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회의의 성공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瀬戸 雄三 副議長 : 오쿠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쿠다 회장님께서도 나중에 리

셈션에도 출석을 하실 예정이므로 또 그때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석래 단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趙錫來 議長 : 오쿠다 히로시 회장님, 또 윤종용 부회장님, 두 분의 강의를 정말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특히 오쿠다 회장님의 FTA를 체결하면 일본 중소기업과의 연계가 심화됨으로써 양국간의 win-win situation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초연설을 마치겠습니다.

### 3. 經過報告

趙錫來 議長 : 그리고 계속해서 경과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 경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一般經過報告 (書面)

(社)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許 南 整  
(社)日韓經濟協會 專務理事 平木健二郎

지난 2004년 4월, 일본 나고야시에서 개최된 제36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에서 합의된 각 사항의 실시 상황 및 이와 관련된 양국간의 협력사업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의 산하 전문위원회인 『한일산업무역회의』 개최 결과에 대해서는, 한국측 대표로 부터 별도 보고가 있으므로, 본 일반경과보고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1. 韓國訪日輸出促進團(韓國商品商談會)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한국측은 韓日經濟協會가, 일본측은 日本貿易振興機構(JETRO)가 상호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전자기계, 정보통신시스템, 콘텐츠업종 27개사 40명으로 구성된 한국방일수출촉진단(한국상품상담회)은 일본 東京(도쿄), 大阪(오사카)에서 일본 기업 116개사(154명)와 170건, 2,249만불의 바즈니스상담 실적을 거두어, 한일 양국 기업의 거래확대 및 한국 중소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본 촉진단의 내실화를 위해 양국기업에게 있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 2. 韓日靑少年交流事業에 관한 사항

한일 국교정상화 20주년을 기념하여 1985년 제17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현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양국간 대학생 중심의 청소년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이후 작년까지 총 20회째 개최된 교류사업으로 그동안 한일 양국 대학생 1,250명이 문화와 산업시설견학, 고적지 방문, 상대국 가정으로의 홈 스테이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이웃나라의 산업과 사회 그리고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폭넓은 상호 이해와 우호 친선을 증진시켜 왔습니다.

동 사업은 작년도 8월초순 한국의 대학생 25명으로 구성된 제20회 한국대학생방일단의 일본 방문과, 8월 중순에 13명으로 구성된 제17회 일본대학생 방한단을 마지막으로 양국 대학생교류사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청소년교류사업을 통해 양국의 학생이 자기 스스로의 눈과 피부로 상대방 국가와 국민성을 느낌으로써 상대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고정되어져 있던 이미지나 인상을 올바른 정보로 수정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풀뿌리 교류의 참된 의미를 더욱 많은 젊은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대학생교류사업을 중고등학생들에게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일고교생교류캠프」를 2004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양국 고교생 118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4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는 양국 고교생이 언어의 벽을 넘어 하나의 목적을 향해 공동 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진정한 우정을 싹틔워 가는 모습은 감동적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교생교류캠프 사업은 금년도에 2회 더 실시하여 「감동의 고리」를 넓혀 한일 관계의 차세대를 짊어질 청소년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3. 中小企業 相互補完 事業에 관한 사항

한일 양국간의 부품소재산업의 협력추진을 위한 정보교류 및 한일 기업간 보완상담회가 작년 5월 동경, 그리고 11월에 서울에서 각각 개최 되었습니다.

한국기업 79개사, 일본기업 60개사가 참가하여 221건의 비즈니스상담을 실시하여 무역확대는 물론 양국기업간 기술제휴 및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력 배양과 신제품 개발, 위탁생산을 통한 기술교류 등 양국기업간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JETRO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4. 地域間 交流協力事業에 관한 사항

한일 지방간 산업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일 경제인회의의 지방개최와 더불어, 일본 큐슈지역과의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 확대를 논의하는 第11回 韓·日(九州) 經濟交

流會議가 작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 쿠마모토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日本 北陸(호쿠리쿠)지역과도 매년 정기적으로 경제교류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第5回 韓·日(北陸) 經濟交流會議를 작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 토야마현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地域主義 추세에 대응하여 韓·中·日 3國의 環黃海 地域間 協力을 통해 무역·투자·기술협력을 촉진하고 環黃海經濟圈 나아가 東北亞 地域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키 위해 실시하는 第4回 環黃海 經濟·技術交流會議가 작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미야자키시에서 개최되었으며 금년 11월말 한국 대전광역시에서 제5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간 협력을 통해 양국간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양국간의 무역·투자·기술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5. 韓日 兩國 産業技術協力財團의 사업에 관한 사항

한일 양국간의 산업·기술 협력을 통해 경제적 현안인 대일 무역불균형을 개선함과 동시에, 상호교류를 통해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2년에 양국 정부간의 합의로 양국에 설립된 산업기술협력재단은, 양국 정부 그리고 관련 경제단체 및 기업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 속에 광범위한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일 양국 재단은 공동으로, 산업기술 인력육성사업, 생산성향상성과

보급사업, 부품소재산업협력사업, 산업기술교류사업, 지역간 산업협력사업, 조사홍보사업 등 폭넓은 사업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일 양국간의 산업기술협력사업은 한국의 중견·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양국 산업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한·일 네트워크 구축 및 한일FTA체결에 대비한 정책사업 및 후속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한일 양국간의 협력 분위기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 등을 개발하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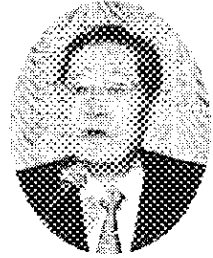
**趙錫來 議長** : 그리고 작년 11월에 한국 경주시에서 개최되었던 제6회 한일산업무역회의에 대해 동 회의의 한국측 চে어맨을 맡고 계시는 한국무역협회 이석영 상근 부회장께서 회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석영 부회장님, 부탁드립니다.

## (2) 韓日・日韓産業貿易會議 報告

李 錫 瑛

韓國側 চে어맨

韓國貿易協會 副會長



한일산업무역회의 한국측 চে어맨을 맡고 있는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석영입니다. 작년 11월 18일과 19일 이틀동안 대한민국 경주시에서 개최된 제6회 한일산업무역회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한일산업무역회의는 한일경제인회의 산하의 전문위원회 중 무역투자위원회, 기계공업위원회, 산업일반위원회의 3개 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보다 높은 차원의 인식공유와 합의 형성을 위하여 1999년에 새롭게 발족한 회의입니다.

제1회 기사라즈, 제2회 서울, 제3회 후쿠오카, 제4회 제주도, 제5회 우라야스에 이어 작년 제6회 회의는 경주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제6회 회의에서는 일본측에서는 아소라파쥬시멘트 사장인 아소 유타카 চে어맨, 일본무역회 전무이사인 다카나시 케이스케 코디네이터를 비롯한 31명이, 한국측에서는 저와 삼성물산주식회사 부사장인 이수철 코디네이터 등 45명이 참석하여 한일FTA를 테마로 이틀간에 걸쳐 활발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한일 양측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협조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회의 첫날에는 폭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는 한일FTA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역,

기계, 전기·전자·IT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서 '한일FTA 추진에 따른 분야별 협력'이라는 테마로 자유토론을 실시하여 유사업종간 공동과제와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토론내용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무역분야**」에서는 한국측이 일본에 대하여 비관세장벽개선, 일본인 퇴직기술자의 한국취업촉진, 한국인의 무비자입국조치, 한국을 경유한 중국진출, 무역불균형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일본측은 한국에 대하여 노사문화 선진화, 한국진출 기업 신규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부여, 한국의 비자정책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계분야**」에서는 중국의 급부상에 대응한 한일 양국의 협력관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하였으나, 구체적인 협력방안 논의시기에 대해서는 한국측은 FTA 체결 이전을, 일본측에서는 FTA 체결 이후를 각각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측에서는 정보 부족으로 사업파트너를 찾지 못하는 양국 기업업체를 위하여 양국 기업간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과 함께 기술인력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등 정부지원도 포함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전기·전자·IT분야**」에서는 양측 위원들이 한일자유무역지대 설립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양국의 전자산업발전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 특허공동인증, 기업인의 자유이동보장, 일부 품목의 일정기간 관세철폐유예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둘째 날 「**전체회의**」에서는 먼저 양측으로부터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무역협회 정재화 FTA연구팀장이 '한일FTA의 추진방안과 기업의 대응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일FTA 체결을 통해 관세철폐, 비관세조치의 개선 및 양국간 협력강화 등이 이루어지면 양국의 무역 및 투자증대가 예상되고, 인구 1억7천만 명의 단일시장 탄생과 함께 규모의 경제실현으로 효율적인 생산과 분배가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경제구조조정 가속화와 3국 시장 공동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일FTA는 양국 시장의 깊은 통합이라는 목표를 유지해야 하며, 양국 기업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동북아FTA,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일본측에서는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의 가토타 히로시(角田 博) 참여가 '한일FTA의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과 동아시아 자유경제권을 지향하여'라는 테마로 발표하였습니다. 한일FTA는 양국이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술이전촉진과 국제경쟁력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양국간의 모든 문제는 양국 연대의 다양한 틀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장래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실현을 위하여 한국과 일본이 역내 선진국으로서 FTA를 조기에 체결하고, 그 모델을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자유토론에서는 한국측은 한일 FTA와 관련, 기업 및 규모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점을 밝히고, 한국이 장

기적으로 이익을 볼 것이라는 일본측의 주장에 대한 이견 등으로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EU·NAFTA 등 지역연대가 진흥되는 가운데 한일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일FTA 체결은 일본의 유통구조 및 상관습의 개선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한국 제조업에 있어서는 구조조정 등 고통이 수반될 것이므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제대로 된 한일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일본측에서는 한국이 주요 수출품목인 부품 및 소재 중 일부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FTA는 단기적으로 한국의 수출산업에 메리트가 있다는 의견과 더불어 한일FTA는 진정한 미래의 문제로 서로에게 고통이 따르겠지만, 양국의 교류협력증진과 한국의 외국인투자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한국의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한일 양측 위원간에는 이상과 같이 많은 정보 및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기업인으로서 끊임없는 개선과 연대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한일산업무역회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하고 폐회하였습니다.

또한 한일산업무역회의의 활성화방안과 관련, 한국측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 및 기업이 참가하도록 유연성과 개방성을, 일본측은 대기업 중심의 회의 진행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회의는冒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국 위원들이 전 분야에서 구매받지 않고 폭넓은 테마에 대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유토론을 통해 상호 정보 및

의견교환과 함께 관심과 인식을 공유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 및 경제인회의 follow-up의 장으로서도 매우 의미있는 회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7회 한일산업무역회의가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게시는 양국 경제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회 한일산업무역회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한일 양국 경제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趙錫來 議長 : 이석영 부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가 끝났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계시거나 혹은 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활동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활동보고는 이의 없이 승인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9시부터 2개의 분과회로 나누어 이곳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룸에서 분과별 회의 및 전체회의, 그리고 폐회식이 개최되오니 마지막까지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司會 : 감사합니다. 두 분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분 단장님께 뜨거운 박수로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후 일정에 대해서 사무

국에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6시 30분부터 한일 양국 경제 협회 공동주최 리셉션이 다이너스티 II·III에서 개최되오니 단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다이너스티 I·II에서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이너스티 II·III에서 리셉션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장소를 준비하는 관계상 6시 30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시 30분까지 기다리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환담을 나누실 수 있도록 로비에 칵테일바를 준비했습니다. 드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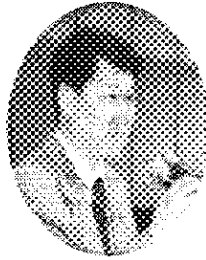
그리고 오늘 저녁에 6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공동리셉션은 서울시와 공동주최하는 리셉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대표해서 이명박 시장님이 6시 10분 경 도착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장단 여러분들께서는 2층에 준비되어 있는 귀빈 대기실로 가시면 같이 환담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부 관계자가 대독한 양국 정상의 축하 메시지 copy가 입구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한 장씩 가져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6시 30분 리셉션장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4. 第 1 分科會

司會[趙德卯 (社)韓日  
經濟協會 次長, 以下  
同一] : 시간이 되었  
으므로, 지금부터 제  
37회 한일·일한 경제  
인회의 제1분과회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1분과회의 사회를 맡게 된 한일경  
제협회 조덕묘 차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겠습니다. 회의 통역수신기는 한국어 1번,  
일본어 2번 채널로 맞춰져 있으며, 진행  
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  
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진동모드로 전환  
해 주시거나, 전원을 꺼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회의를 맡아주실 양국  
코디네이터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  
측 코디네이터이신 성재갑 LG석유화학  
(주) 고문님께서서는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주)LG화학 대  
표이사 사장, 부회장, LG석유화학(주) 회  
장을 거쳐, 현재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명예회장, 화학산업 관련 최대경제단체인  
한국화학산업연합회 회장, LG석유화학 고  
문직을 맡아 한국화학산업의 산 증인으로  
서 큰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밖에도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한일경제협회 부  
회장을 비롯하여 지난 2000년에는 제32회  
‘한국의 경영자상’을 수상하신 최고 경영  
자로서 국내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계십  
니다. 성재갑 고문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측 코디네이터이신 이이  
지마 히데타네 도레이(東レ)(주) 특별고문  
님은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시고 1959년

도레이(東レ)에 입사하시어, 전무취체역과  
대표취체역 부사장을 거쳐 (주)도레이 경  
영연구소 대표취체역 회장 겸 사장을 역  
임하신 후, 현재 도레이(주) 특별고문, 정  
부통계심의회 위원,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통계심의회 회장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이이지마 히데타네 특별고문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기 전  
에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  
활한 동시통역과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  
여 발언 시에는 가능한 천천히 발언해 주  
시고, 통역이 곤란한 외래어는 가능한 삼  
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일  
양측 백그라운드 페이퍼 발표자께서는 발  
표시간 20분을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그럼 이후 진행은 양측 코디네이터  
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成在甲 코디네이터 :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측 코디네이터 성재갑입  
니다. 일본측 이이지마 특별고문님과 함께  
제1분과회의의 코디네이터를 맡고자 하오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1분과회의의 운영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제2  
분과회의에서는 ‘문화·서비스산업을 중  
심으로 경제연대와 향후 양국기업간 협력방

안'을 위주로 하여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곳 제1분과회의장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연대와 향후 한일 기업간 협력방안'을 위주로 양측의 백그라운드 페이지 집필자로부터 각각 20분 정도 테마에 대한 발표를 들은 후에 20분간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갖겠습니다. 휴식 후에는 플로어로부터 질의응답을 받아 자유토론 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가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백그라운드 페이지 자료는 테마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이 페이지를 토대로 해서 발표자의 발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질의응답시간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의견과 정보, 견해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것이 본 분과회의의 운영 취지입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이나 견해를 발표해 주시고, 앞서 발언한 내용을 받아 논의 및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페이지의 논점과 관련된 의견을 발언하는 것이 취지지만, 백그라운드 페이지의 논점에서 벗어나는 의견이라도 혹은 테마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발언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 분과회의에서 여러분의 발언 가운데 특히 많은 찬성과 지지를 얻는 의견이나 제안 등은 이후의 공동성명안을 심의하는 단장단 오찬회의에 보고를 하고, 공동성명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발표나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표시간은 각각 5분 이내로 제한코자 하오니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본측 이이지마 히데타네 특별고문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飯島 英胤 코디네이터**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일본측의 코디네이터를 맡을 도레이(東レ) 이이지마입니다. 한국측의 성재갑 고문님과 함께 이 제1분과회의의 진행을 맡겠습니다. 그러면 성재갑 고문님, 부탁드립니다.

**成在甲 코디네이터** : 그러면 한국측의 백그라운드 페이지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포스코의 유상부 고문께서 '한일철강 협력 성공사례와 향후 협력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유상부 고문님께서서는 1964년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시고, 70년 포항제철 입사 후에 98년부터 2003년까지 (주)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삼성재팬 대표이사 사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현재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주)포스코 고문, 포스텍 이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유상부 고문님, 부탁드립니다.

## (1) 韓國側 백그라운드 페이지

### 「韓·日 鐵鋼協力 成功事例와 向後 協力 方向」

劉 常 夫

(株)POSCO 顧問



안녕하십니까? 평소  
에 제가 존경하는 분  
들을 앞에 모시고 발  
표를 하게 돼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  
릴 이 내용은 지금 플로어에 앉아 계시는  
이마이 다카시 신일본제철 명예회장님께  
서도 이 협력에 참여하신, 또 주도하신  
분이시고 해서 혹시라도 제가 설명에 빠  
진 게 있으면 나중에 보충해 주시길 부탁  
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일간에 가장 경제현안이 되고  
있는 FTA에 포스코와 新日鐵이라는 기업  
간의 협력, 또 그것이 철강산업간의 협력  
으로 발전하면서 FTA에 대한 하나의 준  
비과정으로써 성공적인 사례가 아닐까 하  
는 생각에서 오늘 그 동안의 경과와 결과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는 지금 FTA 확산  
등을 통해서 역내 경제권 내의 회원간의  
협력과 또 경제블록간의 경쟁이 점점 심  
화되고 있고, 또 이 속에서 산업과 기업  
들은 전략적 제휴, 또는 합병, 특히 같은  
업종간의 제휴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간  
에도 제휴를 하면서 점점 네트워크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간에는 협력을 하  
면서, 이제는 다시 네트워크간에 경쟁을  
하는, 문자 그대로 경쟁과 협력의 시대가  
지금 전개되고 있고, 또 상당히 빠른 템  
포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일 FTA는 지금, 이것이 협상이 되게  
되면 한국과 일본, 양국 공히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양국간의 투  
자도 활성화되고, 경제구도도 고도화된다는  
사실을 서로가 잘 인식을 하면서도 일  
부 산업간의 상호이해부족으로 이견이 발  
생해서 작년 11월 이후에 지금 진전이 없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포스코와 新日鐵의 기업간의  
협력, 그것이 나중에 산업간의 협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앞으로  
FTA 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런 기대를 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12월에 新日鐵과 포스코는 상호주식보유  
를 합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新日鐵은  
포스코 주식 3.1%, 포스코는 新日鐵 주식  
2.2%를 보유하면서, 당시는 첫째, 新日鐵  
이나 포스코나 적대적 M&A에 대한 상호  
우호주주로서 출발했습니다. 물론 그 속  
에서는 서로가 신뢰하고, 경영의 내용들  
을 서로가 공개한다는 여러 가지 내부적  
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8월에 이르러서 전략적 제휴로, 아주 본  
격적으로 그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작년 12월까지 '총  
괄협의회'라는 것을, 이것은 우리가  
'steering committee'라고 했습니다만, 양  
사이에 최고 경영층이 참석하는 회의를  
14회를 열었고, 그 다음에 각 부문별 회  
의를 120회 교류를 가짐으로써 양사가 모  
든 경영부문에서 일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생산·판매부문에 대한 것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제휴를 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1998년도  
동남아시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일본은

또 장기간의 경기침체 속에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97년도, 98년도를 보게 되면 내수, 강제내수가 거의 천만 톤 이상 30%, 한국은 34%의 급속한 시장 감소가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한 때 400불 하던 열연강판이 210불로, 210불이라는 것은 일종의 'risk price'라 그립니다. 실제 거래되는 'spot market'에서는 이보다 더 훨씬 낮은 가격으로 수출가격이 형성되면서 필연적으로 일본의 철강업체나 포스코나 상당히 경영의 위기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일 고로 6사, 포스코를 포함한 고로6사를 전부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만, 98년도에 3억9천만 불의 적자가, 2001년도에 들어서는 약 10억불에 가까운 적자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포스코는 2001년도에 약 7억불 정도의 세후 이익을 가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의 철강업체는 이 당시 17억불 전후의 손실, 경상적자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의 철강업체가 대단히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고로사 13개 가운데 7개 회사가 파산 보호신청을 하고 있었고, 전기로 메이커까지 합치면 약 30개사가 파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구조조정을 하면서 드디어 99년도에는 '코리스'라고 해서 영국의 '브리티시 스틸 코퍼레이션'과 네덜란드의 '오거번스'가 합병을 하면서 2천만 톤 규모의 대형제철소로 새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또 불란서의 최대의 철강업체인 '유지노르'와 룩셈부르크의 '아베트', 그리고 스페인 '아세발리아제철소' 등 3개국의, 실질적으

로는 5개국의 약 20여 개 제철소를 합치는 '아셀로'라는 대형 철강업체가 탄생을 하면서 새로운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바로 미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습니다. '세이프가드'란 것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세계 약 30여 개국에 대해서 보호관세 및 쿼터, 수출·수입물량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관세는 약 30% 전후의, 아주 전혀 없는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채산성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고, 또 이에 놀란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나 캐나다나 EU, 중국 등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소위 '철강대전', 도미노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新II鐵과 포스코는 새로운 생존의 방향을 모색해야 하겠다는 데 공통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지만 상당히 광범위한 제휴였습니다. 기술부문, 그 다음에 구매부문하고 신시장 개척문제, 경영자원 모두를 서로가 상호공개하고, 상호 벤치마킹함으로써 마치 한 회사와 같은 그런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협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바로 양사의 협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철강산업과 한국의 철강산업이 산업차원에서의 협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양국 산업체가 가지고 있는 철강에 대한 통계·용어·제품의 표준, 그 다음에 건설코드와 같은 각종 규정의 상호인증, 이런 모든 부문에서 서로 협력을 시작했고, 이러한 협조란 것은 먼저 한일간에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다시 중국에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한중일FTA가 체결되었을 때에 서로가 조금도 저항 없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밝혀둘 것은 지금 여기 플로어에 앉아 계시는 이마이 다카시, 당시에 新日鐵 회장이셨고, 당시에 경제인단체연합회의 회장님이셨습니다만, 사실은 FTA 얘기까지 한 것은 당시 이마이 다카시 회장님께서 이런 제안과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업간에 제휴이면서도 상당히 먼 안목에서 또 이 지역의 큰 경제적 발전을 위한 그런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협력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부문에 대해서는 생산·조업기술 뿐만 아니고 R&D 부문을 전부 다 공개했습니다. 수십 가지 R&D를 전부 다 공동연구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공동특허출원 건수는 1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부문, 각종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료, 기자재나 자재, 이런 부문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하고, 공동으로 구매를 하고, 또 구매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싸고 좋은 기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했고, 기존시장이 아닌 새로운 시장으로써 스틸하우스라던가 스틸캔 부문을 공동으로 시작을 개척해 나가는 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작은 협력은 물론이고, 인력 교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정책부문이라던가, 법무부문이라던가, 양사의 직원들을 파트너 회사에 보내 가지고, 작년만

해도 8명이 新日鐵에서 포스코에 오고, 또 저희 직원이 포스코에 가서 아예 직원으로서 같이 근무하는 그러한 교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때 또 많은 교류가 있던 부문은 IT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新日鐵은 新日鐵대로 ERP라든가, 소위 IT경영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었고, 또 저희 포스코는 포스코대로 업무혁신과 ERP, 또는 SCM, Supply Chain Management라든가 하는 IT 경영기술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서로가 전부 다 공개해서, 경영내용 전체를 그냥 서로가 조금도 숨김없이 다 밝히고, 교환하는 그런 협력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업차원에서 일본의 철강연맹과 한국의 철강협회가 처음에 주동이 돼 가지고서, 양국간의, 제3국간의 통상마찰을 미연에 방지하는 활동들을 시작했습니다. 이 때는 '스틸 다이알로그'라는 이름으로 일본은 산업경제성의 담당공무원, 그리고 한국은 현재 산업자원부의 철강부문 담당공무원까지 같이, 민간이 같이 철강부문에 대한 통상협상들을 사전에 추진해 왔고, 이것은 나중에 한일뿐만 아니고 한일, 한중, 대만에 이르기까지, 또 일본은 일본대로 일중, 일본·대만에 이르는 다이알로그, 즉 대화를 할 수 있는 체제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통상, 소위 FTA를 앞두고 양국 산업체가 가지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해서 사전에 이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지금 양국이 가지고 있는 통계, 용어들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전부 다 일치시키는 일들을 2003년부터 시

작을 했고, 그 다음에 각종 제품의 규격이라든가, 표준화 이런 것을, FTA를 전제로 한 활동을 2004년부터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사간의 협력의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가치가 상당히 상승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상당히 마찰이 있었던 양국의 철강교역이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8년에 양국이 전부 다 경기침체여서 대단히 교역량이 줄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1,090만 톤으로 교역량이 오히려 늘었고, 그렇다고 해서 조금도 마찰이 있었던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기록은 안 되었습니다만, 양국의 철강업체들이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국이 서로가 시장을 고려한, 다시 말하면 한국과 일본의 철강산업이 상호보완적인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시장을 개방한 채로, 이것은 필요 없는 중복되는 시설을 양국이 보유하지 않아도 되고, 아니면 보유한 시설을 갖다가 한국이면 한국, 일본이면 일본에 수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끔 서로가 보완적인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동안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산 냉연소재를 쓰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철강산업끼리 이것을 공유한 다음부터는 한국의 당시 그 생산과잉, 시설과잉, 다시 말해 한국의 수요의 약 2배 이상의 시설능력을 가지고 있던 냉간압공장에서 나오는 냉간압제품을 일본에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97년에 40%가 2003년

에 50%로 비교적 늘어났습니다. 그 후에 정상적으로도 공동 R&D라든가 또는 구매정보의 교환을 통해서 서로가 생산성이 향상이 되었고, 또 기술개발력이 강화되고, 중복투자가 줄어들어서 해서 대단히 원가절감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상 마찰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계, 표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아마 한일간의 FTA가 체결이 되게 되면 철강산업 쪽에서는 큰 저항 없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국적은 다르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협조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 외부적인 환경이라는 것이 서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 아니면 그런 공통인식을 가졌다는 것이 배경이 되었고,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역시 기업간의 상호신뢰·상호존중,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또 양사가 조금도 숨김없이 모든 정보를 공개했다는 것, 그런 관계가 이러한 성공적인 협력결과를 낳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를 가지고서 앞으로 한일 산업간의 협력, 이러한 것이 활성화되게 되면 수많은 경쟁국가·경쟁기업들을 상대로 우리 자신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산업간의 협력의 성공사례, success story가 앞으로 FTA를 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新鐵과 포스코 간에 전략적 제휴를 할 때 산업간·국

가간의 협력체제로까지 발전시키도록 조언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이마이다카시 新II鐵 명예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만, 저와 같이 일을 주도해 왔던 지금 新II鐵 회장인 치하야 아키라씨에게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成在甲 코디네이터 :** 네. 유상부 고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양사간의 협력관계가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좋은 성공사례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측 백그라운드 페이퍼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마상, 부탁드립니다.

**飯島 英胤 코디네이터 :** 그러면 일본측의 백그라운드 페이퍼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시멘트(주)의 사메시마 후미오 사장님으로부터 '소재산업에 있어서의 한일경제연계의 사례와 향후 전망'이라는 타이틀로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사메시마 사장님은 게이오대학을 졸업하시고, 오노다시멘트(주)에 입사하셨습니다. 같은 회사의 경리부장을 거쳐서, 이 회사는 치치부시멘트(주)와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치치부-오노다(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사역 경리부장, 그리고 상무이사 경리부장을 거쳐서 1998년에 이 치치부-오노다(주)와 일본시멘트(주)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탄생한 태평양시멘트(주)의 상무이사, 그리고 2002년부터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메시마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 (2) 日本側 백그라운드 페이퍼

### 「素材産業의 韓日 經濟連帶 事例와 向後 展望」

**飯島 章男**

太平洋시멘트(株)  
社長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 방금 소개를 받은  
태평양 시멘트의 사  
메시마라고 합니다. 오늘은 소재산업에  
있어서의 한일 양국의 경제연기산업으로  
써 저희 회사의 쌍용양회(주)에 대한 자  
본참여를 통한 한국 시멘트 산업에 있어  
서의 기업재건협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왕 이런 기  
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선은 태평양시멘  
트 그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태평양시멘트(주)는 1998  
년에 치치부-오노다(주)와 니혼시멘트(주)  
가 합병해서 탄생한 회사입니다. 그 기원  
은 18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대  
일본의 국토건설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120년의 세월을 거쳐 왔습니다. 현재 저  
희 회사는 일본 국내에서 시멘트 판매 점  
유율의 약 36%를 차지하는 탑메이커로서,  
지난해의 시멘트 판매량은 국내 2,162만  
톤, 수출 370만 톤으로 합계 2,540만 톤이  
라고 하는 실적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국내 시멘트 수요는 공공투자가  
감축되면서 1990년도의 8,628만6천 톤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으  
며, 올해는 5,700만 톤 정도로까지 떨어지  
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본의  
시멘트 산업은 합병이나 경영통합, 그리

고 해외 시멘트 대기업들과의 자본제휴 등을 통해서 각종 합리화 및 효율화를 실시하면서 수요 침체 하에서의 경영기반 강화에 힘을 써 왔습니다. 그러나 대세적으로 공공투자 감축기조는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멘트의 국내수요 감소는 어디서 바닥을 칠지,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당분간 국내의 모든 시멘트 회사가 어려운 경영환경을 감내해야 하는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회사는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을 일찍부터 예견을 해서 국내 시멘트 산업 이외의 사업영역을 확대할 것, 즉 경영 다양화와 글로벌화를 지향하면서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사내 컴퍼니제를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7개 컴퍼니로 나누어서 국내 시멘트 사업, 자원사업, 환경사업, 건축재료산업, 세라믹·일렉트로닉스 사업, 부동산사업, 그리고 해외사업 이렇게 7개를 각 컴퍼니별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전개는 500개사가 넘는 자회사 및 관련회사가 일체가 되어서 추진되고 있으며, 태평양 시멘트 그룹은 국내 시멘트 사업의 진일보한 외향적 발전을 지향하며 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외에서의 시멘트 사업 전개는 태평양을 둘러싼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는 일본 국내 시멘트 생산량과 거의 맞먹는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시멘트공장 12개에 대해서 해외 공장 10개를 보유하는 그런 상황까지 다다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시멘트 산업을 성숙산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시멘트산업은 아직 성장산업입니다. 또한 이미 진출한 미국의 서해안 지역에서도 시멘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태평양 지역에 지리적 분산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글로벌하게 시멘트사업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회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경제인회의, 즉 WBCSD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멘트산업부회에서 각국을 대표하는 시멘트 기업들과 함께 '지구환경 보존대책' 등 중요한 과제에 대한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순환형 사회형성이라는 인식하에 대량의 폐기물이나 부산물의 처리 및 재자원화를 지금까지 축적해 온 재활용 기술을 충분히 살려서 실행하고 있으며, 지구환경 보존에 공헌하는 기업그룹으로 발전할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연간 배출되는 산업폐기물, 그리고 일반폐기물의 양은 약 4억5천만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산업에서는 이 가운데 약 6%인 2천7백만 톤의 폐기물 재자원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멘트산업은 사회 자본재를 공급하는 동맥산업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자원 순환형 사회를 지탱하는 정맥산업으로서의 역할이 일본에서는 중시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구 온난화가스 대책, 그리고 자원 순환 시스템의 구축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 회사 그룹이 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저희 회사 그룹의 사업전개를 이해하신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쌍용양회공업(주)에 대한 자본참여를 통한 한일시멘트사업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쌍용양회공업(주)는 1962년에 창업을 한 한국 최고의 시멘트기업입니다. 1997년에 외환위기를 비롯한 경제위기가 한국을 덮쳤습니다. 그 이듬해인 1998년도에 한국의 시멘트 수요는 97년도의 6천2백만 톤에서 30% 정도 감소해서 4천5백만 톤까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쌍용그룹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쌍용그룹은 시멘트사업의 특화 및 집중을 위해서 자동차, 정유, 중공업 등 그룹계열사를 매각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만, 이러한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쌍용양회가 받은 타격을 완벽하게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외자도입을 결정해서 저희 회사에 자본참여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회사와 쌍용양회는 2000년 이전부터 연구개발, 신규사업, 그리고 시멘트 생산기술, 해외사업 등의 분야에서 깊은 교류를 맺어 왔습니다. 그 쌍용양회로부터 자본참여 제안이 있었던 것이 2000년 가을이었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회사의 아시아의 시멘트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에 아시아 통화위기가 발생하고, 각국의 경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멘트산업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에 구미의 시멘트 메이저라고 불리는 국제 자본들이 자금난에 빠진 동남아시아의 시멘트 기업을 잇달아 산하에 흡수하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아시아에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예

를 들어서 필리핀에서는 생산능력이 90%, 인도네시아는 65%가 유럽의 시멘트 대기업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의 대기업인 라파즈가 이미 진출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 국내의 시멘트의 수요는 사회자본 축적과 함께 축소경향에 있으며, 이 경향은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희 회사가 시멘트 회사로서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사는 쌍용양회의 시멘트 제조업체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쌍용양회가 경영위기를 맞게 된 것은 시멘트 이외의 사업실패가 그 주된 원인이었고, 시멘트사업에서 경쟁력을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쌍용양회가 시멘트사업에 경영자원을 집중하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과는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나라인 동시에 一衣帶水의 지리적 조건하에 있습니다. 이에 쌍용양회의 요청에 따라서 당사는 2000년 10월에 보통주 2,085억 원, 우선주 1,564억 원을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일본 엔으로 하면 각각 200억 엔과 150억 엔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한 개 기업에 대한 투자로는 최대 규모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4년 남짓 쌍용양회의 관계자는 그야말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재건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묵묵히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해 왔는데, 올해가 드디어 그 구조조정의 마지막 해이며, 어떻게 해서든

연말까지는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을 시멘트의 원료 및 연료로 활용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폐기물은 천연자원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제조원가를 낮출 수가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이를 리사이클자원, 재활용자원이라 칭하고 있습니다만, 그 종류는 실로 다양하여 재활용자원을 활용하는 기술의 유무가 시멘트 제조원가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 기술을 당사에서 쌍용양회로 이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염소를 다량 함유한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게 되면 제조공정에서 문제발생의 원인이 되고, 제품의 염분농도에도 역시 규제가 있습니다. 이 염소를 제거하는 기술을 당사가 쌍용양회로 이전함으로써 폐기물 사용량을 늘릴 수 있게 되었고,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당사가 일본 국내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쌍용양회에 적용시킨 결과, 재활용 자원의 사용 원 단위가 70%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시멘트공장의 설비관리 수준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운전률이 상승하였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연구원의 연수제 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쌍용양회의 연구원이 6개월간 당사의 연구소에서 과제를 연구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돌아가서 현장에서 활용하여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보유한 물류네트워크의 활용도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태평양 지역에 시멘트 수입 터미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해안에도 시멘트 수입 터미널을 몇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시멘트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쌍용양회의 시멘트도 이러한 당사의 물류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노동조합, 인사부문간의 교류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쌍용양회의 노동조합 임원이 인사담당부문 직원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여 시멘트공장 견학과 당사의 노동조합, 인사부문과의 교류를 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노동조합 문제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저희는 심각한 사태를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쌍용양회는 인재가 풍부합니다. 당사의 파견자와 함께 서로 보완하고, 서로 협력하는 나날을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경영과제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시멘트시장은 약 20억톤인데, 그 중 40% 이상은 2위와 큰 차이를 보이는 1위, 중국입니다. 중국은 매년 수천만톤 단위로 계속 확대되는 거대한 성장시장입니다. 2위가 인도로 1억2천만톤, 3위가 미국이며 1억1천만톤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그 다음으로 2004년도에는 일본이 5천7백만톤, 한국이 5천5백만톤으로 거의 같은 규모입니다. 일본의 인구는 1억2천8백만명, 한국의 인구는 4천7백만명이므로 한국의 1인당 사용량은 1톤을 넘는데요, 이와 같은 국가는 선진국가 중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합하면 인구 1억7천5백만명에 1억1천3백만톤의 시멘트시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유럽 4개국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을 합하면 대략 인구는 2억4천만명이고, 시장규모는 1억2천만톤입니다.

1억 톤 이상의 시장을 열거해 본다면 중국, 인도, 미국, 유럽 4개국, 그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이며, 이를 통해 세계 속에서 한일 시멘트시장의 집중도 및 중요성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멘트는 국가구축의 근간을 이루는 상품입니다. 일본에서는 시멘트산업은 성숙 산업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폭발적으로 소비가 늘어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서히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시멘트시장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 본다면, 또 다른 전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시멘트업계는 사회와의 관계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시멘트라는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안정적이며 안전하게 처리하고, 재자원화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시멘트산업의 새로운 사명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환경사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멘트업계와 이러한 측면의 협력관계 구축도 생각해 합니다. 지난 2월 16일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습니다. 시멘트 제조공정은 많은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적지 않아서 일본의 시멘트업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축의무를 지지 않는 국가라고 들었습니다. 2013년 이후에 규정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불분명하지만, 일본이나 한국이나 모두 그 규정의 역할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한일의 시멘트업계가 함께

지혜를 짜 내고 협력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간의 경제협력관계의 발전에 따른 최대 이점은 인적교류의 증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역으로 인적교류기회의 증대가 경제협력관계의 부차적인 발전단계의 초석을 이룬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자신 이처럼 여러 차례 한국에 오게 되리라고는 10년 전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주 방문하고, 또 방문할 때마다 한국의 공기를 마시고, 한국의 자연과 풍경을 보고, 한국의 음식을 먹고, 또 전통문화를 접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한국, 그리고 한국의 시멘트업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새로운 발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에 머물지 않고, 양국 시멘트업계의 인적교류를 촉진해 나간다면, 이 지역의 시멘트업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약간 비약되는 것 같지만, 모든 산업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일의 FTA야말로 인적교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크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인적교류의 효과는 좀처럼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코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인적교류에서 얻어지는 이 플러스알파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로 한국에 투자를 한 제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켜보면 2000년 10월 쌍용양회에 대한 자본참여 이후 재건하는 과정에서 실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한국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등 관계자 여러분의 절대

적인 지도와 또 지원을 받으면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물론 아직 중간 단계에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날까지 이렇게 꾸준히 재건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체험 섞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飯島 英胤 코디네이터** : 네. 사메시마 사장님, 감사합니다. 시멘트라고 하는 일본의 성숙산업이 세계, 혹은 글로벌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성장산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의 쌍용양회에 대한 자본참여를 계기로 양사간에 글로벌한, 물류를 포함한 교역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적교류의 중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사메시마 사장님으로부터 이렇게 실감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재갑 코디네이터님 부탁드립니다.

**成在甲 코디네이터** : 발표를 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10시 10분까지 20분간 커피 브레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됐습니다만, 10시 10분에 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Coffee Break>

### (3) 自由討論

**成在甲 코디네이터** : 자유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측으로부터 '한일 철강협력 성공사례와 향후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일본측으로부터 '소재산업의 향후 경제연대사례와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를 배수로 해서 여러분들의 폭넓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표 테마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나 질문 등이 계신 분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무선마이크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는 마이크를 받으시고 회사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의견이나 질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발표시간은 5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程勳 仁川大學校 教授** :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 동북아통상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정훈입니다. 우선 사메시마 사장님의 시멘트산업 한일협력사례에 대한 발표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사메시마 사장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일간의 바람직한 경제협력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단순히 한일 양국뿐만이 아니고, 중국의 존재까지도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990년대에 일본이 헤이세이 불황에 빠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굉장히 무서운 기세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기업은 당연히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보다는 중국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한중간의 교역관계는 한일간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급격히 증대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흑자를 보고 있습니다만, 일본에 대해서는 부품 및 원자재의 수입 때문에 2백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한 만큼 일본이 한국에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 내의 투자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역시 중국의 시장규모, 임금수준 그리고 법인세를 비롯한 투자환경 때문에 일본의 투자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는데 있다고 봅니다. 결국 한일간의 경제협력 문제도 한중일의 3국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한지, 경영에만 전념하시는 기업인으로서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생각이 되지만,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鮫島 章男 太平洋시멘트(株) 社長 :** 그러면 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는 중국의 시장이라는 것은 이미 충분히 커졌다고 생각하고, 세계 20억 중에 90톤이 중국시장의 수요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장은 앞으로 자유주의경제, 시장경제라는 것을 봤을 때는 당연히 호황을 이룰 것이고, 또 불황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장의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일본의 시멘트협회 회장직도 맡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시멘트협회 회장님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사태가 앞으로 올 것이라

는 견해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는 저도 아직 생각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태평양시멘트로서는 이미 중국에 세 개의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대련과 남경과 순둥, 세 군데에 공장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 공장만으로는 중국의 시장 전체를 좌우하는 그러한 힘은 없습니다. 이 세 군데 공장 합해봤자 600만 톤, 700만 톤 규모입니다. 따라서 9억 톤의 중국시장을 봤을 때는 미미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9억 톤이라는 숫자 안에는 저희가 영구구조물로 만들 수 있는 품질이라는 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 9억 톤 중의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경악하고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장차 중국의 시장이, 중국의 경제가 더더욱 거대해질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모든 분들께서 동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대로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해서 그러한 중국의 힘에 대해 방어를 해나갈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의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高島 正之 三菱商事(株) 取締役副社長 執行役員 :** 미쓰비시 상사의 다카시마라고 합니다. 방금 한일경제협회의 유상부 부회장님 및 그리고 사메시마 사장님으로부터 아주 내용이 농도가 있는,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발표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상부 부회장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질문이라고 하기 보다는 제 의견, 코멘트라고 할 수 있겠는

데요, 한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이라고 하는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기업, 이것은 철강업계뿐만이 아니라 정부를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일 양국의 이러한 회사의 긴밀한 협조가 1998년 이후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아주 든든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향후의 한일 양국의 FTA를 생각을 했을 때는 역시 이와 같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례가 향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철강업에 대한 용어라든지, 표준이라든지, 물론 FTA를 하다보면 모든 분야와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이 필요해집니다, 이런 것과 관련을 해서 협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정말로 든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한일 FTA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을 해야만 합니다. 금년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아직 잘 진척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방금 전에 또 다른 분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상호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철강협회, 그리고 시멘트도 마찬가지로인데요, 이러한 협력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기업에서의 사례를 모델케이스로 해서 지금 현재 이해가 부족한 업계에 개별적으로, 업계별로 이러한 이야기들,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는, 즉 분위기를 리드하는 그러한 노력이 바로 이 경제인회의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일 양국간에 어제 나온 이야기에서도 깜짝 놀랐는데, 연간 4백만 명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일본에 오는 외국인의 숫자는 보통 5백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게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한일 양국이기 때문에 FTA를 실현하는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업계별로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의 사례를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일본제철과 포스코 간의 협력은 대단히 폭넓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설명을 아마 생략을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역시 환경이라든지, 에너지의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부족한 자원문제, 그리고 사메시마 사장님도 말씀을 해 주신 자원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활용 기술문제라든지, 그리고 에너지절약문제, 지구온난화대책,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해서 정말로 신일본제철, 포스코, 이러한 회사들이 그런 틀 안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이미 발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여한다, 안 한다, 의무가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그런 것은 차치하고, 여하간에 전세계적으로 온난화가스가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간에 이러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리사이클문제도 포함을 해서 향후 검토과제로 의제에 이것을 포함을 시켜 주신다면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이러한 것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成在甲 코디네이터** : 그럼 유상부 부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劉常夫 (株)POSCO 顧問** : 포스코와 新II鐵간의 협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의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격려로 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환경에너지 자원문제, 리사이클링, 지구온난화 등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까만, 그동안 新II鐵과 포스코는 이 부분에 많은 공동연구, 또는 공동대응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은 비단 양사간의 협력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일본 철강업체와 한국 철강업체가 같이 세계철강협회(IISI)에 지금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교토의정서라든가, 유엔 기후변화협상에 따른 가스억제, 이런 데 대해서 기술적인 공동연구, 이런 것들도 철강협회의 레벨에서 같이 하도록 제안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주로 유럽의 철강업체하고,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하고 한국의 포스코가 참여하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답변이 앞으로 돌아갑시다만, 사실 FTA를, 목표로는 금년 중에 하겠다고 말로만 해 놓고, 실제로는 지금 전혀 안 움직이는 게 너무나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본과 한국간은 사실상 산업간의 협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라인을 잘 활용하고, 또 사전에 FTA에 따른

서로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합의를 산업 쪽에서 먼저 한 후에, 그 내용을 정부에 알려주게 되면 보다 빨리 양국간의 경제협력 체제가 달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행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삼성하고 소니도 그런 업무상 제휴를 해 가면서, 상당히 많은 협력체제, 또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成在甲 코디네이터** : 답변이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분...

**高杉 暢也 韓國富士제록스(株) 最高顧問** : 한국 후지제록스의 다카스기입니다. 지금 서울재팬클럽의 이사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부회장님 말씀 대단히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쓰비시상사의 다카시마씨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제 의견을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 아주 대단히 좋은 모델케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상부 부회장님께서 새로운 break through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시다만, 이런 말씀 가운데 조금 전에 다카시마씨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도 한국에서 경영을 하면서 FTA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저희 회사에서도 이 협력 내용에 있는 기술협력이라든지, 구매, 신수요 개발, 경영자원 개발, 이러한 것이 저도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와 같은 작은 회사가 이런 얘기를 해도 별로 귀를 기울

여주지 않지만, 철은 국가의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의 모델이 이번에 이 제1분과 회의, 그리고 FTA에 있어서 모델사업이 되는 바에 있어서 만약에 한일 FTA가 더 빨리 체결됐으면 이렇게 높은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물론 충분히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력성으로써 여기에 나와 있지만, 만일 FTA 인증제도도 공동화되고, 관세도 철폐되고, 비자도 다 면제되고, 인적교류도, 정보교류도 더욱 더 원활해지면 실은 이렇게 큰 효과를 전망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다가 더 포함시켜 주시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부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꼭 이것이 break through 되도록, 도입이 되도록 하는 것을 제가 외람되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劉常夫 (株)POSCO 顧問** :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설명한 파워포인트의 2페이지에 보게 되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일간에 FTA 체결이 되면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0.3 내지 0.4% 올라갈 것이다, 일본은 0.1%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경제전문기관의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별로 얘기하게 되면 또 끝없이 많은 게 있겠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新日鐵하고 포스코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기술부문, 구매부문, 신시장 개척이라든가, 경영자원 자체의 전체협력을 했었는데, 이것이 성공하게 되는 큰 요인, 또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협력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일본이 훨씬 더 기술이

라든가 management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협력을 받는 측에서는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소위 최신의 기술, 가장 좋은 훌륭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최첨단기술은 감춰 놓고, yesterday's technology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때 한국도 그러했고, 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기술 원조를 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의 지도자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일본은 스커트를 무릎 위까지는 안올린다' 숙녀분들께 실례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표현으로 협력에 다소 감추는 부분이 있다는 식의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협력이 잘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서로가 공개할 때 그 때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또 新日鐵하고 포스코가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아시다시피 포스코를 창립할 때 엔지니어링부터 건설, 조업, 정비 일체를 포스코가 新日鐵로부터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新日鐵은 포스코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었으면 반드시 협력체제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공한 것은 포스코는 명백히 新日鐵이 우리의 스승이었다는 사실을, 그 감사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新日鐵은 포스코를 가르쳤기 때문에 오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로의 자세가 신뢰에 이르게 되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점점 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핵심역량을 공개하고, 상호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산업부분도, 특히 한일간의 협력에 있어서는 서로가 가진 가장



베스트를 서로가 내 놓고,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成在甲 코디네이터 : 다음 질문하실 분...

渡里 杉一郎 (株)東芝 相談役 : 도시바의 와타리라고 합니다. 두 분의 이야기, 상당히 흥미 있게 들었습니다. 특히 사메시마 사장님의 이야기는 시멘트에 대해서, 저는 결코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더 시멘트에 대해서 많은 공부도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본과 한국의 시멘트시장의 규모, 거의 5천5백만 톤에서 5천7백만 톤으로 비슷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억2천8백만, 한국이 4천7백만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1인당 시멘트의 사용량이 일본의 2배 이상이 됩니다. 이처럼 큰 격차가 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시장의 구조라든지 시멘트에 사용되는 방법이 한일 양국이 다릅니다. 그러한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세계 시멘트시장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이라든지, 한국의 15배 이구요, 또 매년 수천만 톤씩 시장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파워에 대한 방어라고 하기 보다는 그 규모라고 할까요, 그러한 성장에서 오는 다양한,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라든지 혹은 폐기물처리라든지 이러한 내용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리고 한일 양국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메시마 사장님의 견해를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鮫島 章男 太平洋시멘트(株) 社長 : 국민 1인당 시멘트 소비량은 일본과 한국간에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나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본과 한국, 이것은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만, 시멘트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영구적으로 하나의 구조물로서 남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축적량이 어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역시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혹은 또 한 가지 견해로서는 경제발전의 단계가 어떠한 단계에 있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요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미 30억 톤의 시멘트가 축적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본래 이것은 문화의 차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유럽은 그야말로 돌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는 다릅니다. 일본은 나무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일찍 성숙산업이 된 것은 돌문화의 유럽이었습니다. 거기서 시멘트가 먼저 성숙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 중에서도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시멘트의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세계 시멘트산업의 거대산업 중의 하나로 되어 있을 정도로 역시 그 나라의 경제의 성숙도, 혹은 문화적인 차이, 이러한 것이 크게 수요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자면, 동남아시아의 젊은 국가들,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국가들도 이미 1톤이 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경제발전의 정도에 따라서 인프라의 정비를 한다는 의미에서의 수요량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500만 톤이 안 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데요, 정부 인프라로써 정비해야 될 부분이 아직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포함을 해서 지금 재정적인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지금 현재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하간에 한 사람당 시멘트의 소비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국가의 경제발전의 정도, 혹은 그 경제의 성숙도의 정도,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중국의 시멘트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9억 톤으로 그 플랜트의 숫자도 4천, 혹은 5천 정도가 됩니다. 저희 근대적인 로터리를 사용한 시멘트 제조공정은 아직도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품질이 불안정한 것들 밖에 만들 수 없는 서프터킬이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온난화가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서 하면 좋을지 제 자신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간에 한국이든, 일본이든 기후변동은 서쪽부터 옵니다. 중국의 영향 하에 기후가 속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역시 지구온난

화가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큰 문제로써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일찍부터 그러한 문제에 눈을 뜨고,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시멘트 협회와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인식이 아직은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중앙정부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높은 인식을 갖고 계신데요, 실제로 산업단계까지 내려가서 생각을 해 보면 아직 인식이 거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행히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혹은 부산물을 리사이클해서 재자원화 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은 전세계에서 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러한 기술을 제공할 하고, 알려드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都亨 啓明大學校 國際學大學 教授 : 계명대학교의 김도형입니다. 양국의 소재 산업을 리드해 가시는 두 분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여러 방면에서 협력이 아주 성공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가능하면 이 두 개 업종만이라도 양국의 한일FTA를 위해서 이런 성공사례들이 각 업종으로 확산이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일FTA가 여러 경제외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양국의 특히 식자물간에 비관세조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상부 고문님께서, 특히 그동안 한일 FTA 논의가 시작되는 그 당초부터 동북아철강공동체를 제창을 해 오셨습니다.

오늘 또 그 성공사례 등등을 열거하시면서 이 문제를 계속 주장을 하고 계셔서 제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런 협력사례들이 확산되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해가 업계를 출발점으로 해서 좀 확산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일본제철은 산하에 계열사를 한 29개사 정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스코는 한 7개사 정도 계열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신규 진입업체들이 계열사들은 결국 모기업의 제품을 대략 한 70% 정도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 외의 기업으로부터 구입할 필요는 굉장히 낮아서 각각 시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종종 저희들에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비관세장벽의 일종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상부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사례 요인을 볼 것 같으면 각종 기술협력, 신시장 개척, 표준화 등등의 효과를 본다면 오히려 계열기업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것이 그런 협력사례를 더 확산시켜 갈 수 있는, 말하자면 네트워크를 더 강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계열화가 이런 협력확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오늘 문득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이런 기업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특히 학자들은 '계열'하면 미국이 일본과의 통상마찰에서 중시했던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미국이 주장하는 '계열'이라고 하는, 그냥 부정적인 요

인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인가, 계열외거래도 좀 확산시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걸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후자에 관한 한은 제가 생각하건데 1차, 2차 가공전문업체들도 좀 차제에 기술을 고도화시켜 갈 수 있도록 협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가능하다면 신일본제철이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가공전문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식으로, 또 포스코가 일본의 가공전문업체, 아니면 인도네시아, 중국의 가공업체들도 기술을 고도화시켜 간다면 더 확산시켜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劉常夫 (株)POSCO 顧問** : 일반적으로 계열사라고 하게 되면 일부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또 일본에서 그 그룹이란 이름으로, 아니면 대규모 기업집단 형태로서 일부 내부거래, 소위 정당하지 못한 불공정 거래를 통해서 탈세를 하거나, 또는 기업의 가치가 분식이 되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고도경제성장과정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금융도 기업의 내재가치보다는 외형의 성장이라든가, 심지어 부동산을 얼마 가졌냐 하는 식으로 기업 가치를 따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계열사라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쌓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말하는 소위 conglomerate, 또는 다국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런 것은 전혀 없죠. 그것은 결국은 그만큼 경영을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계열사가 얼마가 있든, 그것

이 국적이 어디이든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국내의 많은 대기업집단들이 앞으로 이러한 인식을 벗어나는 공정한 거래, 그리고 투명한 경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계열사라는 것은 필요하다면 많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의 경영이라는 것은 정보의 공유라는 것이 큰 경영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계열사가 되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소중한 기회를 살릴 수가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러한 계열사는 우리가 볼 때 국내적인 것하고, 또 해외경쟁력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일부 사람들이 국내에서의 경쟁력만 가지고서 비교를 하는데, 사실은 기업이 성장하고 국가경제가 발전을 하려면 기업이든지, 국가의 통치든 간에 국가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내의 계열사군도 다른 나라가 그러한 형태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상의 형태를 갖추고서 경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계열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FTA가 된다는 것은 뭐니까? 결국은 역내에 가입국가운데 시장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시장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국가에 가장 맞는 자원을 활용하거나, 인력을 활용하거나, 하여튼 그것이 형태가 계열사가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그것은 제한의 대상이 아니고, 경쟁력을 갖추고 또 국가나 그 지역의 경제에 기여한다 그러면 그런 형태를 가지고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新日鐵에, 한국에 얼마든지 계열사

를 만들 수 있고, 또 포스코나 한국의 산업체들이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얼마든지 그런 계열사라든가, 전략적 제휴를 가진 그런 관계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은 조금도 저지되어선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成在甲 코디네이터 : 답변이 충분합니까? 또 다른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麻生 泰 麻生라파츄시멘트(株) 社長 : 아소라파츄시멘트의 아소라고 합니다. 사메시마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리사이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신지요? 그것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태평양시멘트의 주도하에 지금 가능한 한 처음 사용되는 버진 연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가능한 한 온존을 사켜서 리사이클의 재료로 사용하는 이러한 노력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점토라든지, 철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러한 버진 재료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리사이클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비용절감에도 연결이 되지만, 그 이상으로 버진 재료를 온존시키고, 일본은 또 섬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립되고 있는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을 오히려 원료, 재료로써 사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립지의 연명책으로도 이것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아주 효과 있는 방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한국에서 잘 받아들이 주셔서 가능한 한 버진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플라스틱을 리사이클을 해서 연

료를 만들어 낸다든지, 지금 일본에서 인정받고 있고, 기대되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서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신지요?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鮫島 章男 太平洋시멘트(株) 社長 :** 폐기물,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각국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쌍용시멘트에 대해서 기술제휴를 하고 있는 것은 페타이어의 처리, 즉 자동차의 페타이어의 처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쌍용시멘트는 그것을 연료의 일부로써 사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외의 폐기물 리사이클에 대해서는 각 국가마다 발생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일반 가정 쓰레기가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혹은 각 산업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이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가능성은 달라지고, 또 오히려 폭도 넓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이렇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회수하고, 혹은 소각 처분을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이처럼 소각된 후에 그 재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는지 아직 잘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일본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 폐기물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폐기처

분을 한 다음에 그 재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 말씀 드리고 이것으로 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하는데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成在甲 코디네이터 :** 한국의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럽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분류가,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입이지만, 철저하게 되기 때문에, 재생을 하는데 크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데, 아직 한국은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분류가 가정에서 나올 때부터 완전히 되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재생공정에 있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에서 플라스틱 재생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폴리에틸렌 쪽은 거의 다 재생이 됩니다만, 그 이외에 다른 플라스틱은 재생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태고, 일부 시범적으로 재생을 해서 나온 처리물을 가지고 지금 시멘트를 만드는 공장의 연료로 쓰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는 뒤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亨哲 LG化學(株) 部長 :** LG화학의 이형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발표를 해주신 유고문님과 사메시마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한일FTA 체결은

양국 GDP 성장효과 등 많은 장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세율 차이, 현재 일본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약 2.5%인 반면에, 한국의 對日 평균 관세율은 약 7.9%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국 관세율 차이로 인해 양국 관세율 인하에 따른 경쟁심화가 우려가 되고, 또한 특정 산업에 있어서의 효과의 불확실성과 저부가가치 특화문제 등의 여러 쟁점들을 고려해볼 때, 한일 분업구조가 수직적인 산업간 분업보다는 수평적인 산업 내 분업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오늘 주제발표를 해 주신 한일철강산업, 그리고 시멘트산업에서의 양국의 대표적인 회사들간의 협력의 성공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유고문님께 한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미탈스틸의 경우, 합병이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ISG의 생산량을 포함하면 조강생산량이 약 6천만 톤을 넘어서면서 세계 최대의 철강회사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듯 세계 철강업계에서는 M&A를 통한 대형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의 전략, 특히 신일본제철과의 협력관계 관점에서의 전략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메시마 사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2000년에 쌍용양화에 대한 자본참여 이후 지금까지 재건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으며,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90년대 초 일본버블경제 후 감축되어 온 일본의 공공투자 및 주택 등 건설 분야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한일 양국간

의 FTA 추진과 관련해서 한일 건설산업간의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成在甲 코디네이터** : 두 분한테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유고문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메시마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劉常夫 (株)POSCO 顧問** :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탈스틸이 미국의 ISG를 합병함으로써 6천만 톤, 거의 7천3백만 톤 정도의 생산규모, nominal capacity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강역사상 가장 큰 철강회사가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셀로가 4천3백만 톤, 4천5백만 톤을 넘는 훨씬 큰 규모의 철강업체가 대두되면서 지금 대형화에 의한 경쟁력을, 이 경쟁력을 다시 쪼개면, 지배력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철강업계의 변화, 사실은 철강업체의 대형화뿐만 아니고, 원료, 특히 철강석을 중심으로 한 원료공급업체의 대형화라는 것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브라질의 CVRD라든가, BHP 플리턴, 또 그 다음에 해서 3개 철강석회사가 세계 철강석의 73%를 공급하는, 그 밑에 약 300여 개의 철강업체가 매달려 있는 그런 꼴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철강업체들도 대형화에 의한 소위 nego power라고 그럴까, 협상력을 키우고 하는 여러 가지 전략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포스코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형화에 의한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구요, 또 철자같은 기술력을 가지고서 지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러면서 소위 그러한 대형화라든가 아니면 경제, EU라든가 NAFTA라든가 이런 보호 속에서 일본이나 한국의 철강업체들도 많은 지금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JFCT에서 연달아 명문의 NKK하고 KSC가 합병해서 이제 새로운 철강업체로서, 소위 규모의 대형화를 통해서 많은 중복되는 기능과 시설들을 가져다가 정리함으로써 이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포스코도 현재 지금 약 3천만 톤 정도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제 5위 수준의, 만약 생산능력만 가지고 비교한다면,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익규모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적어도 작년 결산을 보게 되면 규모는 5위지만은 이익규모라는 것은 제1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기술 지배력, 그 다음에 시장지배력하고 직결되어 있어서 규모가 작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시 규모의 크기라는 것은 경쟁력에 큰 받침이 되기 때문에 최근의 포스코로서는 중국과 인도에 새로운 제철소를 건설해서 규모를 확대하는 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 말은 잘못 듣게 되면, 대단히 sensational하기도 하고, 민감하기도 합니다만, 新日鐵과 포스코의 합병이란 방법을 통한 대형화라는 것도 전혀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처음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 계시는 이마이 회장님하고, 치하야 사장, 저하고 같이 앉아서 셋이 얘기할 때 그때부터 이 문제는 나온 것이고, 처음에 이 설명을 한 다음에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도 똑같은 질문이 나와 가지고, 언제 합병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 때 제가 답변한 것이 '이것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시장이, 철강 시장이 결국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것은 新日鐵도 포스코도 항상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때 양사뿐만이 아니고, 아시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철강업체까지 같이 포함해서 처음에는 느슨한 제휴관계, 이것은 표현이 정치적 표현이지만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서로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합병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을 당장 또 여기 기자님 계셔가지고 '합병한다 하더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비단 그것은 철강업뿐만이 아니고, 세계의 모든 산업들이 그러한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鮫島 章男 太平洋시멘트(株) 社長 :** 네, 그럼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영정상화 가운데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의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방대한 차입금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이 문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재건의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자신의 채권을 버리면서 재건을 하게 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차입금을 자본으로 영입하는 식으로 회사재건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한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금융 쪽에서 쌍용의 재건에 대해 얼마만큼 열의를 갖고 하셨는지, 그 부분이 저희가 가장 걱정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금융권 쪽에서 대단히 어렵게 도와줬던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금융채권을 자본으로 돌렸기 때문에 부채는 작아졌지만, 자본금은 그만큼 커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배당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화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배당을 할 수 있는 회사여야 정상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팽배해진 자본을 앞으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이러한 과정이 바로 올해 밟아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일본의 건설투자의 전망 유무 등등인데요, 현재 일본의 건설투자는 연간 52조 엔 정도, 이것은 공공투자, 민간투자를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당분간은 이 52조 엔이라는 것은 약간 떨어질 가능성은 있겠구나 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최대의 이유는 역시 공공투자가 조금 더 감축될 것 같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今井 敬 新日本製鐵(株) 相談役名譽會長  
: 신일본제철의 명예회장인 이마이라고 합니다. 포스코와의 전략적 협정의 한 쪽 당사자로서 약간 코멘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 자신이 마침 이 한일경제인회의의 제1차 회의가 열렸던 1969년의 서울과 포항을 오가면서 포스코의 창립을 도와드렸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포스코 분들과하는 협력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회사가 1970년대에 합병을 한 그런 경위도 있고 해서, 이 포스코와의 제휴 이야기가 나올 당시에 저는, 지금 현재 유부회장님으로부터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장차 두 개

회사의 합병이라고 하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서로를 믿고, 서로를 존경하면서 협상을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코도, 신일본제철도 국내에서는 대단히 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시장을 봤을 때는 각각 3% 정도의 쉐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안에서도 그렇게 큰 쉐어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 아시아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공동시장으로 봤을 때 어떤 협력 형태가 바람직한 것인지, 이러한 내용을 늘 연구과제의 하나로 삼으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신뢰를 베이스로 한 협상이 있었고, 또 주식의 상호보유,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각각 2억3천4백만 달러씩 서로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각 2%, 3% 정도가 되는데요, 이와 같은 주식의 상호보유, 이러한 형태를 앞으로 계속 지속하고, 혹은 확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략적 제휴 계약, 이것이 금년 8월에 5년간의 유효기간이 끝나는데요, 아마도 자동갱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두 회사의 관계는 전략적 제휴를 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또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혹은 비용 삭감이라는 측면에서도, 또 나아가서 수익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큰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아까도 유부회장님으로부터 말씀이 있으셨지만, steel dialogue라고 하는 것이 한일 양국간의 정부, 그리고 업



계를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미연에 방지를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 의견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계속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코 시장을 제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에도 있었듯이 이것이 완성된 다음에 상호간에 철의 거래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호간의 국가의 거래량이 늘어났고, 또 제품의 내용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서로 제휴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시장이 축소되는 일이 아니라 시장을 확대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계라든지, 규격의 통일이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모든 일이 잘 되면 동북아시아, 아시아의 통계규격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지 않나 하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회장님 하고는 '철강측면에서만이라도 모든 장벽을 없애고 함께 일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려고 하면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러한 식으로 각 업계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신뢰하고, 함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 경험상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방금 전에 '계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미국이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회사에 철강회사가 물건을 팔 때 굉장히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열'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고객과 소재제공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글로벌화가 되면 될수록 기업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 소재제공자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면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단계에서부터 함께 공동연구를 해 가지고, 가장 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제공하는 이러한 노력은 어떤 세계에서도 글로벌화가 추진되면 될수록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제휴임과 동시에 competitor라고 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 이러한 것을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연구부문, 혹은 환경에 대한 대책, 혹은 자원개발, 질문이 있었습니까만, 이러한 측면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成在甲 코디네이터 :**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죠.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篠原 徹 日本商工會議所 常務理事 :** 일본상공회의소의 시노하라입니다. 저희 조직에서는 대부분의 회원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한일FTA를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중소기업문제를 어떻게 생각해 나가야 할지 질문을 드리고 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한일FTA,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의 문제는 중소기업문제에 있다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한국과 일본이 FTA가 체결된 이후 한국의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한국 국내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대책으로써 일본의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를 원활하게 한국에 이전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

으로 일본의 대부분의 중소기업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지금 일본의 중소기업은 중국과의 경쟁으로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계속 국내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지, 일본의 중소기업의 무기는 종업원의 질과 기술과 노하우, '바로 이거다'라고 그들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한일FTA의 원활한 추진, 혹은 협상의 동력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을 원활하게 한국에게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일본의 중소기업들에게 얘기를 해도 경제세계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중소기업이 가장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우수한 인재와 지금부터 개발할 기술에 대한 자금이라고 이렇게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중소기업과 한국의 중소기업이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러한 협력을 할 때 일본정부와 한국정부가 어떠한 인센티브를 거기에 부여한다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중소기업이 한국의 중소기업과 제휴를 한다거나, 혹은 합작을 하거나 해서 새로운 분야에서 R&D를 하고 싶다고 할 때, 한국의 대학, 그리고 일본의 대학을 포함해서 대학의 두뇌, brain 그리고 졸업생의 공급, 또는 여기에 필요한 R&D에 대해서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준다든지, 이러한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미국의 제도 중에서 SBIR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라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제도이긴 합니다만, 일본도 이 제도를 따라서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의 보조금, R&D에 관한 보조금·위탁금에 대해서

일정금액, 일본에서는 2백억 엔입니다, 이것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에 배분한다는 이러한 내용의 제도입니다. 만일 한일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 또 일본의 중소기업과 한국의 중소기업이 서로 연대를 맺고, 또 합작을 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을 때 우선적으로 R&D의 보조금을 양 정부가 부여한다는 제도를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새로운, 전향적인 중소기업끼리의 연계라는 것이 가속화될 것이라 보고, 또 FTA에 대한 이해도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成在甲 코디네이터** : 대단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혹시 플로어에 게시는, 우리 한국에서 참여하고 게시는 중소기업 대표님 계시면 실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우리 유상부 고문이 무역협회 부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FTA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내용이 많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劉常夫 (株)POSCO 顧問** : 지금 한일 간 FTA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중소기업문제가 있고, 농수산부문이 있습니다. 한국이 칠레하고 FTA를 협정할 때 한국의 농민들이 대단한 반대를 하신 것을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점거하거나 정부청사, 국회의사당까지 점거하면서 농성을 해서, 마치 그 때 그 언론의 논조라든가, 일반 잘 모르는 국민들이 인식할 때는 그 칠레하고 한국하고 FTA 체결되면 한국의 농민들은 다 죽는 걸로 인식이 될 정도로 대단히 과장된 현상이었습니다. 물론 이

제 양국간의 충격을 완충하는 제도도 넣었습니다만, 그 뒤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수산물부문에 대한 이슈하고, 중소기업문제가 전부다 다 그러한 성격인 것입니다. 일본말로 ‘食べず嫌い’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안 해 보고 무조건하고 반대하는, 그런 무조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까지 포함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중소기업들의 주장도 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맞습니다. 종업원의 질부터 시작해서 노사관계라든가, 아주 고도의 정밀한 기술을 보유하고, 소위 흔히 담긴 기술들을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 곤란하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봐야 되냐 하는 것은 결국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같이 소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한다고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이 뭐니까? 시장, 즉 여기 많은 분들이 제조업부문이라든가, 산업부문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우리 산업의 산물은, 상품이든지 서비스든지 간에 그것을 써 주는 고객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기술이든지, 한국의 기술이든지, 어떤 나라의 경영자원이든 간에 양국의 고객들에게 가장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러한 쪽을 이제 찾아가야겠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장 그런 것이 실현되기 힘들니까 중국의 SPIR제도라든가, 또 지금 제안하신 중소기업체제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것이 구축이 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너무 겁

을 내고 불안해하지 말자. 그것은 일본의 중소기업도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고, 일본의 농수산물 생산자도 불안해하지 말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좀 대담하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충격도 없고, 어떠한 시련도 없이 FTA가 성립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라이프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의 고통과 시련이 있게 마련이고, 또 그것이 시작됨으로써 그런 고통과 시련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 바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농수산물 개방과 함께 한국의 농촌들녘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것을 가끔은 좀 봅니다만, 대단한 특용작물이 라던가 여러 가지 농산물의 새로운 시장을 위한 개척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안 했으면 그러한 활동이 안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지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리고 소위 경쟁력이 없거나 경쟁에서 소외되는 그런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국가가 또는 양국이 합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 다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이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다시 구제당하는 길을 찾았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원입니다.

成在甲 코디네이터 : 아,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질문하시는 분이 우리 중소기업하고 일본중소기업이 join을 해서 R&D에 투자를 할 때 어떤 보조금제도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정부예산이 일본정부예산에 비교해서는 규모가 상당히 적습디만, 우리나라 정

부예산의 약 7%를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R&D 예산이 우리나라 정부 전체예산의 7%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상당한 금액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할애되고 있습니다. 만약 양국간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동개발을 한다면, 여기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제도와 자금이 한국에는 이미 마련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飯島 英胤 코디네이터 :** 방금 전 질문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소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우에다 사장님께서 나와 계신데, 뭔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上田 勝弘 大垣精工(株) 代表取締役社長 :** 저는 금형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일본의 금형공업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원천이 되는 금형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제조의 근본이 되는 support industry이며, 그 국가의 금형기술의 레벨이 제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품을 완벽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는 곳에는 정신적인 공업제품이 생산된다는 것은 진리와 같습니다. 우리들은 특별히 한국하고는 협력관계를 구축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매년 한일금형세미나라고 하는 것을 서울의 산업대학교 금형설계학과와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 2회를 이미 개최하였고, 3회는 올해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여러 중소기업의 관계자분들도 참석하셔서 자유롭게 의견교환을 할 때는 대단히 우호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은 대단히 귀중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그것이 정책적으로나, 국

가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역시 FTA 문제도 촉구해야 하겠지만, 역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이러한 것들이 최대한 평가를 받아서 중소기업 전면에 내세울 수 있을 정도의 기록이 FTA 문제와 함께 이해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한일관계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 레벨에서의 중심은 역시 인적교류의 신뢰구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이론이라든가, 사급면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역시 중소기업끼리 서로 좋은 사이를 만들어 교류하는 것에 의해, 손을 들어 ‘어, 오랜만이네’라고 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한 일간의 진정한 의미의, 강한 유대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역시 진정한 교류가 싹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成在甲 코디네이터 :**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길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오늘 주제와 약간 좀 벗어난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스미야키 日本貿易振興機構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의 스미야키라고 합니다. 한 가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중소기업간의 교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초순에 JETRO의 이사장인 와타나베가 단장이 되어 일본의 중견중소기업인 약 100명 이상이 서울에서 ‘대한투자비즈니스촉진미션’이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의 중소기업인들과 상담, 교류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종합

적으로 상담, 기술제휴 등이 꽤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얻은 교훈이라고 하면 거의 서로에 대해 잘 모르고, 물론 알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한국의 중소기업인, 일본의 중소기업인들이 서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로 잘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상황을 알게 되어서, 앞으로 서로 꾸준히 미션을 파견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인들이 서로를 알게 되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成在甲 코디네이터** :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게끔 저희측에서도 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면 하시죠.

**麻生 泰 麻生라파츨시멘트(株) 社長** : 저는 아소라파츨시멘트의 아소라고 합니다. 이번에 FTA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게 돼서, 어제, 오늘의 회의를 경험했습니다만, FTA 회의는 당분간 논의가 없이, 단지 '올해 안에는...'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이 어느 쪽에 있는지, 한국 쪽에 있는지, 일본 쪽에 있는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또는 이것이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전부터 대두되는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점 등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제도 정부 관계자분께 여쭙았는데, 누가 최고책임자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번 회의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있다고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成在甲 코디네이터** : 초지일관 유부회장께서 답변 해 주시죠.

**劉常大 (株)POSCO 顧問** : 아시다시피 FTA란 '국가간의 협정'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경제인들이 가장 직접 영향을 받으면서도 바로 나가서, 대표로 나가서 얘기하지는 못하는 그런 입장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국가간의 그런 협상을 쉽게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FTA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산업부문, 그것도 뭐 지금 제조업부문 있을 수가 있고, 아까 말한 중소기업부문, 각종 서비스업에서 금융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서 결국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부정적인 견해를 자꾸 넣으로 해서 정부 관료들이 마음 놓고 협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 우리가 직접은 하지 않더라도 협상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은 외교통상부죠, 일본은 산업경제성입니까? 지금 저도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쪽이 주도하고 같이 하게 될 것인데요, 협상하시는 분이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산업간의 이해와 다소의 위험부담을 안더라도 '합시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 같은 것이 있을 때에 FTA라는 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누구 책임이나, 뭐 외면적인 책임은 양국 정부 대표들입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인 책임은 뭐냐 하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자꾸 어려운 얘기만 하는 우리 산업계라든가, 당사자들도 그러면서 다소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더 일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무조건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중소기업 저 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만나고 서로가 애길 해 보게 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서로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소해 주게 되면 정부대표들이 안심하고, 책임지고, 빨리 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누군가 책임지고 답변을 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쟁점은 산업간의 불균형, 이런 문제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농산물 쪽에 더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일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농촌, 농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큼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마 쉽게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다같이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FTA가 체결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나가 봅시다.

**成在甲 코디네이터 :** 또 다른 분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成田 洋助 (財)日韓産業技術協力財團 専務理事 :** 방금 전 아소상의 의견, 질문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TA에 대해서는 공이 어느 쪽에 있는지... 아, 저는 일한재단의 나리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공이 어느 쪽에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6회는 작년 12월 1일부터 3일간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7회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라서 그 점에서 보면 설치준비를 하는 것도 한국측이고, 공을 갖고 있는 쪽도 한국측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이 어느 쪽에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차례 화제에 올랐던 중소기업인들, 특히 농수산물을 포함한 중견중소기업인들이 좀 더 FTA의 실태에 관한 인식과 지식을 갖지 않으면 의견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와 중소기업인들을 연결하는 유일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매스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스컴이 신문과 텔레비전 등을 통해 윤회유역할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작년 12월의 FTA의 정부간 교섭에 있어서도 너무 보도의 내용이 적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침 그 때 입원을 해서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매일 병원에서 신문을 읽었습니다만, 일본경제신문에서도 1일에 도쿄에서 일한 FTA 교섭이 개최되었다고 하는 기사는 일본경제신문의 제5면의 제일 구석에 겨우 130자가 10여 줄로 '열렸다'라고만 나와 있었습니다. 회의의 내용이 어땠나 하는 것도, 교섭의 결과가 어땠나 하는 것도 일절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에 그 때까지 열렸던 회의의 내용에 대해 실려 있는가 해서 다시 신문을 봤더니, 이번에는 같은 일본경제신문의 제5면의 제일 구석에 160자로 12~13줄로 '투자원칙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라는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을 읽는 쪽에서 보면 알맹이가 어떤지는 전혀 알 수 없고, 그 이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아마 피해의식만이 앞서서 찬성, 반대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고 물어보면 반대에 손을 들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부 관계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물론

취재할 수 없는 내용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교섭의 이면이나 내용을 문제점과 함께 보도할 수 있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저희들 경제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역시 그런 보도기관에 대해, 또는 정부에 대해 그런 것을 좀 더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해도 양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이나 학술 경험자만의 의견이 앞서서 반영되어 중소기업이나 그 밖의 일반시민은 따돌림을 당한다는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成在甲 코디네이터 :**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高杉 暢也 韓國富士제록스(株) 最高顧問 :** 좀전에 발언했습니다만, 제가 서울재판 클럽의 책임자로서 코멘트라고 할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오늘 이 정도로 중요한 분들이 모였어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입니다만, 조금 전에 저는 회장님의 얘기를 듣고, 하나의 모델케이스로써 이것을 좀 더 전개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6월에 노무현대통령과 고이즈미 수상의 정상회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것은 학술적인 부문에서, 그리고 산업계에서, 그리고 정치도 좀 연관이 되고, 특히 농수산업문제도 포함해서 프로젝트팀을 만들자고, 그것이 일본과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 카운터파트너를 정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 FTA가 굉장히 양국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정리해서 6월의 정상회담 때 각각 노무현대통령과

고이즈미 수상에게 제출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3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조석래 회장님, 지금 안 계시지만, 조석래 회장님에게 의견을 여쭙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저런 정치문제가 얽혀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일경제인회의가 부디 그 일을 결정해서, 그 프로젝트팀을 만들어서 6월까지 별로 시간은 없지만, 일단 부딪혀 보자라는 생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오늘의 회의가 정말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전의 유부회장님의 말씀을 추진하면 어떨까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의견을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成在甲 코디네이터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에 단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그 때 또 채삼 강조를 해서 공동성명에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심도 있게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네, 말씀하십시오.

**金都亨 啓明大學校 國際學大學 教授 :** 조금 전에 SJC의 회장님이 제안하신 거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경제인회의의 산하에 한일산업무역회의가 있습니다. 이 산업무역회의가 지난 번 경주에서 한일 FTA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협상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였습니다. 그것은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런데 저희측에서 일본측에 요구를

차제에 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측에서 좀 더 각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한국과 대화가 가능한 그런 분들을 대표로 선정을 해서 그 회의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시켜 주시면 좀 더 실질적인 대화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무역회의를 좀 FTA 협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팀을 무역회의를 통해서 강화해 갈 수 있도록 회원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라면 그냥 상호간에 의견교환하는 그런 장으로밖에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업계 실태를 모르는 정부에서 나오신 협상팀들만 가지고는 아무리 경제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변화가 없을 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좀 유의해서 산업무역회의가 실질적인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일본측의 강력한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成在甲 코디네이터 :** 이이지마상,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飯島 英胤 코디네이터 :** 지금 제안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안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발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만, 사실은 한일 FTA문제라고 하는 것은 2003년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한일비즈니스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개최되었습니다. 2년 가까이 열렸습디만, 거기서 당시의 김대통령과 일본의 모리수상에게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후에 産官學의 공동연구회라는 것이 생겨서 거기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간 교섭에도 옮겨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런 흐름이 됩니다. 합쳐서 이 한일경제인회의도 최근 3~4회는 전부 FTA, 이번에는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넓은 의미에서는 FTA, EPA의 화제가 계속 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결론은 항상 같은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왜 그게 끝나지 않는 것인까 하는 것이 이번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공통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쭙보고 싶은 것은 이 EPA나 FTA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안되는 그 최대의 과제라고 하는 것이 중소기업문제와 농수산관계라고 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 전에 유부회장님의 말씀대로 정치적인 과제로써 어느 정도는 과감하게 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각론은 각론으로써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타협감을 잃지 않으려면, 한일의 국제적인 경제전쟁 속에서 좀처럼 국제전쟁이 이루어지기 힘든 고립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 정황 하에 몰아넣는 게 아닐까 하는, 국제적으로 봐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재갑 코디네이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의 공동성명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 열띤 분위기를, 그 결과가 우리들만의 성명이 아니라 양국 정상에게도, 매스컴을 포함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조석래 회장님께 어제의 한일경제인회의에 대한 기사가 여러 신문에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많은 언론에서 1면을 할애하여 기사를 취급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정부에 대해 강



력하게 결단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에, 한국이 일본에 대해 일시적인 요청이 아니라, 각각의 나라가 각각의 정부에 대해 다양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成在甲 코디네이터** :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을 꼭 해야 되겠는데, 빠지신 분 있으면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오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연대와 향후 양국기업간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두 회사, 회사라기보다는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양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의 성공사례를 우리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 성공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최고경영자들이 '꼭 해내겠다'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공사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산업간에 좋은 성공사례가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 오늘 핫이슈로 등장된 FTA도 머지않은 장래에 충분히 체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진지한 토론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이이지마 상 다른 코멘트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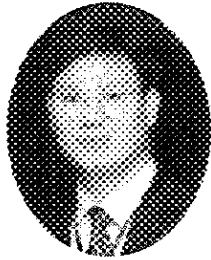
**飯島 英胤 코디네이터** : 지금 성재갑 코디네이터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成在甲 코디네이터** : 그러면은 제1분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이후의 일정에 대해 사무국에서 안내 말씀 있겠습니다.

**司會** :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재갑 고문님과 이이지마 고문님, 두 분 코디네이터분께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시부터 한일 양국 고문·단장단·전문위원장·코디네이터께서는 공동성명안 심의를 위한 오찬회가 3층 라일락룸에서 있으며, 일반 참가단원 오찬회는 옆 건물인 영빈관 1층 루비와 2층 에메랄드룸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전체회의는 2층 다이너스티 I 에서 1시 30분부터 개최되오니 시간을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자료는 이 장소가 다시 세팅되는 관계로 전부 지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5. 第 2 分科會

司會[金正鎬 (社)韓II  
經濟協會 次長, 以下  
同-] : 시간이 되었  
으므로, 지금부터 제  
37회 한일·일한 경제  
인회의 제2분과회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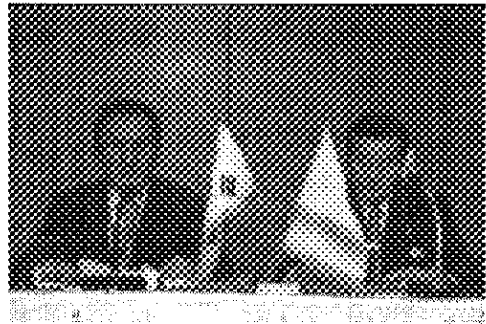


저는 제2분과회의 사회를 맡게 된 한일경  
제협회 김정호 차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겠습니다. 회의 통역수신기는 한국어 5번,  
일본어 6번 채널로 맞춰져 있으며, 진행  
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  
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진동모드로 전환  
해 주시거나, 전원을 꺼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회의를 맡아주실 양국  
코디네이터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  
측 코디네이터이신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주식회사 회장님께서 연세대학교 행정  
학과를 수료, 미국의 인디애나 주립대학  
상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한국건업(주) 대  
표이사 사장을 거쳐 지금은 한·캐나다 경  
제협력위원회 위원장, 한일경제협회 부회  
장, 벽산그룹 부회장, 동양물산기업 대표  
이사 회장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김희  
용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본측의 코디네이터이신 시미  
즈 코이치로 호텔 오쿠라 부사장님은 게이  
오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시고, 호텔  
신라의 총지배인 어드바이저, 오쿠라 가  
든 호텔의 상해 총경리, 호텔 오쿠라 후  
쿠오카의 사장을 거쳐 지금은 호텔 오쿠  
라의 취체역 부사장으로 활약하고 계십니  
다. 시미즈 코이치로 부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회  
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원활한 동시통역과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발언 시에는 가능한  
천천히 발언해 주시고, 통역이 곤란한 외  
래어는 가능한 삼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일 양측 백그라운드 페이  
퍼 발표자께서는 발표시간 20분을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후 진행  
은 양측 코디네이터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金熙勇 코디네이터 : 여러분, 안녕하십니  
까? 한국측 코디네이터인 김희용입니다.  
일본측에는 호텔 오쿠라의 시미즈 코이치  
로 부사장입니다. 제2분과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제2분과회의 운영에 대해서 잠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1분과회의에서는 '제  
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연대와 향후 한  
일 기업간 협력방안'을 위주로 토론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이곳 제2분과회의에서  
는 '문화·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연  
대와 향후 양국기업간 협력방안'을 위주  
로 하여 양측의 백그라운드 페이퍼의 집  
필자로부터 각각 20분 정도 테마에 대한  
발표를 들은 후에 20분간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갖겠습니다. 휴식 후에는 플로어로부터 질의응답을 받아 자유토론 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가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백그라운드 페이퍼 자료는 테마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이 페이퍼를 토대로 해서 발표자의 발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응답시간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의견과 정보, 견해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것이 본 분과회의의 운영 취지입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이나 견해를 발표해 주시고, 앞서 발언한 내용을 받아 논의 및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페이퍼의 논점과 관련된 의견을 발언하는 것이 취지지만, 백그라운드 페이퍼의 논점에서 벗어나는 의견이라도 혹은 테마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발언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 분과회의에서 여러분의 발언 가운데 특히 많은 찬성과 지지를 얻는 의견이나 제안 등은 이후의 공동성명안을 심의하는 단장단 오찬회의에 보고를 하고, 공동성명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발표나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표시간은 각각 5분 이내로 제한코자 하오니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본측 시미즈 코이치로 코디네이터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清水 紘一郎 코디네이터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호텔 오키타의 시미즈입니다. 또한 호텔 신라 가족의 한

명으로서 이번에 이 회의를 위해 호텔 신라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희용 회장님과 함께 제2분과회의의 코디네이터를 맡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디 제2분과회의가 의미있고, 유익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플로어에 계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김희용 회장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金熙勇 코디네이터 : 네, 시미즈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한국측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중앙일보의 이어령 고문님께서 ‘한중일 문화공동체의 가능성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어령 고문님은 1956년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990년에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중앙일보 고문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또 약 20년 전에 그 유명한 ‘경박단소’라는 말을 써서 전자칩의 미래를 예견한 선구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럼 이어령 고문님을 박수로 맞아주시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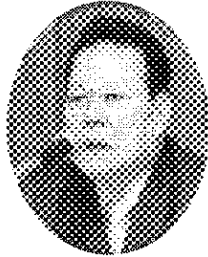
## (1) 韓國側 백그라운드 페이지

### 「韓·中·日 文化共同體의 可能性과 問題點」

李 御 寧

中央日報 顧問

(初代 文化部長官)



방금 소개받은 이  
어렵습니다. 오늘 말  
씀드리려고 하는 것  
은 통계숫자경제, 실물경제와 같은 구체  
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와 같은 지  
금까지 여기에 없었던 문화·서비스 분야  
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 자체가 현대 사회의 문명의 큰  
흐름 속에서 한일관계를 대립하게 만드는  
그 통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  
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  
용은 현황의 분석이라든가, 문명의 배경  
이라든가, 그 결과로써 우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부  
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개발  
할 때 갈릴레오와 천체를 연구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지만, 당시의 베니스의 정치  
가, 경제인들 앞에서는 천체연구를 한  
다는 말은 하지 않고, 베니스는 해협국가였  
기 때문에 배가 멀리서 들어오는 것을 빨  
리 볼 수 있다면 국가의 안보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 자기의 배인지 아군의  
배인지 적군의 배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해서 원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문화·서비스분야'에  
있어서 이 '문화'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하  
려고 하는 것은 순수한 문화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문화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나 국가  
안보에 대한 정치와 어떤 연계를 가질 것  
인가, 또는 그 접점, intersection에서 이  
화제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스탠다드, 문화 자신의 원  
리와 문화가 운영되는 경제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연계된다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현재 문화의 목적, 그리고 경제의  
발전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경제·  
역사의 발전과 함께 해 왔다고 생각합니  
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군사에서 문  
화·문명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 것  
입니다. 문화에 의해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문명 쪽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날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문  
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냉전시대에는 터키가 NATO 편에서 활약  
했지만, 현재는 EU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  
다. 그 이유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군사·정치 이데올로기가 중심이  
되어 경제를 이끌어 온 시대를 우리들은  
국가가 부강해지면 군사력도 커진다고 하  
는 패러다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러나 냉전시대의 정치 이데올로기나  
군사적 충돌보다는 종교충돌, 문화에 대  
해서 오늘날 분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현  
대의 경제상황은 그 갈등이나 테러, 그리  
고 정치적인 불안 이슈의 기반은 전부 문  
화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문  
화의 충돌에서 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는 3천여 개의 문화가 있지  
만, 나라는 2백여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

서 그 태반의 갈등이 문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처럼 3천여 개의 국가가 생길 때까지는 계속해서 문화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충돌은 군사적, 정치적 충돌보다 더 큰 변화를 우리들에게 가져올 겁니다. 그런 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이후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경제인, 경제의 내부적인 문제보다 경제의 외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한일간의 경제협력관계의 구축도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우선 하나의 조건, 환경으로 들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와 문화는, *dependence*, *independence*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문화와 항상 경제에 속해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소위 경제활동이 문화활동을 도와주는 파트너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제인들은 문화에 대해, 사회공헌을 한다든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가난한 예술가에게 그 자금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파트너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일변했습니다. 문화가 주도가 되어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의존관계의 *share*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미국의 1930년대의 불경기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아시다시피 할리우드에서는 아메리카판타지, 타잔, 마키마우스, 킥콩과 같은 오늘날 할리우드 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1930년대의 불황기에 태어나서 경제를 지탱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즈니랜드 같은 독특한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인류가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그런 문화가 나타

났습니다. 그런 예가 처음으로 1930년대에 나타났습니다. 불경기였던 때였죠.

한국은 IMF 통화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영화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해서 지금은 수백만, 수천만을 목표로 하고, 지구상에서 할리우드를 뺀 영화산업의 국내 *share*가 언젠가는 할리우드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적적인 기록을 내고 있지만, 이것 역시 한국도 경제의 불경기였던 IMF시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런 배경은 예술가, 영화관계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고, 또 저렴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분야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영화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1930년대처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IMF시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책에 있어서 경제의 불경기, 불황의 시대에 처음으로 그 시대의 일본이 경제발전 속에서 잃어버리고 있던 자신을 다시 찾는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고 20년 전에 책을 썼습니다만, 일본은 확대지향화, 축소지향화라고 하는 말을 해 왔지만, 그 당시에 일본은 해외에 나가서 부동산을 사고, 투자를 하는 등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 망값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덜란드가 ‘튤립버블경기’를 일으킨 것처럼, 그런 마찬가지로 상황이 일본에도 발생했습니다. 그 버블이 터져서 마이너스 성장이 되었을 때, 사실 일본은 ‘문화대국’이 되었습니다. ‘피카츄’나 그런 것들이 나타난 거죠. 「일본은 정말 무서운 나라가 되었다. 경제대국은 무섭지 않지만, 문화대국은 정말 무서운 것이다」 이것이 호리나페어즈의 논문에도 나와 있는

말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라고 하는 정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최종적으로 제의하고 싶은 몇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주제인 '한일 공동체'는 과연 가능한 것인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왜 한일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류, '한류'가 일어난 직간접적인 원인인 한국드라마가, 실제로 한국에 활력을 준 것도 아닌 이 평범한 드라마가 일본경제의 불황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중문화가 경제현상, 사회현상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용준', '후유노소나타(冬のソナタ)', 한국에서는 '겨울연가'라고 합니다만, 이 '겨울연가'가 2004년의 현상이지만, 양국간에 거의 드라마 부분의 지상파 TV를 빼면 모든 게 서로 개방된 양국 사이에서 막혀있던 벽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2004년입니다. 그 안에서 발생한 징후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본 열도를 들끓게 했던 '한류'붐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배용준', '윤사마'죠.

경제인들이 이 한류를 분석해 보지 않으면, 지금의 독도, 일본의 다케시마 문제라든지, 교과서 문제 같은 것들이 분석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류의 긍정적인 면을 분석해서 미래의 역사, 경제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법을 지금 설정해 두지 않으면 이후의 양국관계, 경제관계, 협력관계가 마이너스로 갈 것인지, 혹은 플러스로 갈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

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이 회의는 수많은 회의들 중의 하나가 아니라, 10년, 20년, 100년의 문명을 결정할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커다란 스케일을 가진 회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부터 이 한류에 대해 분석을 해 주십시오.

거듭해서 말씀 드리자면 제가 통계자료들을 잔뜩 들고 왔지만,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우선 시간이 없고, 두 번째는 통계수지로 얼마만큼의 이익을 거둘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지TV 산하에 있는 여러 조사기관에서 실제 통계를 낸 것을 보면, 실제 문화산업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2조5천억 엔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치는 금방 또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초대형 시장이 하나의 드라마에 의해 생겼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제모델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40대, 50대 중년여성이, 보통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10대의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10대 쪽은 중국 쪽에서 인기가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의 경우는 30대에서 50대의 중년의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활동의 주요한 계층으로 돈을 쓸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10대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갖고 있는 이 주부들에 의한 '윤사마붐'은 슈퍼마켓에만 있던 여성들도 문화를 소비하고, 간접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는, 주부들도 간접적인 경제 부양을 할 수 있는 경제 주체자임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류붐을

경제적인 것으로 보면 왜 일본은 여자들에게 이런 시장을 제공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 한국은 왜 이런 시장을 의도적으로 개발하지 못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아’와 같은 현상, 10대의 영웅적인 존재이고, 1인 기업이라고 말해 주고, 몇 천 억을 벌어들이는 여자... 10대 어린아이가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들이는 1인 기업이라고 하는 보아는 완전히 기획상품이었습니다만, 배용준의 ‘겨울연가’는 NHK에서 이루어진, 대단히 우연적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인도 몰랐고, 문화인도 몰랐고, 특히 정치하는 사람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관광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헬스, 요사마 다이어트까지 생겨났습니다. 일본에서는 관광이라고 안 부르고 ‘성지순례’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자들은 나를 16세의 소녀로 젊게 만들어준, 「누가 나를 젊게 만들어줬나, 지금 가슴이 뭘 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산업, 경제인회의가 이것 있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필요한 물건을 썼지, 마음을 감동시키는 21세기의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인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상품’을 여러분들이 만들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뭐냐’라고 묻는 것은 무슨 사치품이 아니라, 모든 상품들이 그것이 실제로 필요한 냉장고라도 16세의 소녀로 돌아가게 하는, 가슴 두근거리는 impact를 주지 못하는 상품은 여지없이 세계 경제시장에서 퇴거를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소니가, 일본의 가전제품들이 왜 오늘날 한국에 뒤졌는가 하는 점은 왜 일본에

‘겨울소나타’와 같은, 새로운 대중을 만들어 내는, 할리우드 문화로는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베드신 하나 없는 그러한 대중문화가 어째서 일본여성들을 그토록 가슴 뛰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간에 긴밀한 문화협조를 해야만 되는 당위성을 우리는 한류에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탈아시아 정책을 썼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아시아의 아이덴티티를 보면 ‘잃어버린 100년’입니다. 할리우드에서 만족시켜 주지 못한 것을 배용준의 경우에서 찾았다고 하는, 그것은 일본의 정치가들, 남자들이 탈아시아로 얻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빛나는 문명이지만 그것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아시아적 아이덴티티가 뭔가를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서구화되고, 한국이 아무리 근대화되고, 중국이 지금 막 뒤늦게 근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 뿌리에는 아시아가 공유하고 있는 아시아적 정서, 아시아적 문화적 이미지가, 삶의 내용이 뭔가를 알지 못하면 이제는 그 위에서 경제, 정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이즈미 수상이 최지우를 만찬회에 부른 것은 바로 참의원 선거 직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에도 영향을 주고,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한일간에 있어서의 경제가 이끌어 온 한일 양국의 협력을 더 넓혀서 문화협력으로 온다면 정치적 이해관계나 경제적 충돌을 완화하고, 반일·친일, 친중·반중,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까지 얽혀져 있는 아시아가 왜 이와 같은 경제공동체를 만들지 못하는가 하는 요원한 과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것을 절대

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불가능한 것이 한류 같은 것을 통해서 봤을 때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우월함, 콤플렉스, 식민지시대의 舊怨, 이런 것은 영토·교과서 분쟁에 있어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지만, 한류를 통해서 그 동안 한국인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나 한국문화와의 교류를 통해서 일본의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상호간에 상생할 수 있는 하나의 경제효과를 주는 그 문화에 기본을 두었을 때는 새로운 한일협력의 출구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결론에 대해 오늘 토론을 하고,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이러한 한류가 일어난 배경은 바로 '문명사적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텔레비전과 같은 미디어의 파워입니다. 한류가 일어난 배용준의 겨울연가는 텔레비전 시대, NHK의 막강한 네트워크를 가진 미디어가 없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는 인터넷과 저장장치에 있어서 새로운 영상시대, DVD라든가, DVD플레이어라든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것을 수시로 언제나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새로운 영상기술인 것입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팬들이 자기 조직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미 월드컵 한일 공동주최에서의 성공은 바로 이러한 뉴미디어의 덕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에 있어서는 글로벌리즘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 경우처럼 정치, 경제에 있어서의 라이벌 국가가 하나의 협력체로 변하는 것은 로컬리즘, 지역적 공동체에 의해서 해소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해서 지금은 '글로벌리즘의 시대'가 아니라 '로컬리즘의 시대'이고, 크게 말하면 유럽, 미국,

그리고 아시아 세 지역이 있고 변수로서 이슬람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의 글로벌리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디팩토 스탠다드를 제외해 놓고는 언어, 문화 등 모든 것에 로컬 스탠다드에 의해서 더블 스탠다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일본의 세계적인 전략·전자제품 중에서도 일본의 전자밥솥 같은 것은 쌀 문화권에서만 팔리지, 유럽엔 가지 못합니다. 이런 한계가 모든 상품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중일 문화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오늘날 요청되는 하나의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치·경제의 선행 커뮤니티로서 지금 당장 EU와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낙차만이 아니라, 한중일적어도 동북아시아만이라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청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 따르는 몇 가지 영토문제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둔 채로는 금년 우정의 해에 보여준 것처럼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뢰밭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선 가장 저항이 없는 이 문화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전 단계로서의 문명의 요청인 로컬리즘, 내셔널리즘, 글로벌리즘에 있어서 지금 로컬리즘 단계에 있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것은 좋고, 나쁘고의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문명의 흐름이고, 경제의 스케일의 범위와 스케일의 경제의 특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한중일의 문화공동체로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가능하나 하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한 경우가 가능한 점이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대단히 아이러니컬한 하나의 문제 제기가 되겠습니다. 안 되는 점이 뭘가부터 따져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양국에서 해결해야 되겠느냐, 일본의 노력이 대단히 크고, 중국의 노력이 대단히 큼니다만, 여러분들은 한국의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류붐에서 보여주었다시피 한국은 대륙국가와 섬나라의 중간을 잇는 반도국가입니다. 그리고 한 때는 중화사상이 아시아를 지배했고, 일국지배를 했고, 한 때 근대에 와서는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에서 일국지배를 했습니다. 아시아는 강대국으로 언제나 일국패권주의에 의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될 만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점에 있어서 한 번도 아시아에 대해서 피해를 줘 본 일이 없는, 피해를 당하기만 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것이 히든카드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크 아타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국가가 반드시 생긴다. 초국가 형태가... 이것은 경제의 원리고, 문화의 원리고, 문명의 원리다.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 국가는 동북아시아다.” 그런데 이 동북아시아에서 이루어지려면 수도를 어디다 봐야 되겠냐. 북경, 일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 서울에다 둔다고 그러면 두 나라에서 별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자크 아타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인이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아시아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 중간에 대륙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피해국이지, 피해를 준 나라가 아니었던 나라가 동북아시아 세 나라 중

에 한국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큰 행운인 것이고, 잘 하면 중국에도, 한국에도, 일본에게도 도움이 되는 히든카드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해서 빨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능한 거리로부터 이북할 수 있는 의지가 경제인으로부터 나와야 되겠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앞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가령 쉬운 예로써 라이브로 예술인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대체로 문화를 가장한 다른 업소에 취직들을 하기 때문에 가장 엄격한 비자를 받는다는 것, 거꾸로 가장 자유롭게 왕래해야 할 삼국의 예술인들이 사실은 다른 목적으로 이것이 쓰이기 때문에 비자가 가장 엄격하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일문화공동체가 생겨서 열명 가까운 그러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국가 차원에서 **한일문화공동체의 협의기구**만 있어도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루어지는 무역상황에서 보면 한국은 현재 70% 가까운 시장이 일본입니다. 미국보다도 훨씬 큼니다. 미국시장으로 보면 제일 큰 데가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에게 중요한 것은 산업부문에는 완전히 역조, 우리가 마이너스지만 문화산업에 있어서는 거꾸로 일본이 엄청난 비율로, 문화산업 쪽에서는 특히 영화, 드라마 쪽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대로 가면 또 문화마찰이 일어납니다. 이 문화마찰이 경제마찰이 됩니다. 마찰이 안 났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시야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됩니다. 이 때 한국과 일본이 싸움을 할 때는 이미 두 나라가 다 손해를 봅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간에 trade share,

뺏기가 아니고 같이 공동투자를 해서 한류붐, 일본의 애니메이션붐, 서로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가면 동양의 할리우드와 같은 거대한 세계문화시장을, 한국과 일본이 중국 내지는 전 세계에 펼 수 있는 새 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새 시장을 보지 않고, 있는 시장의 share를 누가 나눠먹느냐 이러한 싸움으로 갈 때는 두 나라가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의 한일문화공동체가 이러한 것을 조정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서 마치 EU가 레미제라블을 독일, 이태리, 영국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레미제라블을 만들어서 전 세계, 할리우드에 대항해서 새로운 문화 전략을 짜듯이 이것은 군사정치문제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시야를 넓혀 가느냐 하는 문화산업의 시대에 있어서의 중요한 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법 제정, 공동투자, 출입국 관리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제가 여기 많이 써 왔습니다만 발표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끝내지 못하는 이 화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감하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실제 데이터나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제가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단 한 마디 얘기하는 건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발표자 20분이라는 것은 오해만 불러일으킬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협의체가 정말 협의체가 되기 위해서는 밤을 새우자는, limitless한 회의를 하지 않고는 풀려지지 않는 문제를 놓고 20분, 몇 분 동안의 형식적인 회의가 된다면 이것은 거대한 시간 낭비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더 악화될 수 있는 소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일문화공동체를 잘못 이해하면 옛날 대동아공영권 다시 하자는 거냐, 중국의 소위 말하는 중화주의를 부흥시키자는 것이냐, 이러한 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새로운 21세기의 문화코드가, 문명문화코드가 포스트 냉전 후에 일어나는 세계의 월드시스템 속에 있어서의 경제발전은 문화가 이끌어 간다는 대전제 하에서만이 오늘 제가 설명한 이것이 가능하지, 정치, 경제가 이끌어가는 과거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공동체 얘기만 들어도 모든 사람이 피해의식을 느끼고, 또 주종, 종속의 하나의 달콤한, 가식적인 하나의 미끼냐 이렇게 오해들을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혹시 양국 간에 오해되실 점이 많을 줄 아는데, 그 점은 여러분들 질문을 받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金熙勇 코디네이터** : 네, 이어령 고문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마음을 열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은 우리 이어령 고문님께서 제 고등학교 때 국문학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어떻게 제자가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럼 다음에는 일본 측 백그라운드 페이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미즈 코디네이터님 부탁드립니다.

清水 紘一郎 코디네이터 : 예, 그런 일본 측 백그라운드 페이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큐슈여객철도회사의 이시하라 스스무 사장님, '일한해협교류권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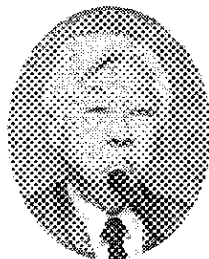
이시하라 사장님의 약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하라 사장님은 도쿄대학을 졸업하신 후 일본 국유철도에 들어가시고, 1987년에 분할민첩에서 출범한 큐슈여객철도(주)의 상무이사님, 전무이사님을 거쳐서 2002년에는 대표 취체역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럼 이시하라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 (2) 日本側 백그라운드 페이지

『韓日海峽交流圏의 現狀과 向後 展望』

石原 進

九州旅客鐵道(株) 社長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라이드를 보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조강연에도 나왔습니다만, 한일 FTA의 실황에 대해서, 이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FTA 시대로서, 이것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조류 속에서 폐쇄주의에서 협력주의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양국의 경쟁을 뛰어넘어서 강점을 서로 활용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점으로서 BRICs의 대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GDP는 BRICs가 아직 적긴 합니다만, 성장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매우 큰 경제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한편, 현재 일본, 한국의 경우에는 약 5조 달러의 GDP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성장률은 BRICs에는 도저히 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일FTA의 체결을 위해 반드시 win-win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일FTA 실현을 통해서 양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다이내믹 코리아-재팬, 재팬-코리아를 창출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일FTA라고 하는 것이 체결이 되면 세계 전체의 GDP의 15%를 점유하게 되며, EU의 2분의 1 규모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농업문제입니다. 농업문제가 FTA 안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일FTA에 있어서는 한국측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일본에 있어서는 농업문제가 큰 걸림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도 작년 4월에 발효된 칠레와의 FTA에 있어서는 매우 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자면, 한국과 일본 모두 농업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사실입니다만, 식량자급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만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숫자에서 말씀드리자면 49%, 일본은 40%입니다. 즉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와 함께 제2차 산업의 생산성을 비교를 해 보면, 이것은 취업인구를 GDP로 나눈 것입니다만, 일본과 한국 모두 미국, 프랑스, 영국과 같은 구미국가에 비해서 매우 생산성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역시 일본도 그렇습니다만, 한국·일본정부의 농업에 대한 보호정책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 유지해 갈 경우에는 역시 FTA 체결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농업, 제1차 산업에 있어서는 경쟁을 촉진해서 농업 종사자의 의식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계도 그

런 점에 있어서는 농업 업계에 계시는 분께 많은 협력과 지원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적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역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자본, 그리고 물건이 모이게 됩니다. 자본이 몰리는 곳에는 역시 사람이 몰리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직접투자, 그리고 국제관광을 국가전략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 문화, 정보 이러한 것들의 교류가 하나의 세트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괄적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한일Pre-FTA라는 것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사전조치로써 단기체재비자를 상호 면제하는 것, 이것을 조기에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93년 박람회 때 No비자, 비자면제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잠정조치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태국과 한국에 대해서 금년 지금 하고 있는 아이치 만박, 만국박람회에서 No비자로, 잠정적인 Np비자, 비자면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기에 영구, 항구적인 조치로써 단기체제에 대해서, 90일 이내 체제에 대해서는 비자면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의 자본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외직접투자, GDPP라고 썼습니다. 인구 대 외국여행객을 받아들이는 것을 비교해서, 상관관계를 비교한 것입니다만, 일본은 거의 배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스페인, 프랑스, 스

웨텐 이런 나라는 관광대국입니다. 이런 곳은 또한 자본의 직접투자도 모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JR큐슈, 큐슈여객철도(주), 이건 큐슈에 있는 철도회사입니다만, 간단히 그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민영화되면서 전국에 6개 여객철도회사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남단에 위치한 큐슈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1,600억엔, 연결영업수익이 2,550억엔이 되겠습니다. 사원수는 9,340명, 매년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20km의 철도를 운영하고 있고, 2004년 3월에 큐슈 신칸센의 남쪽의 일부 야스히로에서 가고시마까지의 구간을 개통을 하였습니다. 하카타, 대도시 하카타에서 가고시마까지 4시간 정도 걸렸던 거리가 신칸센을 통해서 2시간 10분 정도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철도외의 사업으로는 역빌딩, 맨션, 분양하는 맨션은 약 50억엔 규모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사업도 약 44개 점포에서 전개를 하고 있고, 선박사업, 여기에서는 하카타의, 후쿠오카의 하카타, 그 다음 부산간 항로를 고속제트선을 이용해서 고속여객선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영사업입니다만, 그 외에 그룹회사로서 35개 기업이 있습니다. 버스회사와 서비스회사, 운수서비스회사, 그리고 건설공사회사, 그리고 역빌딩 운영하는 회사, 그 외 유통외식회사, 그 다음에 편의점회사, 레스토랑 회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레저, 호텔, 호텔은 모두 일곱 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회사와 비즈니스서비스가 여덟 개사가 되겠습니다.

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한국에서도 KTX가 작년 4월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과 부산 간에 4시간 10분 걸렸던 것이 1시간 30분 단축되어서 2시간 40분에 가게 되어,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3시간 40분이었던 것이 2시간 10분으로 1시간 30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0년 또는 2011년 경에는 양측의 신칸센, 그리고 부산, 하카타까지 모두 전선이 개통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시간 정도가 각각 양국에서 단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비틀 고속선로서는 많은 시간이 단축이 되고, 또는 항공기, 같은 곳으로 연결을 해서 한국의 서울과 일본의 큐슈의 가고시마까지 큰 교류의 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큐슈레일패스, KR, 이것은 한국의 철도입니다, 비틀패스, 그리고 에어앤비틀패스 같은 것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KR비틀패스, 그리고 에어비틀, 비행기와 고속철도가 개통됨으로써 갈 때는 비행기로, 예를 들면 JAL같은 것을 이용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은 배, 고속철도를 이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고속철도가 전선이 개통되었을 경우에는 더욱 더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되며, 또 그렇게 늘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틀이라고 하는 고속여객선의 승선인원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에 하카타항과 부산을 연결하는 항

로를 개설했습니다. 당초에는 4만5천 명 정도가 승선을 해서 많은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나 1993년 대전에서 박람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때 한국에서 노비자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인 여객수가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매우 급속히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그 때가 월드컵대회가 열렸던 해입니다. 2002년에는 왼쪽을 보시면 약 30만명 가까운 분들이 승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2003년에는 사스가 있었습니다. 사스가 유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방금 전에 한류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효과로 인해서 무려 35만3천명이라고 하는 비틀 승선인원이 있습니다. 2003년에는 31만명에서 2004년에 35만3천명으로 과거 최대의 증가율을 보인 해였습니다. 인적교류가 상호이해, 양국에 대한 이해를 더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FTA 등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이 인적교류의 증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일교류, 한일우정의 해 2005년이 시작되었습니다만, 3월 이후의 한일 양국의 문제로 인해서 매우 큰 취소, 승선을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손님이 3월에 약 1천5백명 정도가 취소를 하였고, 4월에는 4천백여명 정도가 취소를 했습니다. 일본인은 그만큼 감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교류를 하는 이벤트가 중지되는 것으로 인해서 일본인의 승선인원도 4월에 3백명 정도가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끝낸워크, 황금연휴, 한국에서 황금연휴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열흘 정도, 거의 열흘을 연속

해서 쉬는 날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 황금연휴 예약 상황이 일본인이 전년대비 94.2%, 이는 역시 한류, 이번 양국문제가 없었다면 100% 이상 누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94% 정도입니다. 한국분에 대해서는 49.5%, 약 5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역사인식의 문제 등,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 전제로서는 전체적으로 인식은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교류이벤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중지를 하지 않고 예정대로 이번의 이 한일경제인회의와 같이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양국에서 서로 논의를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적교류의 현황이 되겠습니다만, 큐슈와 한국의 인적교류의 현황입니다. 큐슈에서 여러 외국, 다른 나라들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큐슈에서 출국하는 일본인수 중에서 한국으로 출국하시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큐슈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는 일본인의 수는 인구대비 14.6%로 인구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큐슈로 입국하는 외국인수에서는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분들이 큐슈를 오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18.3%, 한국인이 전체 외국인 중에서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관광이라는 것은 21세기의 성장산업입니다. 2000년에 국제관광 전체에서 7억 명이 전 세계를 움직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만, 2020년에는 20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수치도

나와 있습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제 1차 산업에까지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고용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문제에 있어서도 큰 테마파크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아도, 자신들의 역사적인 유산, 문화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는 등, 그렇게 할 경우에는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와 동시에 말할 필요도 없이 매우 평화로운 산업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배분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국제관광수지는 2003년에 2천3조엔의 적자였습니다. 무역흑자에 비해서 국제관광에서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배분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2003년에는 1,686억엔의 관광수지가 적자를 냈습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추이를 살펴보면 99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일우정의 해인 금년에 더욱 증가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디 이 경향이 빨리 풀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의 추이는 2003년에는 사스의 영향으로 감소했습니다만, 2004년에는 과거 최고의 기록을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4만명에서 2004년에 한국인은 177만명, 합계 441만명 정도가, 작년에 441만명이 상호 양국을 방문하고 이미 이런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어제도 논의가 되었습시다만, 전략적 기업제휴를 촉진한다는 것을 먼저 언

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보교류의 추진, 새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각국의, 양국의 투자환경 등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 정보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술판매의 상호활용에 따른 시장 확대, 리스크 감소, 서비스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런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물적 교류에는 당연히 자금과 인재, 기술, 판매, 물류와 같은 서비스 업종의 교류가 함께 세트가 되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물건의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양사가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양국에 있어서의 서로가 새롭게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기업과 제휴를 함으로써 리스크를 감소를 하고, 매우 적은 비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전략적 기업제휴를 촉진하는 것, 이 예로는 소니와 삼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산학연계가 되겠습니다. 한일 양국 모두 과학기술이 발달한 그런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에 있어서의 생활을 상호 활용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 예를 들자면 차세대 산업분야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분야, 대체에너지 분야 등 얼마든지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도 국경을 초월한 산학연계라는 것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큐슈에서 작년부터 큐슈-아시아 경영비트라는 것을 차세대를 담당할 각 기업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우수한 인재

를 1년간 전 세계에서 여러 방면의 우수한 교수님들을 모셔와 한 곳에 모아 연수를 하는 그런 것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비교적 잘 운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꼭 한국에서도 참가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상호인증의 확대라고 써 있습니다만, IT기술자에 있어서는 이미 상호인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외의 분야, 의사, 간호사, 개호사 등 다른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에서 상호인증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적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문적, 기술적 분야의 상호인증에 따른 국경을 초월한 인재 이동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일간의 서비스업에 있어서의 일체적 비즈니스 환경의 정비를 민간이 전력을 다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비해서 매우 복잡하고, 또 다양한 분야에 걸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비과세장벽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서로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FTA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清水 紘一郎 코디네이터 : 이시하라 사장님, 감사합니다. 큐슈에서 실제로 한일 간 인적교류에 공헌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경제교류에 있어서 인적교류가 그 근본에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관광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주 공

감을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국측 코디네이터 김희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金熙勇 코디네이터 : 네, 감사합니다. 보통 이러한 회의가 시간이 많이 오버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은 아주 조금 밖에 오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양측 백그라운드 페이지 발표를 마치고, 한 20분 동안 커피 브레이크를 한 후에 다시 이 방에서 오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발표자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 <Coffee Break>



### (3) 自由討論

**金熙勇 코디네이터** : 그림 이제부터 자유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한국측으로부터는 ‘한중일 문화공동체의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주제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일본측으로부터 ‘한일해협교류권의 현상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를 베이스로 여러분의 폭넓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표테마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의견이나 질문이 계신 분은 거수해 주시면 사무국에서 무선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사명과 성명을 발표하신 후 의견이나 말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시간은 5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和地 孝 텔모(株) 代表取締役 會長** : 텔모의 와치라고 합니다. 이선생님의 문화에 대한 매우 시사적이고,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을 겸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이야 말로 문화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경제인들이, 우리 경제인들이 문화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가지지 않는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일·일한 양국만큼 선진성이 높은 나라는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美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국가도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후에 양국 모두 의식주가 아주 최대의 파제를 엮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주

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놀이문화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갔고, 또 건강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름다움이라는 가치관이 이제는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저는 앞으로 손해인지, 이익인지, 또는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또는 자기 판단으로 옳은지, 옳지 않은지 하는 가치기준보다 앞으로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 이와 같은 가치관을 양국이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인적교류가 저는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양국에는 새로운 설비를 만들지 않더라도 오래된 역사적인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름다운지, 그렇지 않은지 라는 가치관을 양국에서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한 인적교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움직임은 어떻게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선생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李御寧 中央日報 顧問** : 아주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보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 아름다우냐, 아름답지 않느냐, 인간이 살아가는 가치관에는 영역이 다릅니다.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는 경제적인 것이고,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는 이데올로기 문제지만, 아름다우냐, 아름답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적인 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옛날부터 국경을 넘는다고 했고, 일제시대 때의 독립군이 일본에 대해서 항쟁을 할 때에도 일본의 많은 작가들은 한국인

의 정치나 경제에 관계없이 이시카와 라쿠고쿠라든가 또는 요시다 겐지로, 대중작가입니다만, 시마자키 도손, 이런 사람들이 지배, 피지배, 일본인, 한국인이나 하는 것을 넘어서서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돌이킬 때 일본인에 대한, 또는 일본문화에 대한 것들이 정치적인, 극단적인 반일에 흐르지 않고 그 밑에 인간이라고 하는 통로가 늘 열려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해방 후에 외교를 같이 하게 된 것이고, 경제활동을 하게 된 것이고, 오늘날 저 많은 인적교류를 하게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문화가 밑바탕이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아시아권 문화공동체라는 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오늘 발표한 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현재 '아시아문화공동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운동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러한 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전 아시아나 회장이었던 박성용 회장이 만든 페이퍼입니다. 이 건은, 그걸 소개한 겁니다. 참고로, 오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분이 이 운동을 해서, 금년 우정의 해니까 어떻게든 해서 경제공동체나 이와 같은 걸 만들기 이전에 그런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을 하자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분명히 우리가 오늘 토론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매우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미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제도화나 institution,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백 년 전에 화약, 인쇄술, 모든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는 3P라고 하는 말이

죠. 파우더, 퓨리타는 이쪽 프로테스탄트는 유교가 되겠죠, 그리고 이 뽀니까, 이 프린팅, 심지어 제련술까지... 중국이 7백 년 전에 했는데 왜 영국과 같은 산업주의를 못 만들었을까요? 특허법은 못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기술이 발달을 했는데, 법으로 그 기술을 보호해 주지는커녕 일본의 막부에서는 새 기술을 만드는 사람을 법령을 만들어서 법으로 제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비행기나 자전거도 훨씬 유럽보다도 먼저 만들 수 있었던 공인들이 많았는데 막부에서 철저하게 새로운 기술을 막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장난감 만든 것입니다. 이래서 일본이 장난감이 세계에서 제일 발달되고, 특히 가라쿠리, 오토메이션 만드는 것은 일본이 최고인데, 그게 산업으로 이용됐더라면 근대화가 훨씬 빨랐습니다. 제도화를 못했다. 이것은 전문용어로 노머스라고 그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늘 핵심은 서로 다 알고 있는 애긴데, 어떻게 제도화로 만드느냐,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 때 그 때 무슨 문제가 터져 나오면 감정론이 되고, 감정적 대결이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화 할 수는 없는가, EU라는 것이 독일하고 불란서가 그렇게 사이 나쁘게 전쟁했는데 EU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두 나라가 EU를 끌고 나가는 지도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불행한 과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노머스를 만들어 봅시다. 힘 있는 사람은 지금 보면 문화인하고 경제인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문화의식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노머스를 못 만드는 거예요. 또 이익관계나,

의로우나, 의롭지 않느냐의 질문만 하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 기반인 美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지금 유학간 학생수를 보면, 초등학생이 490명, 중학생이 135명, 고등학생이 72명, 근데 일본에는 한국에 어려서 조기유학을 왔거나 오는 사람은 거의 지금 데이터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에 관한 한 관광은,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인적교류 이런 건 지금 그래프로 그려지는데, 문화산업은 막대기로 절대로 그려질 수 없어요. 그래서 2004년에 처음으로 문화부에서 문화데이터에 데이터베이스를 새로운 방법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문화가 6억 불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저 총 무역액으로 10대 산업분야는 6억 불 내 보내고 6억 불 들여와서 제로-제로예요.

문화산업이라는 건 한국에 있어서는 제로입니다. 물론 이 10대 여기에는 광고, 출판, 애니메이션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10대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캐릭터 이런 것이 전부 상품에 붙어가고, CF같은 것 이런 것이 파급효과라는 걸 따지는 이 패러다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힘이 있으시니까, 경제하시는 분들, 우선 문화산업에 데이터가 없는데 무슨 서로 토론을 하느냐 이거예요. 토론할 수 있는 숫자화가 되어있는 것은 그거 이미 해결된 문제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시인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시인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 통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인은 CF에 카피를 쓰고, 겨울연가도 시인

들이 거기다 다 대사 쓰는 겁니다. 한국에 있어서 문화산업은 아주 미미합니다. 우선 고용효과로 보더라도 전체 이 문화계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들, 총 문화산업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숫자 같은 것이 발표된 것을 보면 47만 명에 불과합니다. 47만 명이 문화업에 종사하고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7만 명이 간접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예를 들면 휴대폰 디자인을 만들고, 또 무슨 관광 뭐 하는 데 거기서 뭘 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를 포함하면 전 기업인들이 문화산업의 인구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쓰는 말, 그 분들이 가서 하는 것 다 이게 홍보요원들이고, 바이어들이 전부 이게 문화전달자입니다. 제가 여기서 공연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경제 각 분야에서 홍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문화전략을 개개 중소기업에서부터 대기업까지 문화전략에 대한 것을 중역들이 한 달에 몇 시간만 회의를 해도 경제가 달라지고, 한일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는 토탈경영이기 때문에, 총체적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로 보는 관계는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삼성에 가서 문화전략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웃을 수밖에 더 있어요? 수십 조, 엄청난 돈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share는 회사에서 보면 그건 아주 높게 평가할 만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삼성의 미래, LG의 미래를 좌우하는 힘이 되는 큰 역할을 합니다. 우선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사회가 어떻게 되죠? 3D 아닙니까? 일본에서는 3K... 기타나이, 기켄 뭐 이거 아닙니까? 지금 3D가 뭐냐 그러면 DNA, digital, 아까 애

기한 대로 digital, design... 이거 전부 문화와 관련된 겁니다. 문화의 인프라 없이는 digital, DNA 이거 못합니다. 이거 한 마디만 들죠. 의학이라고 할 때 심장수술을 미국이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심장이식수술을 남아공한테 졌습니다. 그 이유 뭔지 아시죠? 남아공에서는 심장을 수술하는데 문화적 저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하트라고 그러면 마음과 정신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장이식수술에 대한 굉장한 문화적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술을 다 해놓고서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게놈이라고 하는 거, 바이오는 전부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특이한 문화에 의해서 허락되는 것도 있고, 허락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은 간장을 먹습니다. 간장을 먹기 때문에 식품들이 전부 바이옉니다. 발효식품... 서양들은 동물성 발효식... 그래서 어느 세계보다도 우리가 미국, 저 일본하고 한국이 바이오시장이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바이오분야에서 10년이나 앞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앞섰습니다. 왜냐 하면 간장을 먹기 때문입니다. 간장은 일주일이면 숙성이 되고, 6개월 걸려서 자금 투자하는 것을 일주일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 문화입니다. 그런데 왜 늦었습니까? 일본이 식문화의 간장이라는 것과 게놈이라는 산업을 연결해 가지고 가면 됐을텐데, 그게 특허를 못 만든다고 통산성에서 얘기를 하니까 메이저들이 전부 모여서 자금 투자 해 가지고 벤처처럼 만들었는데, 특허를 못 낸다고 하니까 다 해체되어 버린 거예요. 그거 미국에선 하잖아요. 이거 문화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답답하다는 것이 문화를 어떻게 기업과 접목시켜서 노머스화하고 정치와 노머스화 하느냐가 21세기에 서바이벌 할 수 있다는 큰 문명 패러다임을 정치가도, 경제인도, 일반 대중들도 읽지 못했을 때에 구태의연한 과거의 갈등양식이 빚어지게 된다. 문화는 오히려 마찰요소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헛팅턴은 문명충돌이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문명이 얼마만큼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문명을 충돌로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다원주의라는 게 얼마만큼 자국민에게 힘을 주는데 그것을 아이텐티티 해체라고만 본다 이거죠. 지금 노동계를 보십시오. 지금 노동을 해 가지고는 살아남을 데가 없어요. 아무리 노조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어도 기업의 근본인 막스 때부터 오는 노동관을 바꾸지 않고는 길이 없어요. 노동을, labor를 activity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고아원에 가서 봉사활동 해 가지고 봉사노동 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 했다 그러죠. 똑같은 노동을 제공하는데 왜 한 쪽은 activity고, 한 쪽은 노동이나 이겁니다. 노동 패러다임을 activity로 만들어 줬을 때 새로운 생산양식이 나오는데, 이제는 생산이 아닙니다. 소통입니다. 게놈에서 소통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주 적절한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美다 그랬는데 美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美는 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은 서로 통하지 않습니까? 기능적으로 보면 아무 이익이 없어요. 디자인이 바로 미적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의 점점 디자인의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상품

의 기능성보다는 상품이 내 마음에 드는 needs보다도 wants, 욕망의 경제학으로 바뀌고 있다. 근데 자꾸 needs만 하니까 불황이 오는 거 아니냐? over products 해 가지고... 의자가 없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의자가 있는데도 의자를 사게 만드는 것은 문화다 이거죠. 아름다운 의자를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수요 공급이 아니예요. 이걸 창출하는 게 문화다 이런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전부가 자본주의 시장이 됐는데, over products 하게 될 수밖에 더 있어요? 불황이 오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헤리포터라는 게 수백만 부 나갔는데, 그게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나갔습니까? 겨울연가가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천만이 DVD 샀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needs의 경제학을 wants의 경제학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익이라는 것을 아까 얘기한 미적인 감동, 충족의 것으로 바꿔주면, 촌바르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한일간의 무역마찰이라든지, 문화마찰이라든지 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누구도 손해를 안 봅니다. 일본이 이익을 보면 한국은 손해봅니다. 지금 패러다임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화는 일본이 이익을 봐야 우리가 이익을 봐요. 겨울연가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선생님의 굉장한 고무를 받는 것이 미의식, 다시 말하자면 문화의 소통의식을 갖는 것이 경제인이 문화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의식을 갖는 거다. 이걸 얘기해 보면 아까 얘기한 문화공동체는 자연스럽게 경제공동체가 되고, 경제공동체는 자연히 초네트워크 국가가 된다.

여러분들께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EU가 만들어졌을 때 國歌를 무엇으로 하느냐, 아시아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이 초국가 됐을 때 국가를 무엇으로 하겠느냐, EU 國歌를... 엄청나게 싸움할 거예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베토벤이 있기 때문에 환희합창곡이 그냥 그대로 國歌로 불리는 거예요. 베토벤은 유럽인이었습니다. 독일인도, 오지리인도 아니라 유럽인이었습니다. 아시아에는 불행하게도 일본이 책임지고, 중국이 책임져야 할 문제지만, 누구도 아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시다. 우선 아시아에 細자 붙어있죠. 작은 파일, 작은 거... 대 중국이 細자 들은 아시아에 자기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일본 대제국주의가 細자 붙은 아시아에 자기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거 마테오리치가 아시아를 해 쫓을 때 중국은 중국 아닌 게 아시아고, 일본은 일본 아닌 게 아시아라고 생각, 한국도 자기를 별로 아시아라고 안 생각해요. 그렇게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공동체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문화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데, 아시아인의 작곡가가 누구입니까? 아시아인의 작가가 누구입니까? 옛날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인들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질문해 주신 美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상품이 되고, 제조가 되고, 하나의 공동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오늘의 이 회의의 큰 성과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清水 紘一郎 코디네이터 :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일본측에 이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FTA에 관해서 스미토모상사

의 명예고문님께서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아키야마 명예고문님이십니다.

秋山 富一 住友商事(株) : 지명을 받은 아키야마입니다. 지금 이어령 선생님, 그리고 이시하라 사장님으로부터 매우 귀중하고, 의미 있는 발표를 매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이 회의에 참석을 해 왔습니다만, 이선생님이 말씀하신 발표내용, 즉 한일의 문화공동체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시하라 사장님의 말씀도 매우 유익하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큐슈가 어떻게 한국과의 교류에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그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감명 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큐슈에 가면 그야말로 한국어로 된 표지판이 많이 있으며, 그 외에도 눈에 띄는 곳마다 모든 곳에 한국 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아까 나온 그래프에도 나와 있었던듯이 정말 많은 분들, 매년 현저히 증가를 하면서 한국에서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시하라 사장님을 비롯한 큐슈에 계신 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전에 이 회의 후에 큐슈에 있는 리츠 메이칸 대학에 아시아태평양대학을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과 만나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 매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도 아마 장래

한일간의 교류, 또는 이해를 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시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시하라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큐슈에 계신 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회의에 출석을 하면서 사실은 내심 지금의 한일간의 관계를 돌이켜보면 과연 어떤 회의가 될까 하는 생각, 또한 실제로 이곳에 와서 한국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또한 신문보도 외에 실제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실까 하는 점을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에게 있어서 제가 했던 그런 걱정은 이곳에 와서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시하라 사장님의 말씀에서도 있었지만, 교류의 수, 사람의 인원수에 있어서는 최근 몇 개월 동안 급격히 줄고 있다. 그런 언급이 있어서 그 심각성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러한 점이 빨리 해소가 된다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커다랗게 보면 큰 문제없이 이대로 계속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 편에서 인식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저희가 노력을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통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오늘의 회의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때야말로 이런 교류, 이런 식의 경제회의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매우 밝은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교류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지만, 그런 문화교류를 통해서 발생하는

많은 인적교류, 그리고 배용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시다만, 일본에서도 많은 붐이 불고 있습니다. 일본의 남자 분들은 매우 부러운 심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큰 에너지가 되어서 양국의 관계를 더 좋게 하는 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어제부터 여러분께서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십시다만, FTA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한일 양국간 FTA에 대해서는 꽤 오랜 기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마 처음으로 언급이 된 후 6, 7년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도 그 안에 한 때 속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민간에서는 이미 기반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항상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 문제라고 하는 것, 즉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먹혀, 그러니까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은 물론 지식인들, 학자 분들의 숫자, 또 연구한 실적에서 보면 그러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경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양국에 있어서 반드시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즉 민간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된다, 플러스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이 양국의 큰 틀의 합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서 이 문제가 양국정부 간에서 논의가 중단이 되고 있는 점이고, 저도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점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문제와 같은 큰 문제가 걸려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든 이 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이 되고, 체결로 이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바입니다.

인접국가간의 교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그랬었구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역시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겸허함, 겸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웃국가간의 교류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도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먼 친척보다 이웃이 더 가깝다’라는 속담이 일본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간의 관계도 하루라도 빨리 FTA가 체결이 되어서 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 매체에서 오늘의 회의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호의적으로 이 회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매우 든든하고,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일종의 한일간의 성숙도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이것이 미래를 위해서 아주 밝은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느끼고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감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제인들의 노력이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清水 紘一郎 코디네이터** : 아키야마 명예고문님께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건설적인 코멘트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金熙勇 코디네이터** :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한국측에서 혹시 질문이나 의견, 안 계십니까? 너무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사실 더 보탬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만, 이런 때 의견을 내 주셔서 서로가 또 의견 교환을 해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林 堅太郎 立命館아시아太平洋大學 副學長** : 한국측이 아니라 지금 아키야마 고문님께서 소거를 하셨던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의 하야시라고 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두 분 선생님께서 보고를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제안 비슷한 것, 즉 제 의견을 잠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그것은 이시하라 사장님이 국제적 인재육성이 이 동북아시아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점과 이 선생님께서 이 동북아시아의 문화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보고서에서는 동북아시아대학, 또는 대학원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하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부연이라고 할까요, 제 제안을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는 저는 이 동북아시아대학이라는 것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첫번째 단계로서는 동북아시아대학의 컨소시엄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와 경제계, 대학이 참가해서 협력을 하고,

사무국도 설치하는 형태로 컨소시엄 같은 것을 만드는 것, 즉 동북아시아의 버추얼 화입니다. 그것은 이미 동북아시아의 연구라는 점에서 살펴본다면, 환황해 연구, 환일본해(한국에서는 환동해라고 합니다만)의 연구는 학계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각 지역의 대학에서도 동북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각 개별적으로, 너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종합적인 힘을 발휘하는 자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연구활동이라는 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과 같은 공동의 플랫폼으로써 컨소시엄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EU에서 에라스무스와 같은 학생교육에 대해서도 실제 지금은 대학과 대학의 교환유학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대학의 학생들의 국제적인 유학도 가능해지리라고 생각이 되며, 이 플랫폼 컨소시엄을 통해서 교육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표준화, 또는 국제화도 검토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공동의 텍스트를 만들어서 교육의 생산력을 국제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도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단위, 또는 국가단위로 대응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아시아 지역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북아시아의 대학을 만들 때 이러한 대응으로 나아가는 것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컨소시엄 또는 대학 그 자체가 되었든 간에 만들 경우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 APU라고 합니다



만, APU도 하나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5년 전에 사카모토단원이 학장이실 때 설치를 하셔서 만든 대학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평화, 자유, 휴머니즘이라는 이념, 그리고 국제적인 이해, 종합이해를 심화하자라는 내용, 또한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시대에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념으로 만든 학교입니다. 현재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4,500명 정도의 학생 중에서 50%가 일본 국내학생이구요, 10% 이상 503명이 한국으로부터 오신 유학생입니다. 중국은 10%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한중일만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생의 출신지역은 74개 국가 지역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아마도 일본의 대학, 또는 아시아 대학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하나의 이유는 APU의 경우에는 일본어와 영어의 bilingual 교육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 대학을 만들 경우에도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대학에서는 각국의 정상, 그리고 기업에서 200여 명이상의 어드바이저가 멤버로 사회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APU의 국제적인 협정, 160개의 대학기관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중등교육과의 연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지요. 이 부분의 연계를 생각하면 추천교정이 3배 이상 있습니다. 그와 같은 환경 하에서 사회환경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는 APU라는 것이 두 번째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험은 이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로 다문화의 캠퍼스,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

으로 인한 생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지가 합쳐져서 APU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오늘날 100%에 가까운 졸업생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인재로서 사회에 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는 영어와 일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trilingual의 국제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대학, 또는 컨소시엄이라고 할 때는 역시 이같은 bilingual 또는 trilingual과 같은 이러한 능력을 갖춘 학생을 키울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공동으로 이를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점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清水 紘一郎 코디네이터 :**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하야시씨로부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金熙勇 코디네이터 :** 저희들의 생각을 훨씬 앞서가는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아주 활발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씨를 뿌려서, 이제 뿌리가 내려서, 좀 더 발전을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날이 빨리 좀 오기를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우리 생각에 정치가 개입이 되면 이게 또 옆길로 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우리 경제인들이 앞장을 서서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러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FTA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저희들이 공연한 우려를 하고 있다. 언젠가는 다 잘될 걸 알면서 당장 잘 안 풀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나는 말이 어저께 제가 걱정했던 내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장애가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아마 FTA가 체결되고 나면 ‘거봐라, 아무 문제도 없었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안심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인들은 이 FTA 문제는 조금도 염려 없이 계속 꾸준히 추진을 해 나가면 머지않은 장래에 해결이 되고, 아무런 장애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다시 또 플로어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네, 저쪽에 계십니다.

**李佑光 三星經濟研究所 首席研究員** :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일본연구를 하고 있는 이우광 수석연구원입니다. 저는 저희 연구소에서 한일FTA를 작년에 세미나도 주최를 하고 해서 한일FTA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시하라 사장님께서도 FTA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고, 지금 사회자님께서도 FTA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FTA에 대해서 여러분들, 특히 일본에서 오신 분들한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기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어령 전 장관님께서 경제적, 정치적 요소 이외에 문화적 요소로 한일관계를 풀어나가는 방법으로써 여러 가지 문화공동체 말씀을 해 주셨는데, FTA를 정치적, 경제적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풀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었을까 하는 것을 나중에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한일FTA가 장기적으로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런 인식이 일본에서 많습니다. 하지만은 한국의 경제인들, 특히 중소기업, 이런 사람들은 당장의 손해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어떤 확

신을 못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뭐가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하는 데 대한 확신을 일본측에서도 못 주고 있고, 우리 한국측에서도 못 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기술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인적교류, 조금 전에도 이 인적교류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최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일본측 FTA 주장에 보면 지적소유권 강화 문제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일본이 많은 돈을 들여서 기술개발을 한 것을 한국기업들이 공짜로 갖다 쓴다, 뭐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한국기업인들이 그런 면에서는 존중을 해 줘야 될 문제지만, 기술이라는 건 또 어떻게 보면 높은 데에서 낮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기업인들이 존중을 해 줘야 되지만은 일본이 과도하게 기술이전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나 하는 측면도 한국기업인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삼성뿐만이 아니라 하이닉스, LG 해 가지고 일본에서 계속 지적소유권에 대한, 한국기업에 대한 제소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적교류, 기술자의 한일교류의 문제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마스크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만, 나리타공항에서 일본의 기술자가 한국으로 가는 것을 감시하고 있을 정도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은, 비즈니스한 측면에서는 양국간에 서로 존중해 주고, 또 보수는 받고 하는 비즈니스 룰이 확립이 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그게 너무 과도하게 한국기업

을 경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일FTA가 되었을 때 과연 한국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경제인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그런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일 기업간에 진정한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교류, 인적교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초점이 기술이전, 그 다음에 기술자들을 한국에 파견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마 한국기업인들이 가장 장기적으로 일본기업에 대한 안심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이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장관님께서서는 정치,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FTA를 좀 부드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御寧 中央日報 顧問: '두 사람의 만남은 두 사람이 함께 변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과 일본이 서로 만나면 옛날의 한국, 일본이 아닙니다. 서로 바뀌어 집니다. 한 쪽만 바꾸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메노 모리호슈를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아메노 모리호슈는 여러분들이 역사왜곡 이런 거 지금 이슈 말고 왜관에 대한 연구를, 인터넷 들어가면 그냥 엽니다. 오늘이래도 밤에 왜관, わかん이라고 한 번 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 지금 FTA랑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왜구들이 하도 침범을 해 가지고 피해가 많으니까 양성화하자, 우리한테

와서 장사를 해라, 그러면 한국에 머무르면 쌀 주고, 다... 급료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지금 salary처럼... 그렇게 해서 네 군데의 포구를 개방합니다. 그렇게 해서 협정을 맺습니다. 그런데 산에서는 절대 나무를 베어서는 안 되는데 벌목합니다. 남자들만 왜관에 있으니까 여자를 겁탈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삼포의 란'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와해가 돼 버렸어요. 그 이후에 또 양국이 필요하니까 또 협정을 맺었어요. 또 파기했어요. 아메노 모리호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족인데도 '성심외교야말로 일본이 살고, 한국이 살 길이다. 성심외교를 안 하면 다시 왜구가 와서 한국을 괴롭히고, 우리는 양성화 돼 가지고 급료까지 받으면서 장사를 하는데 이 좋은 걸 놓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많은 시사가 될 것입니다. 성심외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까 얘기한 美, 뒷받침하는 믿음인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사람을 잘 안 믿습니다.

그럼 일본사람이 한국 사람을 믿느냐 하면 그건 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냐가 아니고, 어떻게 서로 신뢰를 하느냐, 신뢰하면 역사교과서, 독도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면 신뢰관계가 되는 거지, 말로 사과했다고 그래서 신뢰관계가 있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특히 다테마에와 혼네가 다르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자신들이 다테마에, 혼네 또 이렇게 네마와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막 자기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놔요. 한국인한테 정보 얻는 게 참 쉽다 그래요. 이렇게 차 사주고, 술 사주면 막 나 얘기를 하는데, 일본사람은 '聞き上手'라고 해서 잘 말을 안 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듣는데, 나오다 보면 결국은 누가 손해났나 그러면 술 사 주고, 정보 주고, 막 우쭐하던 한국 사람보다 가만히 앉아서 '하이하이'하던 사람이 많은 걸 얻어 가지고 나간다 이게 대부분 기업인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일본 비즈니스맨하고... 한국 비즈니스맨의 약점이 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속내를 참 많이 드러내요.

여러분들 혹시 이 독도 문제를 '와'하고 떠드는 걸 보고, '어후 한국사람 저거 왜 저러냐', 이렇지 몰라도 순수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순수하다... 오히려 떠들텐데 가만히 있고, 뒤로 뒀 해 가지고 이상한 짓하는 이게 무섭지 막 화나서 불사르고, 이거 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한국은 그래요. 우리가 떠들다 보면 일본한테 말린 거다 이게... 일본사람... 아이구... 우리 쿨하게 하자, 감정대립 안 하자 하면서 어느새 한참 하다 보니까 아 일본한테 이거 당한 거 아니냐... 그런 오랜 역사 속에서 왜관의 역사를 보면 세 번 파괴하고 세 번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조약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문화적으로 풀어서 하는 것은 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역사교과서도 공동체가 생겨서 대학에서 연구를 해 보면 일본도 아... 우리가 몰라서 그랬구나,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지금 교과서에... '일본은 쓰시마의 종가가 한국에 왜관을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했다... 누가 보

든지 쓰시마가 한국에 압력을 넣어서 자기 영토를 대지마처럼 하나를 확보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랫동안의 10년 가까운 discussion이 있었습니다. 합의하에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한국땅에다 만들었으니까 설치의 주체자는 한국이었지, 일본 왜구들이 와서 점령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마도가 왜관을 설치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쪽 학자들이 한국에서 설치했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대마도에서 설치했다, 그럼 대지마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설치한 거냐, 거기다가... 근데, 안 바꿨습니다.

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국에서 보면, 일본에서 보면 일본에서 설치한 거고, 한국에서 보면 한국에서 설치하니까, 이거는 서로 역사는 자기중심에서 쓰는 거니까 이걸 고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고쳤어요. 아무 것도 아닌 문제 아닙니까? 유일하게 한국과 일본이 임진왜란 후에 처음으로, 그 이전부터, 조선조가 생기기면서부터 처음으로, 한국 속의 일본, 일본속의 한국이 생겨나는 가장 중요한 왜관입니다. 그것을 대마도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 같은 것을 배운 학생들은 다음에 FTA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마치 내정간섭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역사에 자랑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건데, 한국 무시한 게 아닌데 왜 그러냐?' 이러는데 이런 것을 공정하게 따지는 것은 한국이 옳은지, 일본이 틀린지는 역시 학자들이 이런 대학을 만들고, 대학원을 만들어서 해 보면 양보할 것이 있고, 양보할 것이 없고, 그런 서로의 정당한 argument 위에 solution이 생

기는 거지, 편견과 고정관념에서는 절대 solution이 안 생긴다, 아까 기술문제인데 한 마디만 하죠.

서양이 오늘처럼 된 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생겼지만, 영국만이 산업혁명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의 서양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파트너가 있었다, 영국에 불란서가 있었고, 독일이 있었습니다. 이쪽은 물리적이고, 한 쪽은 화학적이고, 한 쪽은 수학과, 전부 이 기술을 보완해 가면서 유럽의 강력한 오늘의, 18세기 이후의, 그전까지는 후진국이었던 유럽이 전세계를 제패합니다. IT는 반도체도 일본이 만들고, 한국이 만들고, LCD도 우리가 만들고, 이 휴대폰 우리가 만들고, 전부 만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는 한국, 중국이 아닙니다.

조금 넓게 무대를 가져가면 옛날에 일본 기술 준 것, 붓, 먹, 종이, 활자, 도자기... 1616년의 도자기의 후진국 아닙니까, 일본이... 그 도자기를 가지고 가서 아카요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무역을 해 가지고 유럽에서 흑자를 내지 않습니까, 이마리 야키가... 기술이라는 전통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인접국가끼리는 기술을 아무리 봉쇄하려고 해도 봉쇄되지 않고, 또 준다 그래서 뺏기지 않는 것이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e니까 제가 한국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반도체기술, 알아도 독일, 미국, 유럽 못 만듭니다. culturer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기술은 있는데 culture가 없어요. 근데, 반도체기술 있거든요. 모 심은 사람들, 쌀 먹는 나라는 참고 견디고 하는, 그 참을성이 있고 하는 그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손재주입니다. 이 병아리를 암수감별할 수 있는 예민한 손

끝을 가지고 있는 건 일본하고 한국인입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돼요.

근데 BT야말로 우리 황교수 몇 초간이면 그 줄기세포 꺼내는데, 서양은 한 시간 걸립니다. 한 시간... 이런 손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win-win 작전을 쓰면 경쟁상대가 한국과 일본이 아니고 전 세계라는 것을 알면, 산업주의가 불란서,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다 기술 얻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electric이 electronics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이 구대륙의 기술을 받아서 유럽이 더 살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생태학적인 면에서 이전을 하고, 수평적 구조를 만들어서 이전하는 조건, 여러 가지 것을 상생의 조건으로 만드는 것이 커뮤니티, 네트워크 국가를 만드는 기본이라는데,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술을 전부 기술채국주의를 하면 일본 자신도 국제경쟁에서 떨어진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라다제작소가 휴대폰의 전세계 share를 거의 100%를 갖는 부속품을 대고 있습니다. 한국 애니콜이 전세계 나가서 팔리는 것이 일본의 부품이 그 안에 들어서 판매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도 그런 생각 잘 안 한다 이거예요. 한국이 잘 되니까 share가 커지고, 모토로라나 노키아를 이기면 일본에도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삼성만 잘 되는 게 아니다, 소니하고 제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공동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copetition이다. copetition이라는 게 뭐냐... cooperation, 협력하는 거하고 cooperate 하는 거 하고, competiton 하고를 합치면 경쟁과 협력이 어우러지는 세계, 한국과 경쟁만 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만 해서는 안 됩니다. copetition으로 가자는 거죠. 경쟁과 협력을 함께 하는 커뮤니티입니다.

부자지간에도 경쟁하는데, 화내니까 덮어 놓고 경쟁 안하고 뒤흔치고 이러는 애기가 아니죠. copetition을 하자. 이 copetition이 되려면 제도화해야 된다, 시스템화 해야 된다, institution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정치가에게 기대하기 보다 문화인에게 기대하기 보다, 경제하는 사람은 가장 이게 빠르니까, 이해관계나 시스템에서 공생관계, win-win 작전이니까 그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기술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그러한 블록 단위의, global이 아니라 local단위의 경제가 생겨나고 있는데, 일본만 local이 없다, EU local 있고, 미국 NAFTA 해서 있고, 이슬람도 있고, 세계에 local culture를 안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딱 한 군데예요. 일본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오늘 서로 화기애애하게 하자 해서 내가 참았지만, 일본의 책임이 대단히 많다, local이 안 되는 건... 우선 대국이 되면 관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중국이 그렇게 중화정책 쓰고, 일곱 번 절하고 무릎으로 기어가야 하는 그런 중화사상을 가진 중국도 대국다운 tolerance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시아를 지배하면서도 했는데 일본은 강국이면서도, 대국이면서도 tolerance가 없다, tolerance가 없으면 식사를 어떻게 해요? 번역체가 다르면 절대 바깥의 것을 못 들여옵니다. tolerance가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시스템이 다른 번역체를 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에서 T세포에서 토로젠인가, 관대세포를 만들어서 나와 다른 것을 흡수하는 세포를 첨가해서 만드는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의학용어로 tolerance, '관대'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대국이 되는 연습을 문화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 관대함이 일본을 살리고, 일본을 고립화하지 않고, 아시아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힘 있는 자가 할 수 있지, 힘없는 자는 못하는 겁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 관용이라는 것은 힘 있는 자의 논리지, 약한 사람이 관용을 하면 비굴이고, 복종이고, 굴욕인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비로소 관용을 내릴 수가 있고, 덕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안하려고 한 건데, 오늘 경제인들은 아십니다. 이 얘기를... 정치인들이 얘기하면 자신이 한국인이니까 저런 소리 하지... 이렇게 오해하지만, 경제인들은 더 중요한 것이 경제적 효과로 되돌아온다는 win-win 작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제세요.

그래서 FTA 뿐만 아니라, EU 정도까지는 가지 않아도 네트워크 국가가 안 되면 세계 경쟁을 못합니다. 왜... 지금 중국과 일본이 한참 반일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싸우는데,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떨어져 나가면 러시아·인도·중국의 대륙세력이 작년부터 summit를 하고 있는데, 그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유라시아의 대륙라인하고 영국·미국·일본의 해양라인이 또 한 번 충돌합니다. 중국하고 일본이 충돌하는 게 아니예요. 어쩔 수 없이 충돌합니다. 한국은 늘 그렇듯이 해양세력하고 대륙세력의 반도세력이기 때문에 한국이 어디 가 붙느냐 양쪽에서 붙입니다. 또 사이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집니다. 거꾸로 한국이 조금 더 강해지면 두 세력을, 군사력으로 얘기해 균형론이 아닙니다. 두 개를 융합할 수 있는 한국이 대단

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FTA가 밝다, FTA 꼭 해야 되겠다, 그 다음 농업이 문제다, 농업이 왜 문제입니까? culture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 스시하죠? 스시, 저 초밥... 초밥에는요, 거기에서 생선 날 거로 먹으니까 무슨 시대입니까? 조몬지다이거든요. 승문사대예요. 그게... 그리고 쌀은 농업시대니까 채집시대에서 농업시대로 왔어요. 이것도 회전판에다 놓고 먹으니까 이게 공업시대예요. 스시 하나 먹는 걸 봐도 저 채집시대, 농업시대, 공업시대, 여기에 IT, BT 다 있어요. 일본문화는 중층적입니다. 서양은 버리고 오는데, 일본은 옷도 팔층으로 입듯이 겹겹으로 입어요. 겹으로... 그러니까 공업국가나 IT나 BT로 빨리 산업을 체인 지해야 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건 못 버립니다. 채집까지도 못 버리는 거예요. 김 이런 거... 대답하게...

지금 독도 왜 생겼습니까? 어업권 때문에 생겼어요. 지금 바다에서 고기 낚는 것보다 정보를 낚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아직도 어업권이 국가의 존망지추처럼 알면 꼭 충돌하기 마련이죠. 양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분쟁하기 전에 일본은 바다에서 고기 잡던 일본이 빨리 정보를 잡아야 되고, BT 잡아야 되는데... 바이오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의 culture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culture가 만들어지면 tolerance도 생기고, 산업에 대해서 일본이 one-set가 아니고, 이건 우리가 할게, 일본은 이거 해라, 한국은 이거 해라, 중국은 이거 해라, 이렇게 해서 기러기들이 제일 앞에 날라 가면, 뒤 기러기는 71%의 에너지를

연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거리를 나는 거죠. 어떤 기러기도 혼자서 외기러기는 절대 못 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일본이 제일 선두에서 간다고 자꾸 이러는데, 그러면 프라이드가 있고, 꼴찌 가는 사람은 늘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기러기 잘못 연구한 거예요. 기러기는 첫 번째 나는 것이 지치면 제일 후미에 붙고, 차례차례 후미에 붙어서 기러기는 순환하지, 일등이 혼자 있고, 꼴찌가 따로 없습니다. 아시아를 한번 거꾸로 읽어보세요. 아시아는 거꾸로 읽어도 아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협력이 된다 이거예요. 순환하면... 근데, 누가 금은동으로 하니까 밤낮 금은동랭킹화하니까 경쟁을 치르게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쓴 것이 '잔켄분메이론'이라고 이게 열흘 전에 나온 건데...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에 이기는 사람 봤냐? 이건 이게 이기고, 이 건 가위가 이기는데, 가위는 또 주먹한테 져요. 이렇게 한국, 일본, 중국이 서로 가위바위보 게임처럼 순환하면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 관계만이 아시아의 하나의 공동체가 생겨나지, 금은동으로 하면 누가 동 되려고 하겠어요? 누가 밤낮 금만 되게 봐두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삼성연구소에서 말씀하신 한국인들이 기술 달라는 것은 우리 이기주의가 아니라 대국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리스크를 감당할 때 대국이 되고, '거의 뭐 같은 나라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아깝겠는가, 큐슈사람이 저쪽 관동에서 관서정도의 기술이전,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되지 않느냐...

한 가지만 더하죠... 지금 여러분들

LCD TFT 해 가지고, 지금 다이오드 해 가지고, 열없는 빛깔이 나오는, 이제 흰색 까지 만드니까 조금 있으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텔레비전하고 LCD TFT같은 거, 열없는 영상이 생기죠, 일본은 큐슈 이런데다 실리콘밸리처럼 만들어서 전부가 기업에다가 경쟁력 있게 이걸 나눠 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어느 한 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기술을 일본사람들이 share를 하듯이, 한 기업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더 키우면 한 기업이 독점하는 기술을 새 기술을 서로 share하자, 그러한 마음을 조금 더 키우면 하나의 커뮤니티가 생겨서 기술공동체, 문화공동체, 경제공동체, 정치에까지도 공동체가 생기는, 이렇게 step by step으로 가는 것이 생기면 FTA의 장래는 밝고, 그 밝은 것을 위해서는 빨리 한일 양국간에 문화적 접근과 문화적인 이해와 문화를 더 넓혀주는 이해가 앞으로 와야 되지 않나... 이것이 지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 것을 얘기했는데, 오해하지 않으시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한국인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일본에 가면 또 반대로 일본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얘기를, 또 한국측 비판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고, 한국인이 일본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 때 커뮤니티가 생기는 거지, 서로 자기이해만 얘기를 하면 뭐하러 협력체, 이런 회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사실은 내가 덕담만 하고 말라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꼭 한국에 기술 주라 이런 이야기처럼 돼서 참 민망스러운데, 사실 본의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왔을 때는 일본에 도움이 되는 얘기 하고

싶고, 일본에 가면 한국에 도움이 되는 얘기 하고 싶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마침 삼성연구소에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꼭 그 손님들 불러다 놓고 한국에만 이로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 점은 오해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金熙勇 코디네이터** : 네. 이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화의 이해가 경제와 정치를 이끌고 능가하는 그러한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많이 이해하셨을 줄 압니다. 자 다음에 또 보충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瀬戸 雄三 (社)日韓經濟協會 會長** : 세토입니다. 입장상 제1분과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제 발표가 끝나고 제2분과회의에서는 여러분의 자유토론에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앞에서 이선생님께서 한국인은 항상 발언을 한다, 그리고 일본은 잘 듣는다, 그래서 결과로 한국인이 늘 손해를 본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선생님께서 아주 강력한 주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측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문화공동체와 관련을 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삼성 관계자 분께서 말씀해주신 기술이전에 대한 문제도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동 문화교류에 있어서 저희 일한경제협회에서 1월부터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양국 고등학생의 교류사업입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회에 걸쳐서 1회에 약 100명, 양국 각각 50명씩 총



100명의 고등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네 번의 교류회를 가졌습니다. 총 400명이죠... 공통된 테마를 가졌었는데요, 2박3일 합숙을 했습니다. 이 테마라는 것이 서로의 문화, 식사라든지 그와 같은 것을 테마로 하여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 수 없는가라는 테마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 분위기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자면, 먼저 고등학생들이 모였을 때의 분위기는 좀 조용한, 가라앉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고등학생이 아주 어그레시브했기 때문에, 한국어로, 영어로 일본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자, 즉 10분 정도 지나니까 양쪽 고등학생들이 아주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2박3일간의 토론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공통테마를 가지고 철야를 해서라도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을 아쉬워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네 번 모임에 모두 다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그런 작별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화교류, 기술교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좀 더 젊은 때부터 양국 국민들이 교류를 함으로써 상대방 국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상문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상대국에 대해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고등학생의 감상문을 보면 '일본인은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럽지만, 마음은 차가운 사람들이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또 속는 게 아닌가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 일본고등학생들을 만나고 나서는 아주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것

을 알았기 때문에 '한국인과 똑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양국 고등학생의 의견을 보면 '한국인은 반일인 사람들이 많다'라고 일본측 학생들은 생각을 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평생의 친구가 될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은 친구들이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일본측 고등학생의 감상문이 있었습니다. 역시 양국민은 서로 상대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 솔직한 의견교환이 역시 먼저 필요합니다.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상대방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양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실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기술협력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1분과회의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소류시멘트와 태평양시멘트, 포스코와 新日鐵의 협력문제가 있었는데, 긴 역사 안에서 서로가 신뢰를 가지고 기술을 협력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양쪽이 win-win 관계가 되었다는 아주 훌륭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기술교류라는 것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상호가, 서로가 신뢰를 하고, 아까 고등학생들의 교류처럼 상호신뢰를 함으로써 그 신뢰 위에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바탕 하에서 기술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부연설명을 하였습니다.

金熙勇 코디네이터 :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韓國側 코멘트 : 오늘 이선생님, 이시하라 사장님께서 아주 귀중한 코멘트를 들려 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일 양국의 여러분의 코멘트도 아주 저에게는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본의 항공회사 ANA, 全日空에서 40년간 일을 해 왔습니다. 신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꽤 이전부터 중심이 되어 해 왔던 것이 하네다 공항의 확장과 그리고 그 일부 근린 각국에 대해서 국제선을 확대할 수 없는가 하는 그런 활동이 있었는데요, 역시 일본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미 국제선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반드시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시아나항공과 5년 전부터 아주 깊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마찬가지로 저희 입장을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교환이 자유롭게 되고 있는데요, 서로 상호간에 상호여론, 그리고 의견을 정리하는 노력을 해서 하네다와 김포노선이 지난번에 개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전일본, 일본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일의 총 4개의 항공사가 하루 한 편씩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아시아나 박희장님께서 일본을 찾으셔서 많은 일본인들 앞에서 아주 훌륭한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더욱 확대시키고 싶고, 또 이 두 배로 더 한일간에 증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대찬성입니다. 저희 주장은 사실 일본 국내에서

여론으로서는 굉장히 무르익고 있습니다. 하네다에 이제 또 하나의 활주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2009년부터는 도심에 가까운 편리한 하네다공항의 발착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때는 부디 한일 양국 항공사가 가능하면 30분, 또는 15분 간격으로 셔틀편과 같은 그런 비행기를 하네다와 김포 사이에 띄우게 되면 매우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비즈니스맨 여러분들은 바로 그 날 일을 보시고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일 양국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인프라 정비로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중국 분들에게도 제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수도는 베이징인데, 아무래도 일의 중심이 상하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하이에 국제적인 공항이 있습니다만, 국내 공항은 도심에 더 가깝습니다. 하네다와 舊상하이의 지금 국내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항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와 같은 요청을 지금 중국측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 또는 일중의 주요도시를 이와 같은 최단거리로 연결한다는 것은 아주 장래에 커다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봅니다. JR큐슈의 비틀의 경우도, 저도 실은 큐슈출신인데요, 큐슈와 한국의 경제권이 융합이 되고 있고, 또 관광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철도, 선박, 비행기, 또는 자가용, 버스도 그렇겠지만 상승효과가 나와서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은 경제적인 번영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물론 있지만, 작년에 실은

아시아나의 많은 친구 분들과 술을 한 잔 하면서, 우리는 조용히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해 나가자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점에 대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참고가 되신다면 이와 같은 움직임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감사합니다.

**清水 紘一郎 코디네이터** : 감사합니다. 저도 하네다는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日本側 코멘트** : 일본항공의 관련자입니다. 지금 좋은 화제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연하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올해가 한일우정의 해라고 해서 국교정상화 40주년이라는 해를 맞이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취항을 해서 4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이선생님, 이시하라 사장님의 말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향후 전망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신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희도 이와 같은 교류에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이고, 또 노선을 확대해서 이와 같은 교류를 또 만들어 내야 한다는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네다-김포간이 2003년 11월에 오픈한 이후로, 아직 하네다의 규모가 아직 작기는 합니다만, 요즘 매달 90%, 거의 만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불평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 이후에는 하네다의 제4활주로가 확장이 됩니다. 그 때까지는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사이에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하네다-김포간의 항공편수를 두 배로 늘

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양적강화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쾌적하고, 또 빨리 여행할 수 있는지, 항공권의 전산화라든지, 공항에서의 보안문제, 바이오메트릭스를 사용해서 순식간에 체크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검색방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항공운영에 대해서는 공항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천도 제3, 제4의 공항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철도도 몇 년 안에 만들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네다도 제4활주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자 여러분과 협력해서 교류인프라를 정비해 나가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清水 紘一郎 코디네이터** : 감사합니다. 교류촉진에 많은 힘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金熙勇 코디네이터** : 네. 감사합니다. 아마 1분과 위원회에서는 빨리 끝내시고, 또 저희 2분과 위원회에 들어와서 많은 얘기를 듣고 계신 모양인데, 저희도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말씀 해 주실 분들, 해 주시죠.

**韓國側 코멘트** : 저는 오늘 이장관님과 이시하라 사장님 이하 모든 선배님들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게 돼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본의 타이웨이라는 회사의 한국지사장으로 20년간 근무를 하고 있고, 제 나뉠대로의 수출도 일본 산요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 한 20년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타이웨이의 회장 아들과 20년 전에 connect이 돼서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 배려 아래,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일본 분들도 아마 한국에 많은 친구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결론이 되어선 안 되겠지만, 저로서도 일본에 갔을 때 모기업체의 한 본부장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상, 다케시마는 한국의 섬입니까, 일본의 섬입니까?’ 그 때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리고 오더를 받으러 가는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유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케시마는 일본의 섬입니다. 그러나 독도는 한국의 섬입니다’ 그러자 저한테 막 웃으시면서 ‘너는 앞으로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칭찬으로 듣고 굉장히 기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그 회사와 많은 인연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사람이기에 통할 수 있고, 사람이기에 변화될 수 있고, 사람이기에 합의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감히 갖게 됩니다. 저는 저희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와서 ‘아빠, 학교에서 일본사람이 나쁜 사람 이래. 근데, 아빠는 왜 일본친구가 많아?’ 상당히 곤란했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교육을 하는 선생님으로서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일본의 여러 부모들이 과연, 일본사람들은 저는, 저희 아버님도 일본 대학출신이지지만은, 정직하고 솔직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커 왔습니다. 일

본의 어느 가정의 부모가 자식한테 ‘거짓말을 해라, 솔직해지면 안 된다, 성실하지 마라’라고 교육을 할 것이며, 한국의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솔직하지 마라, 거짓말해라’ 하는 교육을 하겠습니까? 역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한국과 일본의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의견은 있을지언정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와 같이 나이가 어리고 우매한, 저희들이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과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熙勇 코디네이터** :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모임을 가지는 것은 우리 오늘의 목전의 이익보다도 우리 차세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기초를 닦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우리 자식들에 대한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교육을 시킵니까?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우리는 닦아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일경제인들이 모여서 이러한 회의를 가지는 것은 우리 당대의 눈앞의 이익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자,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 너무 훌륭하고, 발전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과거에 제가 관여했던 10여 년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고, 유익한 그런 회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마지막 보충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면, 마지막 찬스입니다. 발표해 주시죠.

李洙喆 三星物産(株) 副社長 : 네. 삼성 물산에 근무하는 이수철입니다. 조금 전에 이 전장관님께서 경제는 한 쪽이 이득을 보면, 한 쪽이 손해를 볼 수 있지만은, 문화는 양쪽이 win-win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단적인 단어에 그치지 않고, 속뜻은 문화나 경제나 다 같이 협력을 해야 잘 될 수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일간에서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FTA문제를 지금 여기 모이신 경제인들이 잘 협력을 하고, 또 관계되는 산업계를 설득을 하고 해서 빨리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간에는 경제인회의가 공식적인 회의가 되어 있고, 이 회의를 백업하는 회의가 '한일산업무역회의'라고 매년 11월에 양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 11일, 12일 교토에서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는 한일경제인회의를 총괄하시는 모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감히 부탁의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한일산업무역회의가 금년도에 7회가 됩니다. 실질적인 FTA문제부터 여러 가지 현안들이 거기서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는데, 한국측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일본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것도 많고 해서 상당히 내용을 작년도에 강화를 했습니다. 과거에 전체 조직원이 한 4, 50명밖에 안 됐습니다만, 120명 정도로 늘리고, 각 업계를 대표하는 조직, 소위 말해서 각 협회라든지, 위원회를 총망라해서 언제든지 일본측의 문제를 저희가 토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만, 아직 일본측은 전체 조직원 수도 한 4, 50명에 그치고 있고, 참여하는 분의 내용도 상당히 한국에 비해서는 떨

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일산업무역회의가 한일경제인회의를 좀 더 발전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충분히 전 산업계를 망라해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일본측에서 충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한일관계는 사람이 하고, 결국은 이런 경제인이나, 문화인이나, 정치인이나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서로 토의를 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제일 먼저, 경제인회의가 가장 활성화되어야 하겠고, 또 경제인들이 문화적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결국은 경제인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일산업무역회의가 실질적인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일본측에서도 관심과 배려를 지금부터 보여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清水 紘一郎 코디네이터 : 제가 익숙치 않은 코디네이터 역할로 충분치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0년 정도 이 회합에 참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처음으로 문화, 인적교류라는 것이 주제가 되어서 매우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부디 이 자리, 이 문화가 주도를 해서 산업이 만들어지고, 산업의 전달, 그리고 그것이 경제발전으로 이루어지는 이어령 선생님의 말씀을 살려서 한일경제인회의라는 것이 발전해 갈 것을 기대하면서 제 마지막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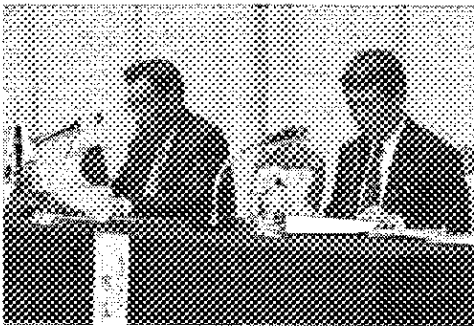
金熙勇 코디네이터 : 네, 이것으로 오전 세션을 마치고, 이제 사무국에서 향후 일정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司會 :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디네이터를 맡아주신 김희용 회장님과 사미즈 부사장님, 그리고 주제발표를 해 주신 이어령 고문님과 이시하라 스스무 사장님께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시부터 한일 양국 고문·단장·전문위원장·코디네이터께서는 공동성명안을 심의하기 위한 오찬회가 3층 라일락룸에서 있으며, 일반 참가단원 오찬회는 영빈관 1층 루비와 2층 에메랄드룸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전체회의는 2층 다이너스티 I 에서 1시 30분부터 개최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분과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清水 紘一郎 코디네이터 :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언을 하셨던 APU의 하야시선생님으로부터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의 팜플렛을 밖에 준비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한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으므로 부디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6. 全體會議

司會[許南整 (社)韓日經濟協會 專務理事, 以下同一] : 전체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본 전체회의는 한국측에서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이신 설원봉 대한제당(주) 회장님과 일본측에서는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이신 아소 유타카 사장이 공동의장이 되어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설원봉 회장님, 아소 유타카 사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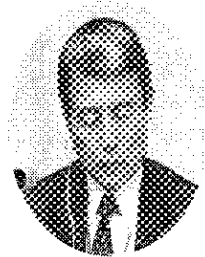


薛元鳳 議長 : 방금 소개받은 설원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아소 유타카 사장님과 전체회의의 공동의장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전체회의에서는 세 개의 주제발표에 이어서 오전에 있었던 제1, 제2분과회의의 한국측 코디네이터로부터 각과회의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아무쪼록 한일교류분야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상호협력이 증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활발한 참



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본측의 아소 유타카 사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麻生 泰 議長 : 지금 소개받은 아소라고 합니다. 설원봉 회장님과 함께 전체회의의 공동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한일교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활발한 의견교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설원봉 의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薛元鳳 議長 : 감사합니다. 그럼 주제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제발표는 한 분이 20분으로, 시간을 가급적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는 공로명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소장님께서 '어떻게 한일간의 負의 유산을 극복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공로명 소장님은 주브라질대사, 주뉴욕총영사, 주소련대사, 제25대 주일대사와 1994년부터 96년까지 제25대 외무부장관을 역임하시고, 현재 동국대학교 국제학과 석좌교수, 한일포럼 제3대 회장, 일본 아사히신문 부설 아시아네트워크회장과 한림대 부설 일본학연구소 소장님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그럼 공로명 소장님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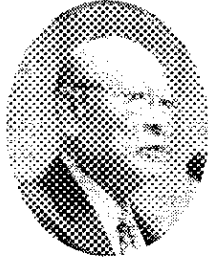
## (1) 韓國側 主題發表①

### 「어떻게 韓日間の 負의 遺産을 克服할 것인가」

孔 魯 明

翰林大學校

日本學研究所 所長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공로명입니다. 존경하는 조석래 한국측 단장님, 세토 유조 일본측 단장님, 그리고 오후 회의의 사회를 맡아주실 설원봉 회장님, 일본측 아소 유타카 회장님, 그리고 임석하신 한일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 제37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제가 한국측 주제를 발표하게 된 것을 저 개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한일관계에 있어서 부단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과거의 역사적 유산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한일·일한경제인회의는 전례 없이 높은 한일관계의 격랑 속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격랑도 이웃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항일테모와 항일적인 여러 가지 행동에 비추어서는 한결 평화롭고, 질서 있는 가운데 항의나 테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일관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지난 41년간의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양국관계에 깊은 구름이 끼어 있던 일은 그리 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핏 생각해서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던 1964년 6월 3일, 즉 6.3사태가 선포되던 그 당시의 국내 상황과 또는 1974년 육영수 여사가 홍

탄에 맞아서 사망했던 이른바 문세광사건 당시의 상황에 전주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감이 듭니다.

금년이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되는 해이며, 양국 정부가 작년 '한일우정의 해'로 정하고, 그 첫 행사가 금년초 서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모리 전 일본수상의 참석하에 성대히 거행된 것이 불과 석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금년은 1905년 일본이 노일전쟁의 승리를 배경으로 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한국을 일본의 보호령으로 만든 지 100주년이 되는 치욕적인 해가 됩니다. 또 1945년 연합국의 승리로 한국이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의 질곡에서 해방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여, 한국의 최근세역사상의 명암이 교차하는 그러한 복잡한 해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일본이 한국의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라고 해서 1905년 소위 무주전점하였던 시마네현이 100년 후인 오늘날 다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그 기념일을 제정한 행위는 한국국민에게 있어서는 일본제국주의의 망령이 재림하는 것 같은 것으로 비치게 되어 결국 국민감정이 크게 자극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독도문제와 더불어 일본의 중등역사교과서가 종래 교과서보다 개악된 것으로써 검정을 받게 된다는 보도가 있어 더욱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한국국민감정이 100년 전의 사건과 겹쳐서 크게 자극되었다는 점까지는 이해되나, 한국정부가 그러한 국민감정을 다독거리는 것 보다는



오히려 불을 붙이는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입장에 있지도 않고, 또 우리 정부 당국의 일부 대응에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을 변호할 처지도 못 됩니다.

한일간의 기상도는 항상 변화무쌍한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역사인식에 관한 문제와 영토문제는 양국관계의 지뢰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국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규율해 주는 데 있어서의 안전변적인 장치 가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첫째, 한일 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공유해 온 자유우방국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대한민국과 전후의 신생 민주 일본은 다 같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상호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 왔다는 점과 셋째, 두 나라는 이와 같이 공존공영하기 위하여 이웃으로서 우호협력관계를 돈독히 해 나가는 것이 각자의 국익에 합치된다는 인식을 갖고, 근래에는 공동의 파트너로서 상호신뢰를 쌓아 올리는 노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대전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과 위기감을 나 자신을 포함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갖게 하는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고위 당국자의 입에서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침략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 데 대하여 '뿌리를 뽑겠다'는 강한 의욕을 표명하고, 외교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말들이 나온 데 대하여 물

론 일부 이를 지지하고 박수치는 한국 국민도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상당수의 국민들 가운데는 그러한 언사에 불안감을 갖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난 40년간 한일 양국 정부와 국민간에 조성되어 왔던 '우호협력관계의 상호신뢰가 흔들리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우리는 일본이 일본제국주의 시대의 負의 유산을 깨끗이 청산하지 않고서는 동아시아의 참다운 지도국으로 군림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조야는 199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 50주년을 맞이해서 발표했던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의 담화의 정신에 투철할 때 동아시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린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무라야마 총리는 당시 총리담화의 형식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전후 50년이라는 길목에 이르러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미래를 바라보며, 인류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그르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밀지 않은 과거에 한 시기,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제국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미래의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할 마음을 표합니다. 또 이 역사로 인한 국내외 모든 희생자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패전의 날로부터 5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

나라는 깊은 반성에 입각하여 독선적인 내셔널리즘을 배척하고, 책임 있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협조를 촉진하고, 그것을 통하여 평화의 이념과 민주주의를 널리 확산시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 때 일본 패전 50주년에 일본국의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국회의 결의가 되지 못하고, 총리의 담화로 나온 것이 그 뒤에도 계속 문제를 남기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자민당 지도자의 한 사람인 고토다 마사하루 전 부수상이 확실히 종전 직후에 일본의 과거의 총괄은 당시 나라의 정체를 보호, 유지하는 것이 최대의 문제였기 때문에 애매하게 끝났다고 시인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유럽에서 있었던 것과는 달리 그 후에 일본제국주의 및 군국주의의 침략전쟁의 미화로 발전하고, 오늘날에 역사인식문제로 불거진 것을 일본은 이를 반성하고 이를 시정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손자가 전쟁에 앞서서 적정을 충분히 살필 것을 강조하고 있듯이, 이른바 외교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평가하고, 그 토대 위에서 대처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면 독도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을 위요한 일본의 사정을 어떻게 우리는 평가해야 옳을까요? 독도문제가 한일간의 쟁점이 된 것은 1952년 1월 우리나라가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을 선언한 직후,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반론을 제기한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본측 주장을 물리치자 일본은 국제재판소에서 그 소유권을 가리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우리의 소유가 분명한데 일본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는 입장을 일관해 왔을 뿐더러, 우리는 일찍이 1953년 4월부터 독도에 수비대를 두고 실효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정기적으로 외교문서를 통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유보하거나,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 주변 수역을 침범함으로써 일본측 권리를 유보하는 행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측이 실효적 관리를 해 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 후쇼샤 교과서를 만든 이른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가 한국이나 중국측의 항의가 드높다 하여 그들의 생각을 바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은 익히 이것을 지켜봐 와서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역사관을 갖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생각이 채택된 것은 0.03%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서는 안 됩니다.

독도문제나 역사교과서 문제의 본질이 이런 만큼 우리는 우리의 대응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인가를 살피면서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성과를 환상화하여 국민에게 전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대응으로 치달을 때 그것은 과거지향적 사고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따름입니다.

독도문제로 격앙된 우리 국민들 가운데에는 욕석을 가리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

하는 것이 애국애족의 행동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마네현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던 경상북도가 자매관계를 단절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조치냐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제가 들기에는 시마네현 교육위원회에서는 후쇼샤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현 의회의 행위는 규탄되어야 하나, 시마네현 전부를 도매금으로 매도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할 여유가 필요합니다.

2002년 월드컵 한일공동개최이래 호전되어 왔던 일본 시민레벨에서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반한’이라는 위험한 감정으로 되돌아간다면 이것은 우리의 자해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현재는 과거가 있음으로써 존재하고, 오늘의 연장선상에는 내일이라는 미래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 균형감각’ 또는 ‘원근감각’이라고 부릅니다.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한일 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민주국가이며, 지금까지 미국을 매체로 사실상의 동맹관계, 학자들이 말하는 ‘virtual alliance’를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귀중한 자산을 아무런 실속 없이 내팽개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자주독립국가로 재탄생해서 올해로 57년이 됩니다. 35년간의 일본 제국주의의 멍에에서 벗어난 지도 60년, 환갑이 됩니다. ‘해방둥이’로 불

리던 1945년생들이 환갑이 된 것입니다. 아홉 되면 우리는 민족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침략을 물리치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남들이 칭송해 왔던 조국 근대화·산업화를 통해서 OECD멤버가 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길러온 우리의 지난날에 자긍심을 갖고, 미래를 향하여 힘찬 발을 내디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후대를 위한 역사적 사명이 아닐까요? 저는 이 나라의 경영을 맡고 있는 한글세대, 386세대, 그리고 그 후속세대인 30대, 20대 후배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한일관계도 마찬가지로 피동적이며,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볼 때 한일관계는 미래가 있습니다. 일제 36년간의 대가가 고장 무상 3억, 유상 2억이었느냐고 하여 국교정상화 당시 우리는 커다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밑거름이 되어 우리 농민들의 경운기가 되고, 분무기가 되고, 세계적인 유수기업인 포항제철이 탄생하고, 경부고속도로가 생겨서 전국이 일일 경제권으로 탈바꿈하는 플러스효과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한일관계를 win-win관계로 만들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첨병역할을 한일·일한 경제인 멤버들이 과거에 그랬듯이 앞으로도 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에 있어서 zero-sum 게임을 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한일관계에 관한 김구선생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매듭짓고자 합니다. 역사를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성한 오늘날이라도 김구선생을 친일파라고 감히 폄하할

사람은 대한민국 천지에 없을 것으로 압니다. 저의 오랜 친지의 한 사람으로 써서면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일찍 해방 후에, 혼란스러운 시기에 학생운동의 지도자로서 김구선생에게 깊숙이 사사했고, 안중근의사연구와 근대한일관계사 및 독도연구에 인생의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는 2002년 6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친일파에 대한 김구선생의 생각을 소개한 바 있어 여기서 인용하고자 합니다. 김구선생께서 생존하실 때 어느 신문사 사장이 김구선생에게 “선생께서 친일파를 처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하다”고 하니까 김구선생은 “일본이 바로 이웃에 사는데 친일파는 많을수록 좋다. 없다면 만들어야지. 내가 말하는 것은 반민족적 친일파를 처단하라고 한 것이지, 언제 단순히 친일파를 처단하라고 했느냐”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건국이라는 북새통에 불을 끄려면 강도의 손도 빌려야 한다면서 ‘전부 힘을 합쳐서 일단 건국부터 하고, 그 다음으로 숙청대상은 새로 생기는 국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려 기본법을 만들어서 할 문제’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국제 관계마저 소아병적 접근법이 횡행하는 오늘날, 다시 한 번 유미해 불 만한 얘기라고 생각되며, 이 시대를 살면서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薛元鳳 議長 : 감사합니다. 공로명 장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주제발표는 일본측에서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아소 유타카 회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麻生 泰 議長 : 공로명 장관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본측의 주제 발표는 테라다 테루스케 이사장님이 ‘한일관계의 현상과 전망’이라는 테마로 발표하시겠습니다. 테라다 이사장님은 주프랑스공사를 거쳐 주멕시코대사를 역임하셨으며, 2000년부터 3년간 주한일본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2003년에 퇴직하신 후에 현재는 재단법인 포린프레스센타의 이사장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그럼, 테라다 이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 (2) 日本側 主題發表

### 「韓日關係의 現狀과 展望」

寺田 輝介

(財)Foreign Press

Center 理事長

前 駐韓日本大使



“여러분, 안녕하세요  
니까? 방금 소개받은  
테라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어가 부족해서 이제부터 일본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석래 회장님, 김상하 명예회장님, 세토 회장님 그리고 설원봉 공동의장님, 아소 유타카 공동의장님,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지금 소개받은 테라다라고 합니다. 방금 저는 한국 외교관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공로명 선생님의 대단히 격조 높고, 의미 깊은 멋진 연설을 들었습니다. 공로명 선생님의 말씀을 저도 의미 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로명 선생님께서는 이 ‘負의 유산’을 뛰어넘어 한일관계를 win-win관계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한일관계를 win-win관계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소개 말씀에도 있었던 것처럼 2000년 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약 3년간 한국에서 근무했습니다. 저는 3년간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하나의 특성을 느꼈습니다. 대단히 관계가 좋을 때,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본에서 일어난 문제 때문에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

황이 되었다가 그것이 또 다른 일을 계기로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 3년간 반복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현재의 상황도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2000년 2월에 제가 부임했을 때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러브레터’라는 영화가 한국의 20대 젊은이들에게 히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각해 보면 이미 어떤 의미에서의 ‘日流’가 2000년에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의 긍정적인 분위기는 그다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1년 교과서문제가 발생, 그 결과 저는 아마 외국 대사로서는 최고 기록을 세우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당시 두 명에 걸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7번이나 소환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과서문제는 2001년 10월 겨우 한일정상회담이 실현되어 이 문제 해결의 로드맵이 생겼던 것입니다.

2002년, 이 해는 제가 3년간 한국에서 근무했던 시간 중에서 제일 즐거웠던 해, 월드컵이 열렸던 해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특히 일본에서 화제가 되었던 ‘한류’는 주간지에서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겨울연가현상’, 역시 이것은 월드컵이 성공해서 한일 국민레벨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자연스럽게 ‘한류’가 발생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회사의 연구결과를 신문에서 보면, 이 ‘겨울연가효과’가 한일 양쪽에서 2,297억 엔이나 달성되었다고 하는, 믿기 힘들 정도의 경제효과를 거두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구세대라 별로 관심이 없지만, ‘윤사마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작년에 약 187,000명의 중년

여성들이 한국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좋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일본 내각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외교에 관해 매년 하고 있는 여론조사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 층이 56.7%, 이것은 내각이 전후에 조사한 기록 중에서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겨울연가효과'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고 있다. 이것이 작년 10월에 조사된 내용입니다.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56.7%의 내용을 보면 일본의 20대 젊은이 63.1%가 특별히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고 있고, 더 나아가서 30대 65.4%, 그런 이유에서 월드컵 후에 '한류', 일본에서는 중년의,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아줌마족'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대, 30대도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대단히 긍정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유감스럽지만, 최근 다시 한일정치외교마찰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공로명 선생님이 구체적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2001년에는 제가 서울에서 당시의 교과서문제를 보았지만, 이번의 이 정치외교마찰은 제가 도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의 신문을 보고, KBS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점은 매스미디어가 이 문제를 취급하는 방식이 매우 극단적이고, 강성을 띠고 있는 점이 대단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영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모두 극단적인 것들만 초점이 되어서, 저는 이런 것

들이 한일의 국민감정상 대단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외교마찰은, 보도에 의하면 6월에 한일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제가 2001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최종적으로는 역시 양국의 정상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에는 당시에 양국 정부 사이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로명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6월에 양국 정상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는 사실에 저는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근의 정치외교마찰에 대해 일본의 신문, 아마 일본에서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일본경제신문에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3월 29일~31일에 실시한 것입니다. 결론은 당연히 상식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에서 74%의 사람들이 이번의 이 정치외교마찰로 인해 한일관계가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저는 이 여론조사의 내용을 보고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정부와 정부의 관계가 나빠진다고 하는 의견이 74%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일본의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일간의 관계는 전혀 변화가 없을 거라는 쪽에 57%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고 저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한국과 일본의 접촉이 비약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과거처럼 한국

과 일본의 매스컴의 보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최근의 한일관계가 위험한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지난 주에 서울에 갔다 왔다.' 신문의 보도, TV에서 보는 장면과 달리 그렇게 생각하는 보통의 일본인이 굉장히 놀았다는 사실, 이것은 사실 저는 한국과 일본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저의 제한된 3년간의 경험에서 보면 반드시 up과 down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치적인 문제, 외교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서 마찰을 줄일 수 있을까, 이것은 제가 부임해서 3년간 항상 생각해 왔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래 전의 이야기지만, 저는 2000년 2월에 부임해서, 아마 열흘 후라고 생각합니다만, 신임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실로 한국 정부의 일본의 대사에 대한 국제적 예의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멕시코에 부임했던 95년 8월에 대통령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2개월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열흘 이내에 신임장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규칙위반을 했습니다. 신임장을 받고 나서 대통령께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바로 불러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모처럼의 기회였기 때문에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각하께서 98년 10월에 일본을 방문해서 거기서 지금은 돌아가신 오부치 총리와 함께 한일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거기에는 확실히 일본의 과거에 대한 반성이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그 과거의 반성을 포함한 상태에서 한일관계를 어떻게 코치할 것인가 하

는 것이 그 공동성명의 공동계획 안에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 '한국과 일본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의 방향은 이미 나와 있다, 한일우호highway는 길이 있다, 목적이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일우호highway는 포장조차 되어 있지 않다. 잘못하면 이 도로도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 앞으로 한일 양국 정부, 대사도 특히 그렇지만 이 우호도로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리적인 우호highway였다는 것은 2001년의 교과서문제로 실증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작년의 2004년까지 4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정리해서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었나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작긴 하지만 이 4년 동안에 한국과 일본의 이 우호적 highway의 토대를 복구하는 재료가 조금씩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경제를 한 번 보겠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한일투자국으로 2002년 3월에 생겼습니다. 그 교과서 문제로 혼란한 시기에 상관없이 경제 문제는 별개다, 앞으로 한일관계를 생각할 경우에는 경제가 중요하다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섭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교섭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2000년 9월, 이때는 분위기가 좋을 때였습니다만, 일본의 아타미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매우 작은 것입니다만, 하나는 한국과 일본이 'IT이니셔티브'라는 것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다음해 2001년의 12월에 한국과 일본의 IT기술자의

자격을 상호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아마 1,000명 이상이, 한국의 대학을 나왔지만 다른 곳에 취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 일본에 건너왔습니다. 바야흐로 '현대의 백제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것도 2000년에 결정된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당시에 모리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일본의 대학시험 과목에 한국어도 넣겠다'라고 결정했던 일입니다. 올해 1월에 아시히신문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본 전체에서 247개의 고등학교에서 한국어수업을 하고 있다, 바야흐로 앞으로 한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그 영향은 프랑스어에 미쳤습니다. 프랑스어를 제치고 한국어가 제2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 수업을 폐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좋은 얘기는 좀처럼 신문의 기사가 되지 않나 봅니다. 이것도 저는 역시 한일우호 highway의 중요한 일부의 화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실제로 발족했을 때 실현되었지만, 1999년부터 2010년에 걸쳐 매년 100명씩 합계 2,000명의 한국 고등학교 졸업생을 일본 국립대학의 이학부, 공학부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한다는 프로젝트가 실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이 되면 한일간에 양쪽의 사정을 아는 기술자가 탄생한다, 그것이야말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FTA가 체결되었을 때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매우 기쁘게 생각했

던 것은 서울대학교에 '일본연구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평범하게 서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적인 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의 일본에 있어서는, 방금 전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젊은이들이 특히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청소년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토 회장님이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만,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한일의 고교생이 400명이 모여 고교교류캠프를 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하나의 win-win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역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될수록 풀뿌리 교류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시 silver volunteer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3일,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도치기현의 오타라시에서 일본의 중학생, 고등학생과 한국의 중학생, 고등학생이 골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결과는 한국팀의 압승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행정적인 간섭 없이 각각의 단체가 한일간에 그런 교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한일우호highway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위킹 홀리데이나 JET프로그램 등은 물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제도적인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부터의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 그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네 개의 요소의 무한한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물건, 돈, 서비스, 이 네 가지 요소의 자유화입니다. 사람의 자유화, 드디어 김포와 하네다간의 항공편이 4편에서 8편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열리고 있는 아이치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한국인 여러분의 비자가 면제되고 있지만, 이것이 아이치 만국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으면 하고 저는 바랍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돈의 자유화, 이것은 이미 한일투자협정에 의해 실현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물건과 서비스의 자유화, 이것이 한일 FTA의 체결요인입니다. 이미 한일 양쪽의 경제인들 사이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면 올해 들어 2월 17일자 중앙일보에서 '한일 FTA 교섭, 중단하면 안 된다'라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3월 1일 일본경제신문의 사설에서 '한일 FTA를 중단하지 마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일관계도 확실히 정치, 외교의 마찰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경제관계에서는 전진할 수 있다,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 한일관계가 경제적으로도 서로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 한일 양국에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협력을 진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 구체적인 점을 들자면 하나는 관광입니다. 오늘 제2분과회의에

서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작년 12월에 헬싱키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저는 처음으로 6시간에 걸쳐 헬싱키에서 세인트피터스버그까지 철도로 여행을 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를 철도로 여행한다. 거기서 제가 문득 생각했던 것은 '왜 한국과 일본은 서로 협력해서, 특히 서양의 관광객에 대해서 서로 손을 잡고 신칸센을 이용해서 한국과 일본을 여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일까' 서울에서 시작해서 신칸센을 타고, 경주에도 가고, 부산에도 가고, 그리고 또 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신칸센을 타고 교토에 가고... 이것이 유럽, 미국의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이 단독으로 노력을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리는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협력이 '월드컵의 관광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3년간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한일의 협력관계는 대단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과학자가 일본의 거대한 과학장치를 만들어서 노벨상을 타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포항공과대학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장래에 한국에서 배출될 노벨상 수상자를 위한 자리가 반 다스 이상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인공위성을 함께 쏘아 올리는 것, 이것도 역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국과 일본 사이의 눈에 보이는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의 한일관계는 단순히 양국간 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로는 부족합니다. 역시 앞으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reasonable한 관계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미 어제의 기조강연에서 윤 부회장님에게서 '한중일간의 경제인회의를 열자'고 하는 의견이, 또 오후다 회장님은 '한중일의 투자거래는 어떻게'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나아가서 존경하는 이어령 선생님의 '한중일의 문화공동체' 소위 한일 양국관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reasonable한 관계로 만들어 간다, 그것은 중국을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일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것은 제 하나의 희망이기도 합니다만, 4년 후, 5년 후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하나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문제입니다만, 한국은 세계 GDP의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에 가입한 것은 1996년입니다. OECD에 가입하고 나서 한국은 OECD의 중요한 기능인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쉽게 말한다면 ODA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시 일본도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그만큼 경제력이 있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대해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ODA의 강화입니다. 2003년의 수치를 보면 한국은 ODA는 3억6천6백만불, 일본도 최근 줄고 있어서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88억불이었습니다. 저의 소망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이 ODA를 늘려서 한국과 일본이 global적인 협력을 하는 것, 소위 '한일고문아젠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표를 위해 한국 정부, 일본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좀 초과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회의에 나올 때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3월 14일에 저는 홋카이도에 가서 다카하시 지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다음 번 '한일경제인회의'를 부더 홋카이도에서 개최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麻生 泰 議長 : 감사합니다. 그럼 설원봉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薛元鳳 議長 :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제 발표로 한국측 산업자원부 아주협력과 전제구 사무관께서 한국의 투자환경 설명에 관한 영상홍보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3) 韓國側 主題發表②

#### 韓國投資環境 弘報 映像物

#### 「韓國과 함께, 東北아시아를 넘어 世界로」(産業資源部)

안녕하십니까? 산업자원부 아주협력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제구 사무관입니다. 한일 양국이 21세기 동북아시아대를 이끌어 갈 파트너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물은 양국이 함께 투자협력을 통해서 세계로 함께 진출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부조록 본 영상물이 양국간 이해와 투자협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映像物 内容>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대” “투자하기 좋은 환경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 “한국으로 오세요”

한국과 함께,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세계속의 한국의 위상** : 한국은 세계경제의 회복 전망과 더불어 주목받는 동북아의 중심지입니다. 글로벌 기업인 시티뱅크와 필립스를 비롯한 거대 외국자본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신규투자는 물론 체류 기업들의 증액투자 역시 활발하게 늘고 있어 투자적격지로서의 한국의 위상이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SJC 다카스끼 노부야 회장님 인터뷰>

“한국은 동북아 경제의 허브가 되고자 하는 의미에서도 대단히 매력적인 국가다. 특히 일본, 중국, 한국의 지리적인 요소를 생각했을 때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한국의 역할은 크다. 그런 점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을 느낄 것이다.”

**왜 한국인가?(성장가능성)** : 한국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및 아시아 경제성장과 발맞춰 한국의 경제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도 점차 회복하고 있어 아시아 개발은행, ADB에서는 한국이 2005년에는 투자와 소비가 균형 발전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세계인구의 24%가 살고 있고 세계생산의 19%가 창출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역동성과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최우선 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투자활성화 정책으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왜 한국인가?(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 한국은 지금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폭넓은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고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조성해 반영구적으로 무상에 가까운 입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JSR 사장님 인터뷰> “저는 오창공단에 있고 굉장한 스피드로 단지가 확장되고 있다. 불과 1년도 못되어 허허벌판이던 곳에 많은 공장들이 세워졌다. 한국정부의 활발한 유치활동의 증거이고 물리적인 증거다.”

그리고 첨단부품 소재와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캐쉬 그랜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뿐 아니라 행정적 조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모토로 하여 오히려 외국기업이 더 일하기 좋은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보다 편리한 기업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광양항의 주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들은 아세안과 중국에 진출한 기업보다 높은 흑자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인가?(우수한 인적자원) :** 한국은 무엇보다도 노동력에 강점이 있습니다. 높은 교육열, 혁신 성향과 추진력,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우수한 노동력이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근로자들은 생산의 전 분야에서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보다 훨씬 우수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요코가와 전기 사장님 인터뷰> “개개인으로 봤을 때 한국인 근로자들은 일본인 근로자보다 우수하다. 그래서 결코 두려울 것이 없다.”

<니켈 사장님 인터뷰> “구체적으로 IT산업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왜 한국인가?(산업 경쟁력) :** 한국은 R&D 지출액이 세계 10위, GDP에서 차지하는 R&D의 비중이 세계 4위로 정부는 산업 전반에 걸쳐 R&D투자를 점점 확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 외국인 기업들의 R&D투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LCD, 반도체 그리고 IT 분야의 경쟁력은 이미 세계무대에서도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집약적 산업경쟁력으로 한국은 특히 첨단소재 산업과 부품산업의 투자적격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의 부품 현지조달비율도 아세안과 중국에 비해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에 이르는 차세대 산업 역시 해당 산업체,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차별을 두지 않는 이러한 연구개발 과제에 많은 외국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무라 경제연구소 소장님 인터뷰> “일본인 기업들이 한국투자에 적극적인 이유는 고객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제조업은 세트 메이커로는 대단히 강하고 이것이 일본의 제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가 되는 것이다. 더욱 한국인의 높은 노동력과 우수한 인프라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정책도 한국투자의 매력이다.”

**변화하는 한국의 환경 :** 노사 노사문화도 변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호 협력의 선진노사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담당기관 -INVEST KOREA-** : 한국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KOTRA 내에 INVEST KOREA를 설치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윈스톱 서비스는 초기 투자상담에서부터 인허가를 위한 행정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외국투자자가 투자의향을 밝힐 경우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하여 투자상담부터 사업개시에 이르기까지 투자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각각의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전문가 1명을 지정하여 고충해결을 지원하는 홀닥터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INVEST KOREA에서는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를 적극 지원합니다.

<아사히 사장님 인터뷰> “저희로서는 이번 투자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감을 갖고 사업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KOTRA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FTA 체결을 앞두고 장벽 없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일본과 한국.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한국은 일본의 베스트 파트너입니다.

薛元鳳 議長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양국의 주제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오전에 있었던 제1, 제2분과회의의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보고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개최국의 코디네이터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분과회의의 한국측 코디네이터를 맡으셨던 성재갑 LG석유화학(주) 고문님께 부탁드립니다.

#### (4) 第 1 分科會 報告

成 在 甲

韓國側 코디네이터



제1분과회의의 코디네이터 보고를 맡은 LG석유화학 고문 성재갑입니다. 제1분과회의에서는 ‘경제연대와 향후 양국기업 간 협력방안’에 대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이지마 히데타네 도레이(東レ)특별고문님의 협조하에 상호 유익한 발표와 활발한 토론 및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측에서는 유상부 포스코 고문께서 ‘한일철강협력 성공사례와 향후 협력방향’에 대해서, 일본측에서는 사메시마 후미오 태평양시멘트 사장께서 ‘소재산업의 한일경제 연대 사례와 향후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소재산업에 대한 사례 발표와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플로어로부터 한일경제협력사례가 더욱 많은 업종과 기업으로 확산되어 나가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먼저 한국측의 철강산업의 협력사례와 향후 방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의 세계 경제 및 산업과 기업은 경쟁과 협력시대의 성숙으로 경쟁적 협력관계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고 있으며, 둘째, 한일 FTA가 기대효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상호 이해부족으로 협상이 난관에 직면하고 있으며, 셋째,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의 협력사례를 통한 철강산업협력은 모범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결론적으로 한일 산업간에는 협력활성화와 성숙화가 필